

전략연구 2018-00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인배 · 김경태 · 권미정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기획재정부 재정혁신추진과제에서 축제·행사성 지원사업은 예산을 축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03년부터 전문가 평가를 근거로 시·군별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충남도 지원축제 평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15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해오면서 충남도 각 시·군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되어, 충남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충남도 지원축제의 평가 과정을 검토해보고,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향토문화축제의 평가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변화된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에 대응하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향토문화축제의 평가방법과 도비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중앙정부의 축제 지원제도에 맞추어 충청남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문화관광축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 육성의 필요성과 축제문화의 서열화 및 획일화에 대한 우려, 정부와 지자체간 축제발전 정책 연계 부족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의 기본방침은 ① 자치분권 원리에 따른 자치단체 역량제고, ②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③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등지원제도의 재검토 등이다.

지역축제 평가·지원 연구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축

제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이 필요, 둘째 기존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의 요구 시기 셋째, 축제평가 방식·방법의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넷째 축제평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지원인센티브 제공의 다양화, 다섯째 축제주관자의 자체적인 축제의 평가 또는 모니터링 필요, 여섯째 축제평가와 개선을 위한 제도화 추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선행연구 및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이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평가와 지원정책의 대응방향 차원에서 정책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충남의 도비지원축제의 평가와 제도분석의 시사점

충청남도의 축제개최 현황과 특성, 충남 시군과 도의 평가와 지원제도, 충남 도비지원축제 및 평가제도를 분석하여 종합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양적성장에 비해 평가체계의 확일성을 지적하고, 평가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축제의 양적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경쟁력이 높은 축제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시군별 평가 및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축제와 관련한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축제평가 및 지원제도와 연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비상설 축제추진체와 전문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나 주관단체 및 기관이 없는 경우 축제추진 주체의 상설화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현재 충남도 축제평가제도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일부의 몇 개 시·군만 평가체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외 지자체는 평가체계가 부재하며, 도비지원축제와 같이 세부적인 평가와 차등지원은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지역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조사를 분석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축제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콘텐츠 및 조직 전문성 강화, 예산배정지침 마련 컨설팅과 사후평가 실시, 축제 커뮤니티 지원과 전문가와 전문팀 등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시스템에 대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충남 향토문화축제 평가항목의 제안과 관련하여 축제평가항목의 배점강화와 항목의

조정, 평가항목에 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등이 있었다. 더불어, 축제평가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차별화하고,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로 세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축제평가에 따른 도비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축제성격과 등급제 실시와 컨설팅 지원책 강화뿐만 아니라 지원예산 사용지침마련 및 지원금 차등화, 지원금 사후평가제 실시와 지원금제정기준 마련과 지원금액의 고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평가전문가 선정 개선과 콘텐츠전문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축제컨설팅 기능 추가와 민간전문기관 설립과 축제자립화, 축제육성 지원제도와 기관설립과 평가제도 개선, 통합홍보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축제평가제도에서는 충남형 특성 축제평가척도 개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의 지양과 비수기 축제의 지원정책, 평가결과 반영 및 점검의 추진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항목 및 세부지침의 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타의견으로는 축제명칭 구체화와 일정고정, 마케팅 강화 및 충실화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반영과 후속조치 강화, 정기기적인 축제의 실태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평가의 투명성과 개선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① 문화관광축제 변화에 따른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도입, ② 충남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및 세부지침 마련, ③ 비평가와 비지원 시·군별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과 육성, ④ 도비지원제도의 체계화와 시·군별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⑤ 지역 차별화된 축제의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 정책과제는 성장형 효율적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개선,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사항별 충남 축제 지원제도의 대응,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축제 관련 전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충남 축제평가·지원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축제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한 축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충남에서도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충남형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과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도비지원제도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의 다각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과 시군별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 강화, 평가결과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의 직접 및 간접방식 등 다양화 추진 등을 추진한다.

축제 관련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은 충남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원 중심의 축제네트워크 구축과 충남 축제전담기구의 상설화, 충남 축제전문가의 양성과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충남 도비지원 축제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축제 평가에 대한 이론연구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충남 도비지원축제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최근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2019. 10. 31)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이들 제도개선에 맞추어 충남의 도비지원축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목 차

연구요약

1. 필요성과 목적	i
2. 주요연구내용	i
3. 결론 및 시사점	v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8
4. 선행연구와 차별성	9

제2장 지역축제평가 지원제도 관련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1. 지역축제 평가지원에 관한 연구와 정책동향	10
1) 지역축제 평가와 지원체계	10
2) 축제평가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15
3) 지역축제 평가지원에 관한 정책동향	18
2.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동향	21
1) 문화관광축제 육성제도의 변화과정	21
2) 최근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동향	25
3) 소결 및 시사점	34

3.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와 지원제도	36
1) 문화관광축제 육성제도의 변화과정과 특성	36
2)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지원 등 제도개선방향	47
3) 지방정부 지역축제에 주는 시사점	49

제3장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분석의 시사점

1. 충남 축제 개최현황과 특성	54
1) 전국과 충남의 축제 현황	54
2) 충남 축제의 특성	57
3) 충남 시군과 도의 평가와 지원제도	67
4) 충남 도비지원축제 및 평가제도 현황	76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80
2.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82
1) 의견조사의 개요	82
2) 전문가(충남육성위원회) 의견조사 개최결과	83
3) 종합정리 및 시사점	94
3.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의 도출	96
1)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와 지원제도 변화에 대한 시사점	96
2)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분석의 시사점	99
3)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의 시사점	100

제4장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03
1) 접근 틀	103
2) 기본방향	104
2.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 정책과제	105
1) 성장형 효율적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개선	105
2)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105
3)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지원제도의 대응	106
4)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106

5) 축제 관련 전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	107
3. 충남 축제평가지원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	108
1) 충남형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	108
2)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116
3)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도비지원제도의 대응	126
4)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131
5) 축제 관련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	13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39
1) 요약 및 종합정리	139
2) 정책제언	144
2. 향후 연구과제	150

참고 문헌	151
-------------	-----

표 목 차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18년 예산안 축제·행사성 지원사업	1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표 2-1] 지역축제 지원체계 내용종합	20
[표 2-2] 문화관광축제 이후 변화 요소	24
[표 2-3] 문화관광축제 사업 내용	38
[표 2-4]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41
[표 2-5] 1996~2017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45
[표 2-6] 2019년 문화관광축제 지역별 등급 지정 현황	46
[표 2-7] 문화관광축제 사업 내용	48
[표 2-8] 문화관광축제 사업 내용	49
[표 3-1] 2018년 지역축제 개최현황	54
[표 3-2] 충남 분야별 지역축제 현황(2017)	55
[표 3-3] 시군별 지역축제 현황(2017)	55
[표 3-4] 2018년도 충청남도 축제개최 현황	57
[표 3-5] 계룡시 축제의 특성	58
[표 3-6] 공주시 축제의 특성	59
[표 3-7] 금산군 축제의 특성	59
[표 3-8] 논산시 축제의 특성	60
[표 3-9] 당진시 축제의 특성	61
[표 3-10] 보령시 축제의 특성	62
[표 3-11] 부여군 축제의 특성	63
[표 3-12] 서천군 축제의 특성	63
[표 3-13] 아산시 축제의 특성	64
[표 3-14] 예산군 축제의 특성	65

[표 3-15] 천안시 축제의 특성	65
[표 3-16] 청양군 축제의 특성청양군 축제의 특성	66
[표 3-17] 태안군 축제의 특성	66
[표 3-18] 홍성군 축제의 특성	67
[표 3-19] 충청남도 시군의 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조례)	68
[표 3-20] 충청남도 시군의 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조례)의 내용	69
[표 3-21] 충청남도 시군별 축제관련 평가체계 및 지원 유무 및 시행여부	73
[표 3-22]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74
[표 3-23] 2018년도 도비지원축제 현황	76
[표 3-24] 2018년도 도지원 평가신청 축제	77
[표 3-25] 2018년도 도비지원축제 현장평가기준	78
[표 3-26] 충남 축제육성 및 지원정책 활성화 과제와 개선 방안	83
[표 3-27] 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항목 개선 방안	85
[표 3-28]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축제별 도비 지원액 개선 방안	87
[표 3-29] 충남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방안	89
[표 3-30]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세부적 보완사항	91
[표 3-31] 기타의견	93
[표 4-1] 문화관광축제의 강화된 간접지원 단계 지원사업 개선(안)	110
[표 4-2] 지원축제 선정과정에 사전컨설팅과 환류시스템 강화	115
[표 4-3] 2003년 충남축제 평가항목	117
[표 4-4] 2003년 전문가 평가보고서 양식	118
[표 4-5] 2018년 충남축제 평가항목(1)	119
[표 4-6] 2018년 충남축제 평가항목(2)	120
[표 4-7] 2018년 전문가 평가보고서 양식	120
[표 4-8] 2019년 충남축제 평가항목	121
[표 4-9] 중장기 관점 문화관광축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128
[표 4-10] 일몰제 개선에 따른 재정지원기간 제한의 정비방안	131
[표 4-11]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사업 유형	135
[표 4-12] 충남축제 아카데미 프로그램 예시	138

그림 목 차

[그림 1-1] 축제·행사성 예산 관리지침 개선방향	2
[그림 1-2]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한계	3
[그림 1-3]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의 문제점	3
[그림 1-4]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6
[그림 1-5]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7
[그림 1-6] 연구의 흐름도	8
[그림 2-1] 지역축제 평가 방법	13
[그림 2-2] 문화관광축제의 출발과 시행과정	21
[그림 2-3] 문화관광축제 평가시스템	23
[그림 2-4] 문화관광축제 등급한도제(일몰제) 실시 현황	25
[그림 2-4]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의 문제점	27
[그림 2-6]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와 정책방향	28
[그림 2-7] 문화관광축제 평가개요	29
[그림 2-8] 문화관광축제 선정절차	29
[그림 2-9]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와 주체	30
[그림 2-10] 문화관광축제 단계별 평가과정	30
[그림 2-11]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도	31
[그림 2-12] 문화관광축제 인증절차	31
[그림 2-13] 문화관광축제 평가개요	32
[그림 2-14] 문화관광축제 1차 서류평가(인증기준 안)	32
[그림 2-15] 문화관광축제 관련법 개정 필요성	33
[그림 2-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도입 필요성	33
[그림 2-17] 문화관광축제 축제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34
[그림 2-18] 문화관광축제 사업 배경 및 목적	37
[그림 2-19]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절차	40
[그림 2-20]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운영현황	41

[그림 2-21]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기별 운영현황	42
[그림 2-22] 문화관광축제 개최지역별 운영현황	42
[그림 2-23] 문화관광축제 개최일수별 운영현황	43
[그림 2-24]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이력	44
[그림 2-25] 문화관광축제 현황(1996년~2018년)	46
 [그림 3-1] 지원축제 선정과정	77
 [그림 4-1] 접근 틀	103
[그림 4-2] 축제개최전 지자체축제 계획 수립 및 자체성과 심사	124
[그림 4-3] 축제개최 기간 중 현장평가시 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평가	125
[그림 4-4] 중장기 관점 문화관광축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126
[그림 4-5] 문화관광축제의 현행 및 개선제도의 변화 방향	127
[그림 4-1]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	12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기재부 국가재정혁신추진과제에 축제·행사성 지원 사업 개선방안 제시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혁신추진과제에서 축제·행사성 지원사업으로 2018년 주요 축제·행사에 1.0조원 지원에 대한 국비지원의 부적합성과 관리지침의 미흡성을 지적하였다. 지역문화와 관련하여 관광축제 선정에 국비지원은 문화관광축제지원로 관광기금이 총 55.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지역특화 문화행사에 국비지원은 지역문화행사지원으로 지특회계로 165.7억원이 지원되었다.

[표 1-1] 문화체육관광부 '18년 예산안 축제·행사성 지원사업

(단위 : 억원)

사업	회계·기금	예산
지역문화행사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	165.4
문화관광축제지원	관광기금	55.4
국제대회국내개최지원	체육기금	325.1
합계		5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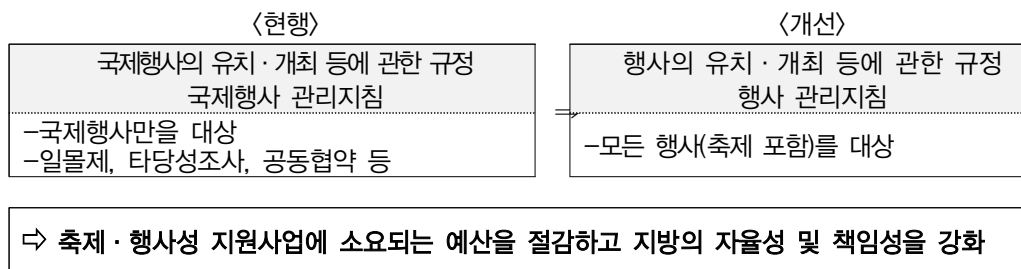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2018), 재정혁신추진과제 자료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출구조 조정방향은 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자체·민간 주관 축제와 행사에 대한 국비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따라서 행사 주관기관의 명확화를 통한 중앙정

부 주관 행사와 지자체·민간 주관 행사의 구별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올림픽·국제대회 등 범국가적 행사, 국경일 등 전국적 규율이 필요한 행사, 장애인축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행사 등으로 국비지원을 한정할 계획이다.

국비지원 금지 및 사업 폐지와 함께 지자체·민간 주관 국제행사 이외 행사의 국비 지원을 금지하고 관련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국세, 지방세 비율을 조정(8:2→7:3)하고, 지역문화행사지원사업,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등은 또한 국비 지원 금지를 제시하였다.

국비 예산 관리지침의 개정·보완으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 지자체·민간 주관 행사에 대한 국비 지원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국제행사 관리지침을 모든 행사(축제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지침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행사의 지원 조건을 국제행사 이외의 행사 지원조건에 적용하여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1-1] 축제·행사성 예산 관리지침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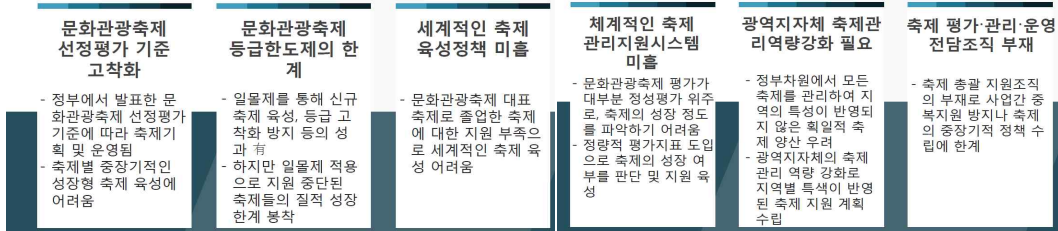
(2)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를 통해 문화관광축제의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며, 2018년 6월 8일(금)에 ‘2018 문화관광축제 정책 심포지엄’을 통하여 ①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 ② 글로벌 축제육성 방안, ③ 축제의 지역관광 대표 콘텐츠화 방안 등 축제의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바 있다.

특히,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2018, 유지윤)에서는 문화관광축제의 제도적 한계를 선정 평가하여 기준의 고착화, 등급한도제의 한계, 세계적인 축제 육성정책 미흡, 체계적인 축제관리

지원시스템 미흡, 광역지자체 축제관리역량 강화 필요, 축제 평가·관리·운영 전담조직 부재 등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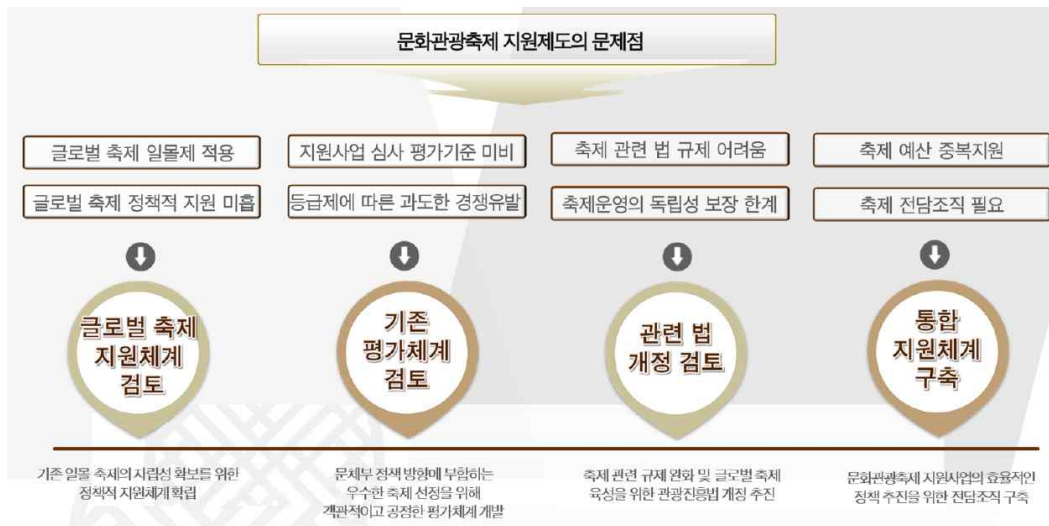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한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2018 문화관광축제 정책 심포지엄.

[그림 1-2]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한계

또한 기존의 문화관광축제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과제를 글로벌 축제 지원체계 토, 기존 평가체계 검토, 관련 법 개정 검토,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2018 문화관광축제 정책 심포지엄.

[그림 1-3]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의 문제점

(3) 1999년과 2010년 충남축제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충남 지역축제의 활성화, 평가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정책연구로는 충남발전연구원(1999)의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 방안과 충남발전연구원(2010)의 충남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등이 있다. 충청남도 향토문화축제 관광상품화 방안(1999)연구에서는 축제의 본질과 역할, 관광상품화, 축제의 지역발전과의 관계,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충남 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금산인산축제와 서천모시문화제, 백제문화제 등의 사례지역에 대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2010)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정책지원의 당위성과 지원체계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충남 지역축제의 현황과 지원실태를 평가체계와 기획 및 홍보, 예산, 조직, 제도 등을 부문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지역축제의 선진 지원사례 역시 부문별로 살펴보고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충남 지역축제의 개선방안을 지원체계와 기획 및 홍보 지원, 예산 확보와 자립화, 조직 지원제도의 마련, 축제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후 변화하는 관광트렌드 및 제도와 정책변화의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4) 2003년부터 시행된 충남의 도비지원 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 필요성 제기

충청남도는 2003년부터 전문가 평가를 근거로 시·군별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차별화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육성하고자 충청남도 지원축제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충남의 도지원 축제는 각 시·군을 대표하고, 중앙정부에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충남도 대표축제로 선정하는 평가를 매년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평가제도는 지역내외 축제전문가와 공무원, 시군 문화원 및 유관기관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현장평가와 방문객 설문조사, 관광객 유치실적 등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매년 연말에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제도를 15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면서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되어, 충남 축제의 경쟁력을 제

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8년도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지역향토문화축제별 도비지원액 심의와 컨설팅 지원대상축제, 현장평가 대상축제 등의 심의가 이루어 졌는데 이 과정에서 충남축제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15년간 충남도 지원축제의 평가 과정을 검토해보고,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향토문화축제의 평가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변화하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에 대응하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충남 향토문화축제의 평가방법과 도비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평가와 제도개선의 변화 동향과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충남 향토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둘째, 충남에서 도비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향토문화축제의 평가실태와 지원제도에 대하여 시군 및 축제평가 요인별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고,

셋째, 도출된 과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남 향토축제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도 도비지원축제 제도의 개선대책을 제안하여 충남도와 시·군의 축제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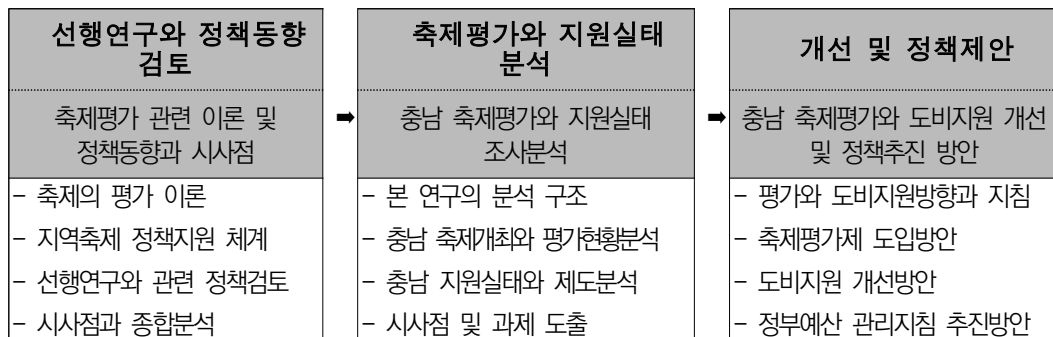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로는 2017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하고, 통계자료 분석은 지역축제의 평가와 관련된 최근 10여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대상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주체하여 개최되는 축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 의견조사를 충남축제육성위원회의 위원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지역축제의 관련 이론 및 제도변화에 대한 정책동향과 시사점,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 개선 및 정책추진방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역축제의 관련 이론 및 제도변화에 대한 정책동향과 시사점은 지역축제의 개념과 관련 연구의 검토, 지역축제의 평가동향, 소결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둘째,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 실태분석에 따른 과제도출은 충남 축제평가 분석의 구조, 중앙정부와 충남 축제평가 실태, 충남 지역축제 평가에 대한 의견조사, 시사점 및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 개선 및 정책추진방안은 평가와 도비지원 방향과 지침, 축제평가제 개선방안, 도비지원 개선방안, 정부 예산 관리지침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다.



(그림 1-4)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지역축제 관련 연구와 정책동향, ② 지역축제평가와 지원제도 실태분석, ③ 충남축제평가 지원제도 의견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지역축제 관련 연구와 정책동향

지역축제 관련 이론 고찰과 정책동향 및 시사점은 문헌조사로 지역축제평가 관련 논문 및 정책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 및 정책자료는 중앙 정부과 각 시도의 통계자료

및 지역축제평가 관련 정책보고서,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2) 지역축제평가와 지원제도 실태분석

충남 지역축제평가 정책과 추진사업 분석은 충청남도의 통계와 행정내부자료 등으로 충남의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충남 지역축제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의 지침이 충청남도에 접수된 이후에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충남축제평가 지원제도 의견조사

충남 지역축제평가제도와 개선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충남 축제육성위원회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개선과제 도출과 정책제안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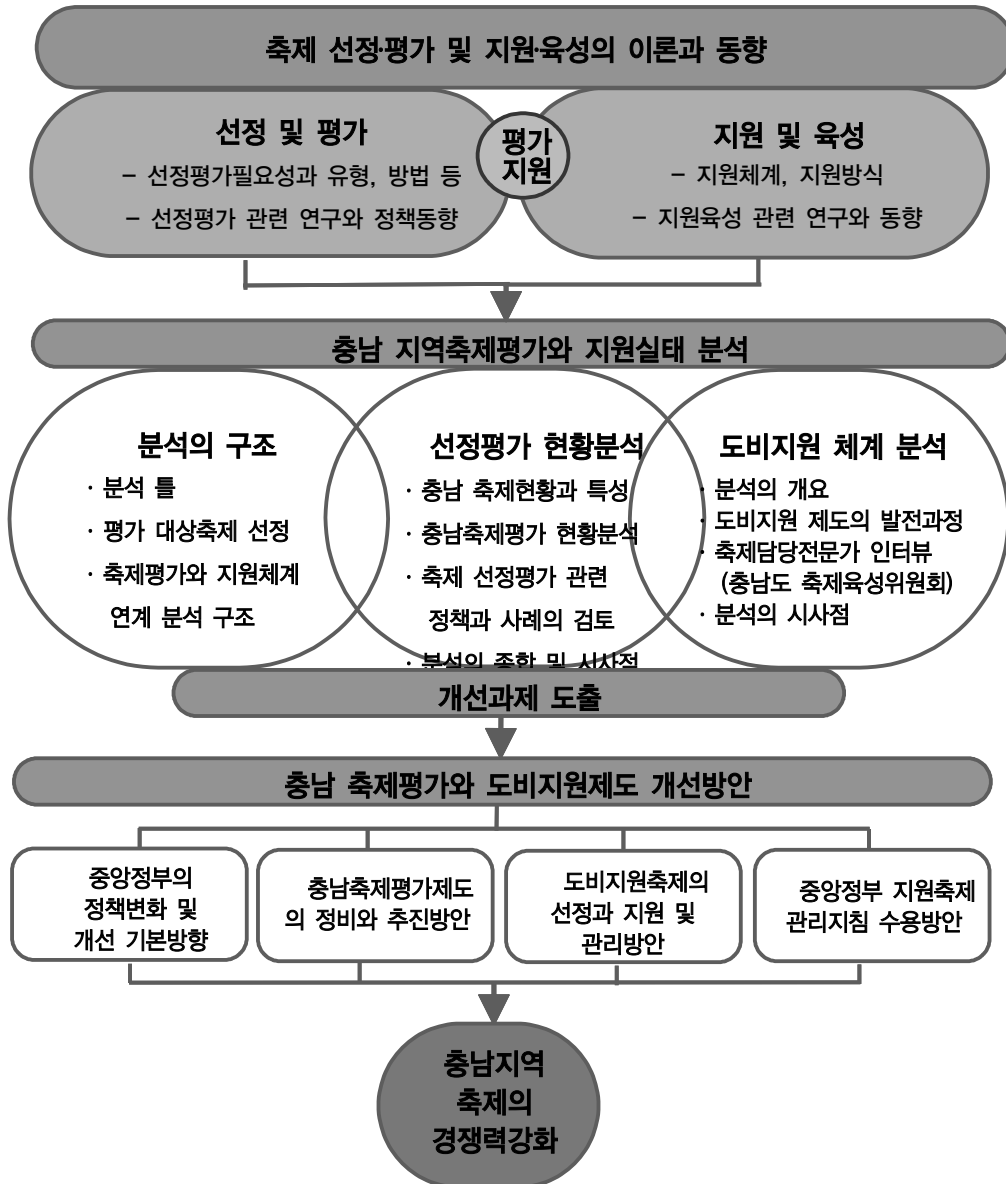
- 일 시 : 2019년 2월 8일(금) 오후 14:00~17:00
- 장 소 : 충남도청 3층 회의실
- 주 제 : 충남 지역축제평가 제도 개선방안
- 의견수렴 : 총 8인

연구내용	연구방법
지역축제 관련 연구와 정책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조사 - 통계자료, 조사연구보고서 등 정책자료 - 중앙정부 및 타 지역 정책보고서
충남 지역축제 평가와 지원제도 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와 사군 행정내부자료, 통계자료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축제육성위원회 의견조사 및 워크숍 -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전문가 의견조사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논문과 정책보고서 등 문헌연구 자료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및 연구진 워크숍 의견수렴 및 정책제언 도출

[그림 1-5]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3. 연구 접근개념과 연구 흐름도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접근개념과 연구흐름의 연구수행체계에 대한 개념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6] 연구의 흐름도

4. 선행연구와 차별성

축제평가·지원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 연구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술연구는 문화관광축제 평가요소와 평가체계 보다는 축제의 질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시스템과 메타평가 모형 등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와 통계 및 설문분석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축제평가지원 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계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과제 도출과 개선방향 및 시책추진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 차별성			
	과제명	연구 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학술 연구	다면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축제평가체계에 관한연구(2005년)	다면적인 측면의 평가체계의 필요성과 다면평가시스템 적용	문헌연구 전문가조사	축제평가이론 고찰과 다면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전문가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모형을 검증
	경상북도 지역축제의 평가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지표와 차별화된 메타평가기법을 활용한 지역축제평가 실시	문헌연구, 전문가 설문조사분석	지역축제 현황과 평가실태를 분석하고, 메타평가 평가모형에 의해 4가지 유형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
중앙 정부 연구	2007 지역축제 평가와 지원제도 연구(2007년)	국내 지역축제의 평가 및 지원체계 문제점 제시와 발전방안 제시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국내 축제의 전반적 개최현황과 평가체계 및 지표를 개발하고,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 연구(2011년)	1999년 이후 평가체계의 진단과 평가기준 개선방안	문헌연구, 현장실사, 전문가자문	문화관광축제 평가의 종합적 진단과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평가 기준 개선안 제시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연구(2014년)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지원 등 제도와 일몰제 개선	문헌연구, 방문설문조사, 전문가토론회	문화관광축제 성과와 변화, 일몰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축제 선정·평가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지자체 연구	인천광역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2008년)	축제지원체계 요소 선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	지역축제의 지원체계의 유형별로 지원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및 개선방안(2010년)	충남 축제지원체계 요소 선정과 실태분석,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실태조사	축제지원체계 유형별로 기존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
본 연구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 개선방안을 제시	문헌자료, 평가실태조사, 인터뷰분석	충남 관광수용태세 평가요소 선정, 수용태세실태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시책방안 제시

제2장 지역축제평가 지원제도 관련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1. 지역축제 평가·지원에 관한 연구와 정책동향¹⁾

1) 지역축제 평가와 지원체계

(1) 축제의 지역적 가치

축제는 유희와 제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중요한 축이 된다. 이 때 축제가 놀이로서의 특징만을 강조될 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소비적인 행위일 뿐이다. 반면에 제의로서의 특징까지 아우른 축제는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투자요, 삶의 풍요를 위한 문화적 기제가 된다.

그러나 축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현대의 축제, 특히 도시화한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명 고정적인 것임엔 틀림이 없다. 이 점에서 오늘날의 지역 축제가 재검토되어야 하고, 상품화된다는 부정적 지적 역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²⁾

지역 공동체와 축제의 현대적 의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질 높은 정신적 삶’에 대한 추구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질 높은 정신적 삶은 개인적으로는 행복감을 가져다주며, 나아가서는 사회 동질성을 확립시킨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사회 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감과 소속감

1) 김경태(201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에서 요약 정리.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장장식, “도시에서의 전통문화의 보존,” 도시 문제 1996년 2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다.

이러한 동질성은 구성원 각자의 정체성(identity)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는 사회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확립시켜 구성원 각자에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을 준다. 구성원의 자부심이 강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럴 때 사회 내지 국가라는 존재의 가치구현이 이루어진다.

축제는 관광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축제나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명관광지로 부상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국내외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축제는 지역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관광이미지 고양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것은 관광지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관광객의 관광지 방문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재방문의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축제는 지역의 각종 문화관광시설의 활성화를 가져다준다. 지방화시대에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을 지역축제와 연계시켜 지역의 특화산업이미지 강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상품 판매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축제는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관광효과가 크고 상호 관계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상품화방안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접근성 확보 및 기반시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문화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문화 관광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힘을 갖는다.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자부심을 높이고 유대감을 제고시켜 지역 이미지와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지역적 관광매력³⁾을 한층 더해준다. 셋째로 환경적측면의 효과가 있다. 이는 축제 상품화로 인한 환경과 주변지역 정비와 축제 계승에 의한 관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접효과나 간접효과로 인해⁴⁾ 축제를 통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공헌하는 바가 크다.⁵⁾

3) 한국관광학회(1995), 관광학연구 제18권 제2호, 일신사.

4) 김사현(1990),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원.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7), 한국의 축제, 문화예술총서.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데 잘못 변경하여 단지 판매하기 위한 포장용으로 문화변동을 야기 시킨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나아가 부의 분배를 점점 더 불평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⁶⁾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축제관광상품의 검증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한다.

(2) 축제평가와 지원체계

축제평가란 개별 축제 또는 소수의 축제들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이거나 또는 특정 개최목적 달성과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개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문화관광축제로의 전환이 양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축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향 및 지원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와 지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본적인 평가와 지원만 행해지고 있을 뿐 축제가 준비되는 전 과정에 대한 사전, 도중, 사후 평가라는 평가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축제의 목적 및 지향점이 축제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평가대상에 있어 지역주민,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축제담당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축제현장의 참여관찰 조사 등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향이 있는 평가 대상도 다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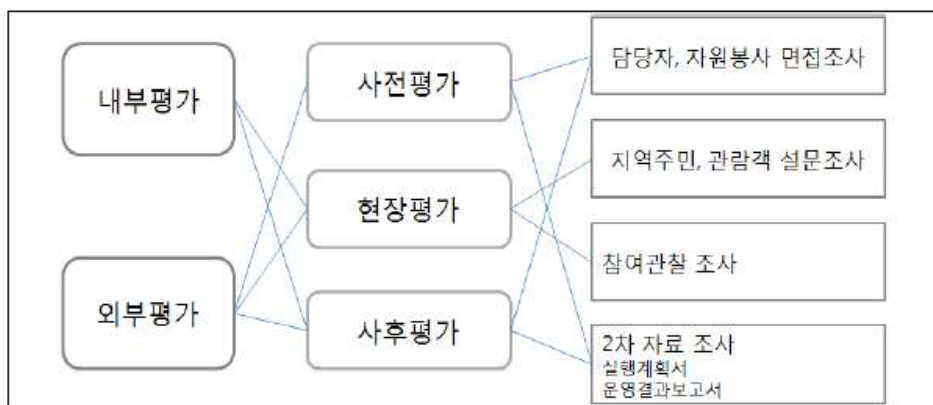
평가 시기 면에서는,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평가하는 사전평가, 축제 진행 중 일 때 평가하는 과정(현장) 평가, 축제가 끝난 후 평가하는 사후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평가체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축제 조직내에서 실시

6) 전경수 편역(1994), 관광과 문화, 일신사.

하는 내부평가를 통해 축제추진조직의 집행전략과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개최 중에 또는 사후에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사업관리 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또한 축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평가를 하는데 이는 축제 진행 중이거나 사후에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처럼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해서 합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축제 평가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과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은 축제 지원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김경태(201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그림 2-1] 지역축제 평가방법

지역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평가대상에 있어 지역주민,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축제담당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축제현장의 참여관찰 조사 등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향이 있는 평가 대상도 다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평가 시기 면에서는,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평가하는 사전평가, 축제 진행 중 일 때 평가하는 과정(현장) 평가, 축제가 끝난 후 평가하는 사후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평가체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축제평가는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축제 조직내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를 통해 축제추진조직의 집행전략과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을 확보하고 축제 개최 중에 또는 사후에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사업관리 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축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는 축제 진행 중이거나 사후에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축제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합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축제 평가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과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은 축제 지원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무용(2005)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축제마다 축제 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기준 또한 객관적이지 않아 축제 예산 집행과 지원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호도에 따른 지원, 객관적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특정 축제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등이 지역축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축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적 부문의 지원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각의 지역축제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축제 본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축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주관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적 재정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간접적인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부분을 추가로 증대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특별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될 있을 것이다. 축제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축제가 가져오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축제를 관광상품으로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류정아, 2006)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일괄적인 운 및 축제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 안에서 지역차원의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축제평가·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1) 축제평가와 지원에 관한 연구

축제평가란 개별 축제 또는 소수의 축제들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이거나 또는 특정 개최목적 달성을 달성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개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문화관광축제로의 전환이 양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축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향 및 지원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축제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훈(2002)은 지역축제 평가에 있어 삼각측량방식을 강조하는데, 참여관찰, 방문객 설문조사, 운자와 봉사자의 면접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함을 제안한바 있다. 배만규(2002)는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축제 수용태세가 상이한 축제개최 지역 및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배점을 달리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화연대(2004)의 연구에서는 참관평가, 설문조사, 준비평가, 시행평가, 사후영향평가 등 축제 조직 및 기획, 준비과정, 현장내용, 재정규모, 행사장 및 프로그램, 문화 및 경제 효과 등을 평가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동일(2005)은 제주형 축제평가 모델 연구에서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이 타 지역과 상이하여 문화관광부 축제 평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제주형 우수 선정 및 평가기준을 축제 전 평가(20%), 축제 중 평가(60%), 축제 후 평가(20%)로 단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 고 우수 축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무용(2005)은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하는데, 서울형 축제를 서울다움과 축제다움이 겸비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축제로 규정하여 축제의 본질적 구조 및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전제한 평가의 필요성을 제언한바 있다.

백선휘(2006)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문화축제 평가체계는 축제 개최방식의 효율성과 방문객 만족도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축제의 목표달성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부재성과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축제정책에서 관광적 특성이 미미한 축

제들의 평가와 지원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류정아(2007)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지원정책을 구분하여 지역의 수준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축제의 고유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육성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적 효과를 차후에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2) 중앙정부 축제 지원체계 관련 연구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김규원(2001)은 축제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문화관광부만의 지원이 아닌 축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행자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침 및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서의 지원 확대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무용(2005)은 정부의 문화정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축제 지원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정책은 지방자치정부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정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훈(2006)은 문화관광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국적 수준에서 축제의 방향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전문 인력과 축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비롯해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류정아(2007)는 지역축제 평가를 내부적 프로세스 관점 측면에서 축제기획, 축제예산, 축제조직, 축제홍보 측면에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축제기획부문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주체에 관한 부문으로 전문가 활용, 축제 준비성, 의사결정의 원활성을 강조하였다. 축제예산부문은 재정자립도와 예산항목 구성비로 구분하여 자체 재원 구성비율의 적합성과 예산배분 적합성 및 자율성, 효율성, 축제조직은 민관협력 정도, 유관기관의 협조, 축제홍보는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부분으로 홍보 매체의 다양성 및 활용도, 차별적 전략 및 사후홍보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축제의 내부적 평가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축제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단순히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제의 정책목표와 지향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이나 제도적 규정은 축제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축제 지원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규정, 혹은 법률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방향이나 지원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지방정부 축제 지원체계 관련 연구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정책은 지역의 특정 축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다.

채원호 외(2003)는 지역축제는 축제 지식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개입되어야 하고, 총체적, 포괄적, 능동적 의미의 문화를 비롯해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정서인 지역문화를 다루는 지역문화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현식(2004)은 지방정부 축제 지원정책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축제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와 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며, 독자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무용(2005)은 축제홍보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요 및 욕구조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축제홍보 및 축제 캐릭터 및 브랜드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제예산과 관련해서는 안정된 입장료 수익, 스폰서 활용의 용이함 및 축제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조직 측면에서 민간화를 통한 축제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축제발전을 위한 평가 측면에서는 축제 관련 조례를 통하여 평가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 평가의 안정화를 제안하였다.

류정아(2006)는 중앙정부에서 육성하는 국가대표축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지역축제의 발전전략이 서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주체와 실행 주체의 불일치성

으로 인해 전체 지역축제의 발전전략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훈(2006)은 지역축제의 지원정책은 지역 역사와 문화 및 여가의 관점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축제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차원에서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축제의 상상력과 지속력을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교육 등 사람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오훈성(2015)은 평가 중심의 정책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지역축제 지원 정책의 당위성 확보 및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형태와 창조적 콘텐츠가 도입되기 위한 경쟁력 있는 강소축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7년의 연구를 통해 평가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홍보마케팅 강화와 더불어 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지역축제 평가·지원에 관한 정책동향

(1) 중앙정부 정책동향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소관으로 1998년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다양한 지역 축제들 중에서 시도별 시·도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 선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는 2000년부터 등급제를 도입하고 현재 4개 등급(6)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이 동반되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은 지역축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 대표축제

지정과 지정축제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거리축제, 생태자원축제 등 유형별 특성화 강화, 민간주도 및 자생적 축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주도형 축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전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축제조직위’를 운영하고 자 한다. 또한 각 시도/시·군·구별하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 평가,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대표축제 선정기준, 예산지원 기준 등에 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며, 시도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계획과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통폐합 축제는 익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도에 일 정부문 관광기금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축제 개선관련 법적 근거 마련 계획으로 지역축제 실태조사, 평가 및 구조조정 권고 조항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 한다. 또한 지역축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평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축제 운영매뉴얼, 지역축제 구조조종 시범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2)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정책동향

지역축제에 대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정부와는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중앙정부는 특정축제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전체 축제의 발전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축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 내의 우수한 특정축제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축제도 중앙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예산 단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김선기 외, 2014)

문화연대(2004)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축제 771개를 조사한 결과 개최하는 주체가 관주도인 경우가 5.3%, 민간주도인 경우 41.3%, 민·관 공동주도인 경우 52.9%, 기타 0.5%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축제가 수치상으로는 민간 주도형 축제가 압도적인 편이나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다수 축제가 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상정한다면 실질적인 관주도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상당수의 축제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관의 행정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점이다. 담당 부서가 예산내역을 관리하면서 가능한 선에서 축제행사

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권오성, 2006)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작적 정의와 지원내용들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와 같다.⁷⁾

[표 2-1] 지역축제 지원체계 내용종합

지원체계	조작적정의	지원관련 내용
기획 및 홍보	축제준비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의 장기적인 플랜과 처음 개최되는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성숙단계의 축제기획 및 홍보 지원 방안	홍보매체의 다양성 및 집중성 온라인매체 활용도와 매체의 안정성 홍보 및 마케팅 방법 기업 스폰서십, 기자간담회, 축제설명회
조직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조직 지원 방안	축제사무국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축제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축제조직위원회의 민간간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정도 축제기획 및 실행평가 등에 민간개입 정도 관민, 지역사회, 문화학술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제도	축제의 일괄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적 지원 방안	축제 관련 법령, 조례
예산	행정법령상 재정 및 예산 회계법상의 예산지원방안	재원구성 비율(국비, 시비 구성 비율) 예산구성의 자립도 축제의 비중과 비교한 예산 규모 축제예산 사용의 사후평가 축제예산 사용을 위한 축제 담당 기구
평가	축제의 준비단계부터 사후 단계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평가를 위한 지원 방안	내부 및 외부평가 시스템의 존재 여부 축제관련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활용여부 평가분석 자료의 사후공유정보 평가분석 자료의 적정성 평가자료의 활용정도

자료 : 조혜정 외 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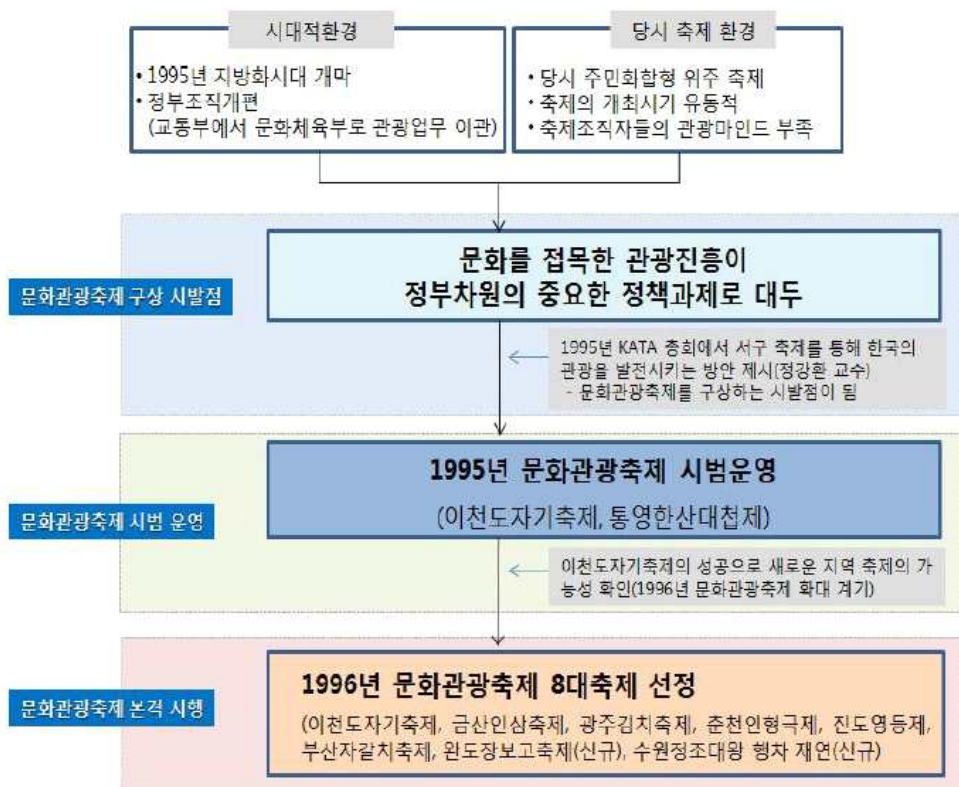
7) 김경태(201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2.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동향

1) 문화관광축제 육성제도의 변화과정⁸⁾

(1) 문화관광축제의 시작

1995년을 기점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도시의 특성이나 문화를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거나 축제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그림 2-2] 문화관광축제의 출발과 시행과정

8)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요약정리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한 해 350여개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주민화합형으로 지역특성을 차별화하지 못한 종합문화행사 수준이라는 문제점도 갖고 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문화와 소프트웨어의 접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던 가운데 1995년 KATA(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총회를 계기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는 문화현상을 소프트웨어로 활용하여 관광진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축제를 관광에 접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문화관광축제가 태동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문화관광축제사업을 전개하면서 앞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이천도자기축제와 통영 한산대첩축제를 1995년 시범축제로 지정하고 축제의 개최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문화관광축제로 개최된 이천도자기축제는 당시 2만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약 12억 원의 도자기를 판매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으로 문화체육부는 1996년부터 문화관광축제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문화관광축제 육성방법의 변화

문화관광축제의 육성방법은 거점 육성방식, 관광객 중심의 기획, 국내외 홍보지원, 마케팅 기법도입, 축제에 대한 재정지원, 수요자 지향형 조사평가, 등급제에 의한 경쟁유발,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선정 육성 등을 도입하면서 변화하였다. 이러한 육성방법 중 수요자 지향형 조사평가와 등급제 및 대한민국 대표축제 육성 지원 사업 등은 평가를 통한 선정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수요자 지향형 조사평가는 1995년도 시범 문화관광축제로 치러진 이천도자기축제에서 처음으로 축제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행사의 짜임새, 편의시설, 이용편리성, 볼거리 다양성, 주차의 편리성, 음식의 가격 등 5개 항목에 걸쳐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문화관광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6년에는 금산인삼축제, 진도영등제 등으로 축제방문객 설문평가 조사가 확대 실시되었다. 이렇게 문화관광축제의 축제방문객 설문평가는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공급자 중심형에서 수요자 중심형으로 바뀌었다. 나아가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해당 축제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3] 문화관광축제 평가시스템

(3) 문화관광축제 평가·지원의 효과 : 지역축제의 비효율 개선

문화관광축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지역축제는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반면 문화관광축제는 외지인을 유치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둔 까닭에 제의적, 의전적 요소 등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예전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관변단체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지원, 매년 똑같은 노래자랑, 아가씨 선발대회로 대표되는 축제프로그램, 형식적인 개막식과 지루한 축사, 치사 등이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또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초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프로그램이나 무료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지만, 시간이 갈수록 유료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축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예산낭비가 사라지고 축제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부적으로 고찰해보면, 표적시장의 경우 기존축제들이 지역주민을 겨냥한 축제를 마련했다면, 문화관광축제는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하였다.

문화관광축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봄철과 가을철에 지역축제가 집중 개최되고 있었으나, 문화관광축제 등장 이후 관광비수기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축제를 활용하면서 축제의 개최시기가 4계절로 분산되었다.

또한 축사와 치사로 시간을 소모하는 의전 중심의 개막식이 문화관광축제 등장 이후 급속하게 사라졌다. 허례허식과 의전 중심의 개막식이 문화관광축제의 선정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일반 지역축제들도 간결하고 재미있게 개막식을 치르는 방향으로 변화였다.

[표 2-2] 문화관광축제 이후 변화 요소

구분	문화관광축제 이전	문화관광축제 이후
표적시장	지역주민 중심	관광객 중심
개최시기	5월, 9-10월 개최시기 집중	비수기 극복을 위한 축제개최로 4계절형 축제로 분산
개막식	의례행사 중심의 개막식(축사, 치사위주)	의전행사 축소, 주제반영형 개막식
축제프로그램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 등의 예산소모성 프로그램	주제반영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유료형 프로그램
축제예산	축제예산 1/n로 나누기, 소형예산	중형예산 투입 중장기적인 예산 투입
축제조직	관조직, 민간조직(비전문가)	민관공동운영 조직 축제전문가 참여 축제사무국, 축제재단 운영
개최장소	운동장, 하천변 등 운영편의성 중심	공원(주제반영 장소) 일부 다목적 공간
축제홍보	지역중심 홍보	광역적 홍보, 해외 홍보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최근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정책동향9)

(1) 제도개선의 배경과 한계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문화관광축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의 부재와 축제문화의 서열화 및 획일화에 대한 우려, 정부와 지자체간 축제발전 정책 연계 부족 등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의 배경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축제를 선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전통문화창달에 기여하는 국제적 축제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1996년부터 최초 시행된 문화관광축제는 그 동안 7회에 걸친 등급제도 개선과 3회의 지원제도 변경 등을 거쳐 2018년까지 총 894개 축제에 약 9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등급한도제(일몰제) 정의

-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존속기간 부여(지원중단)

일몰제 적용 범위

- 2010년: 대표축제 3회, 동일 등급내 연속 3회(유망축제 4회)
또는 동급 무관 누적 총 7회까지만 지원
- 2015년: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는 총 10년까지 / 동일등급은 5년까지만 (유망축제는 폐지)
- 2017년: 대표축제 5회, 최우수 축제 이하 10년의 경우만 일몰 적용

일몰제 현황

- (2011년) 대표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 (2013년) 최우수축제: 금산인삼축제, 함평나비대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우수축제: 남원춘향제, 영동난계국악축제
- (2014년) 대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최우수축제: 천안흥타령축제, 양양송이축제
우수축제: 풍기인삼축제
- (2018년) 대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자료 : 유지윤(2018. 6. 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문화관광축제 정책심포지엄.

[그림 2-4] 문화관광축제 등급한도제(일몰제) 실시 현황

9) 유지윤(2018. 6. 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문화관광축제 정책심포지엄 자료에서 요약.

2010년부터 시행된 문화관광축제 등급한도제(일몰제)은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존속 기간을 부여하고,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제한된 축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표 축제로 5회가 선정된 축제는 명예대표축제로 지정하여 간접적 지원을 하면서 2015년에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2018, 유지윤)에서는 그 동안에 추진해 온 문화관광축제의 제도적 한계를 선정평가 기준의 고착화, 등급한도제의 한계, 세계적인 축제 육성정책 미흡, 체계적인 축제관리지원시스템 미흡, 광역지자체 축제관리역량 강화 필요, 축제 평가·관리·운영 전담조직 부재 등으로 지적하였다. 문화관광축제 선정평가 기준의 고착화의 문제는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관광축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축제가 기획 및 운영됨에 따라 축제별 중장기적인 성장형 축제 육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축제 등급한도제의 한계는 일몰제를 통해 신규 축제를 육성하고 등급 고착화를 방지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이 중단된 축제들의 질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축제 육성정책의 미흡으로는 문화관광축제 대표 축제로 졸업한 축제에 대한 지원부족으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축제 관리지원 시스템 미흡은 문화관광축제 평가가 대부분 정성평가 위주로 축제의 성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 지표의 도입으로 축제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 축제관리 역량강화의 필요로, 정부차원에서 모든 축제를 관리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축제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역지자체의 축제 관리 역량강화로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축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축제 평가·관리·운영 전담조직 부재로는 축제 총괄 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간 중복 지원 방지나 축제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 제도개선 과제의 도출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시된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축제 일몰제 적용에 따라 글로벌 축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글로벌 축제지원체계를 검토하여 기존 일몰 축제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원사업 심사 평가기준의 미비로 등급제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우수한 축제 선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셋째, 축제 관련법 규제 어려움으로 축제운영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축제 관련 규제 완화 및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축제예산의 중복지원으로 축제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자료 : 유지윤(2018. 6. 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문화관광축제 정책심포지엄.

[그림 2-5]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의 문제점

(3) 기본방향과 제도개선(안)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의 기본방침은 ① 자치분권 원리에 따른 자치단체 역량제고, ②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③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등지원제도의 재검토 등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 세계적인 축제 도약 및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을 위해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적, 축제 콘텐츠, 운영주체 등의 측면에서 축제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단계별 성과 관리 체계화이다. 중앙정부는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축제의 질적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줄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성장형 평가이다. 문화관광축제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축제의 중간평가, 개선 및 성장 유도를 위한 진단형 평가, 연차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평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①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제도 실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방향과 선정절차, 평가개요, 평가지표 배점, 평가주체의 다각화, 단계별 평가과정 등은 다음과 제도의 개요는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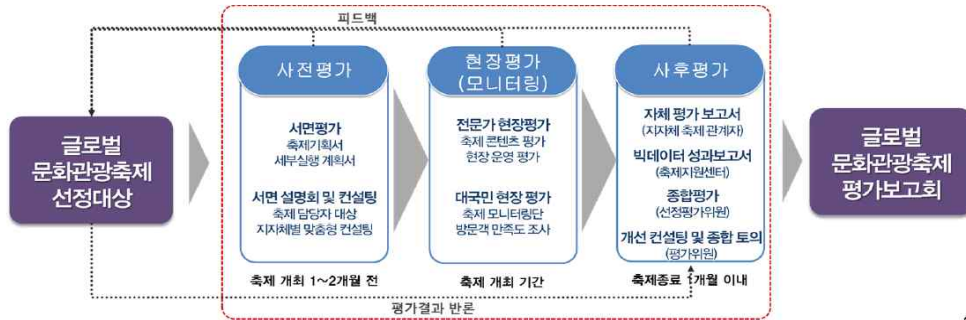
▶ 지원제도의 정책 방향

구 분	주요내용
정책목표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육성주체	문화체육관광부 / 해당 광역시·도 / 해당 지자체
지원사업명	(시범)2019년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 *명칭 1안) 글로벌 문화관광축제(Global Culture & Tourism Festival) 2안) 한국문화관광축제(Korea Culture & Tourism Festival)
선정대상	- 문화관광축제 명예 졸업한 대표 축제 *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 축제 - 2018년 문화관광축제 명예 졸업 예정인 대표 축제 * 화천산천어축제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선정규모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1개 선정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실시 이후 확대실시(3~5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육성 목표)
예산지원	최대 15년 지원 *단계적 성장 지원(5년 마다 중간평가 실시 및 피드백)
관련 법 개정	지역축제 실태조사 결과 공표, 축제지원센터 설립,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지정,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평가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도입
지원내용	축제지원센터 지원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관계자 교육·워크숍, 사전 컨설팅, 빅데이터 정보 제공, 홍보마케팅, 기업 스폰서 유치 등

[그림 2-6]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와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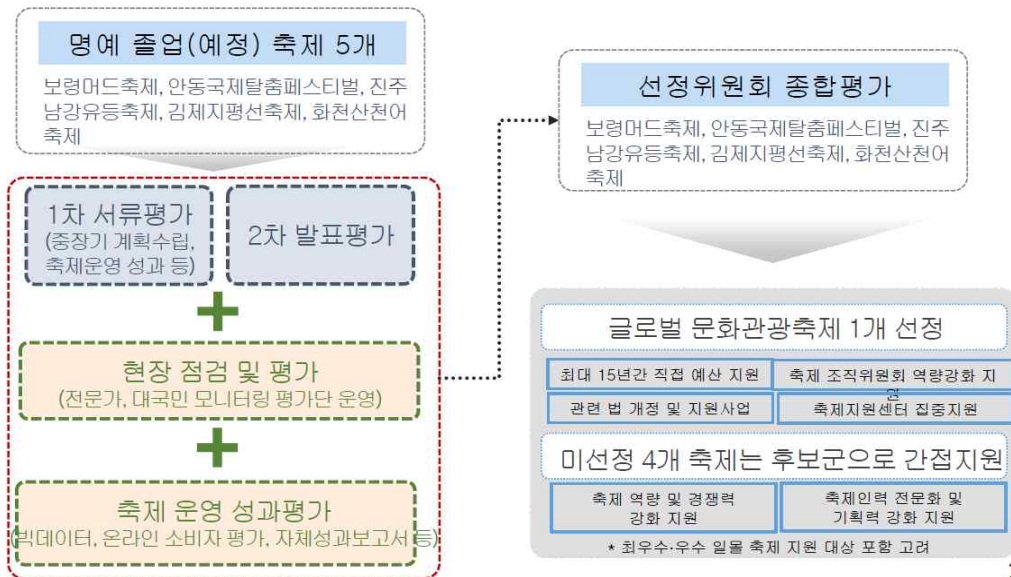
평가개요

구 분	주요내용
평가기간	2019년 1월 ~ 12월
평가대상	문화관광축제(예정) 5개 대표 축제
평가체계	사전평가(30%), 과정평가(30%), 사후평가(40%) *정성지표 70%, 정량지표 30%
평가내용	(사전)계획서 평가, (과정)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대국민 모니터링 평가단, (사후) 결과평가 * 카드사·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온라인 평가, 지자체 자체 성과 평가 등 평가자료 활용
평가기관	문화체육관광부(향후 축제지원센터로 이관)



[그림 2-7] 문화관광축제 평가개요

선정 절차



자료 : 유지운(2018. 6. 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문화관광축제 정책심포지엄.

[그림 2-8] 문화관광축제 선정절차

▶ 평가지표 배점

- 그간 현장평가 중심에서 환류형 평가체계 도입
-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함(사전컨설팅 지원)
- 문화관광축제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
- 빅데이터 및 자체성과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지표 추가



▶ 평가주체의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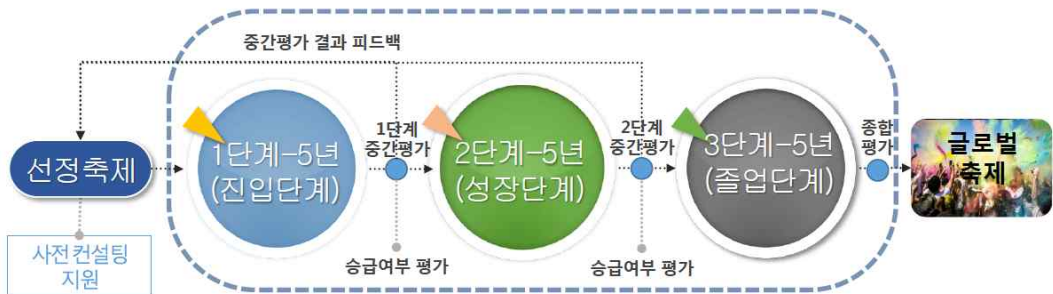
-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위해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주체의 다각화



[그림 2-9]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와 주체

▶ 단계별 평가과정

- 5년 단위 종합평가 실시(승급 및 퇴출 평가) * 2년, 3년차 평가결과 피드백



▶ 주요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축제지원센터(매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결과 제공, 축제 관계자 워크숍 및 네트워크 등

[그림 2-10] 문화관광축제 단계별 평가과정

② 기존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

기존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 시행목적, 인증절차, 평가개요, 1차 서류평가의 인증기준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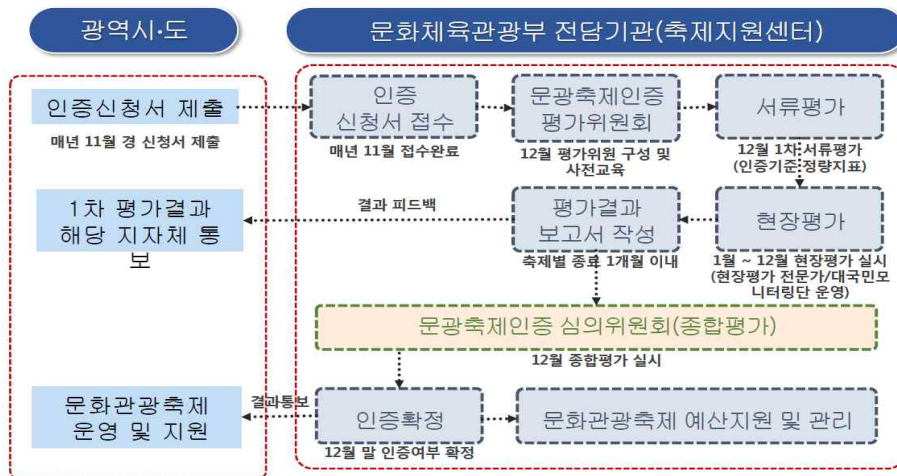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정책목표	축제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한 성장 유도형 문화관광축제 육성
인증기간	2년 - 3년 - 5년
인증대상	전국의 지역축제 중 광역시도에서 추천한 축제(자체평가결과서 포함)
인증규모	문화관광축제 40개 내외 / 후보군 40개 내외
인증기준	독립된 운영조직 보유 / 개최기간 3일 이상 / 방문객 10만명 이상 등(세부 인증기준 참고)
예산지원	최대 10년 지원
제도화방안	2019년 시행초기에는 2018년 문화관광축제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축제 등급에 따라 인증유예기간을 설정 * 대표·최우수 축제 5년, 우수·유망축제 3년 인증 유예

▶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도 시행목적



[그림 2-11]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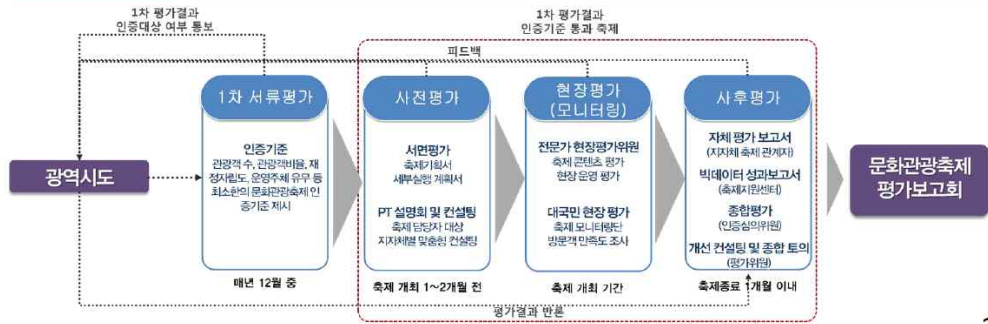
▶ 인증 절차



[그림 2-12] 문화관광축제 인증절차

▶ 평가개요

구 분	주요내용
심사기간	2019년 1월 ~ 12월
인증대상	광역시도 인증 신청서 제출 축제에 한함(자체평가결과서 포함) * 단, 2019년 시행 초기에는 2018년 평가 결과 인증유예기간 설정
평가체계	사전평가(30%), 과정평가(30%), 사후평가(40%) *정성지표 70%, 정량지표 30%
평가내용	(사전)계획서 평가, (과정) 전문가 현장 모니터링, 대국민 모니터링 평가단, (사후) 결과평가 * 카드사·통신사 빅데이터 분석, 소비자 온라인 평가, 지자체 자체 성과 평가 등 평가자료 활용
평가기관	문화체육관광부(향후 축제지원센터로 이관)



[그림 2-13] 문화관광축제 평가개요

▶ 1차 서류평가(인증기준 안)

- 문화관광축제 인증제도에 있어서 축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마련한 **최소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함**
- 따라서 아래 제시한 아래 제시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축제 소재 평가를 통과한 축제에 한해 인증절차가 시행됨

선정 기준	기초자료	예	아니오
① 독립된 운영주체(조직)이 있다.	신청서(자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축제 개최 기간은 3일 이상이다.	신청서(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최근 3개년방 방문객 수는 10만 명 이상이다.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외래 방문객 비중이 1% 이상이다.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축제예산 대비 재정자립도 10% 이상이다.	빅데이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축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청서(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관광객 비율이 30% 이상이다.	신청서(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2018년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선정기준 마련
※ 1차 서류평가시 탈락 축제 40여개는 후보군으로 간접지원

[그림 2-14] 문화관광축제 1차 서류평가(인증기준 안)

③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의 개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도입, 축제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이 있다.

▶ 관련법 개정 필요성

- ☑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에 있어서 축제 운영의 법적 규제, 축제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통합 지원체계, 글로벌 축제에 관하여 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

지역축제 실태조사 결과 공표	축제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함 지자체 간 지역축제 실태조사 결과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한 평가, 컨설팅, 홍보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축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축제의 체계적 지원업무를 수행 축제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재원, 업무범위, 권한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지정	글로벌 축제 조직위원회에 설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관광 매력도가 높은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정기준 등을 정함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Korea Culture & Tourism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를 신청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하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위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그림 2-15] 문화관광축제 관련법 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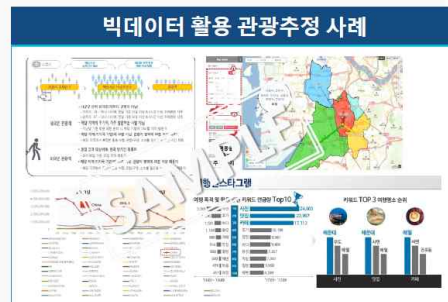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도입 필요성

- ☑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빅데이터(카드사, 통신사, SNS)를 활용하여 정량지표를 평가에 반영
- ☑ 특히, 문화관광축제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출 데이터



※ 빅데이터는 축제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며, 필요한 정보는 해당 광역시도 및 지자체에 제공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함



[그림 2-16]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도입 필요성

▶ 축제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 ☑ 문화체육관광부 내 축제·행사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없어, 사업간 중복지원 방지나 종합적 정책 수립을 하는데 한계점이 대두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축제·행사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축제지원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

구 분	주요내용
실태조사	문화관광축제·지역축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축제 시기 및 콘텐츠의 중복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축제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심사 및 컨설팅	축제 선정·평가자료 개발 및 시행 / 메타평가 시행 / 축제 컨설팅 위원회 운영 문화관광축제 모니터링
관리·지원	축제별 가용한 Big Data 구축 및 지원(축제 방문객수 집계 및 축제 자출액 파악 지원) 광역시·도 문화관광축제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축제별 조직위원회 지원
글로벌화 전략	축제 산업 발굴 / 축제별 기업 스폰서 유치 지원 축제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문화관광축제 웹진 제작 발행 해외 축제 및 국내 축제 간 상호협력 사업 발굴 제안 등
전문인력 양성	축제 기획자 및 담당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마련(교육/워크숍/해외연수 등)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관리·운영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및 운영 축제 전문인력 풀 구성 및 축제 인력 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체계

(인원/조직)15명 내외/1센터장5개팀



[그림 2-17] 문화관광축제 축제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3) 소결 및 시사점

(1) 중앙정부 축제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이 필요

문화와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위하여 도입된 축제는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문화관광축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의 부재와 축제문화의 서열화 및 획일화에 대한 우려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축제발전 정책 연계 부족 등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축제제도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기존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의 요구 시기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주도형의 축제의 경우 축제평가 제도를 통하여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한 이러한 기존의 축제평가제도는 예산 중심의 지원에 따라, 축제의 평가가 개선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한 평가로 지속되고 있어 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3) 축제평가 방식·방법의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기존의 축제평가의 방식·방법은 대부분 평가위원들의 현장방문에 의한 평가표에 의한 계량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일부는 행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 등의 단계적인 평가방식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일부의 축제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축제의 평가방식과 방법 등을 정량적방법과 정성적평가 방식을 병행하면서, 축제 전, 축제기간, 축제 후 등 단계별로 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 행사 후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의 적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축제평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지원인센티브 제공의 다양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의 평가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서 축제에 필요한 지원금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예산을 제공하였다. 축제평가 후 이러한 예산중심의 인센티브의 제공은 실질적인 축제의 발전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축제평가는 예산의 지원이나 확보의 수단이 아닌 축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 인센티브의 제공을 다양화 해야 할 것이다.

(5) 축제주관자의 자체적인 축제의 평가 또는 모니터링 필요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축제평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축제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규모와 추진주체,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축제의 성격과 공공 및 민간의 참여 등에 따라서 축제평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 주관자의 자체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축제평가와 개선을 위한 제도화 추진

지방정부에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축제평가 후 지원예산과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축제평가와 개선을 위한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와 지원제도

1) 문화관광축제 육성제도의 변화과정과 특성¹⁰⁾

(1) 문화관광축제의 배경

① 정치 경제적 배경(외국인의 관광입국을 촉진하는 관광정책 개발)

1995년을 분기점으로 내국인 출국자수가 외국인 입국자수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수지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억제보다는 외국인의 관광입국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문화관광축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의 영향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1990년 중반 약 350개 축제가 개최되는 등 축제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개최되고 질적 하락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축제를 선별하여 차별화된 축제의 육성 필요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② 사회문화적 배경(한국 고유문화를 상징화한 관광축제의 필요성 대두)

1994년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기존 교통부에서 맡아 온 관광 업무를 문화체육부로 이관하였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을 접근한 것과 달리 소프트웨어인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며, 당시 시의적절한 소프트웨어 관광 상품으로 부각되었다. 문화체육부는 지역축제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외국관광객의 성향을 고려하여 한국 고유문화를 상징화한 관광축제를 개발하게끔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였다(문화관광부, 2007).

10)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요약정리

(2) 문화관광축제의 사업 목적

① 세계적인 축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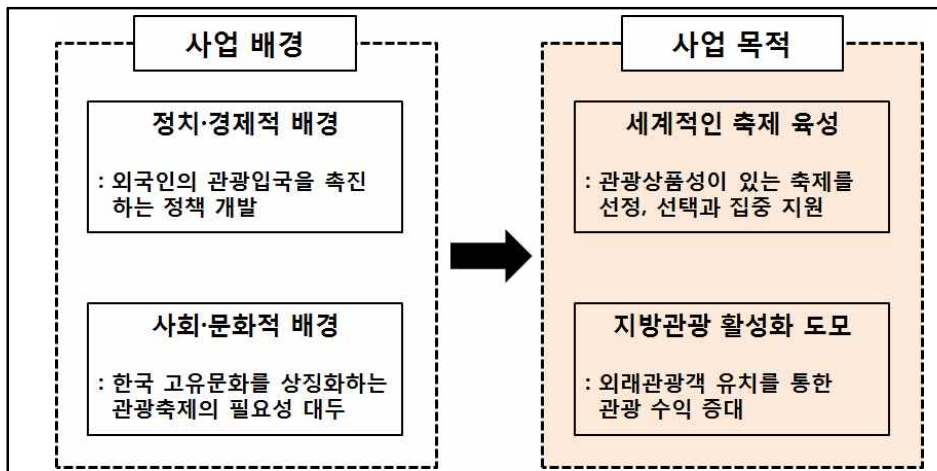
1전국의 주요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병국, 2010).

문화체육부의 축제 지원 초기의 정책 목표는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브라질의 ‘리우카니발’,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이를 위해 콘텐츠, 해외축제와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관광축제 육성시책을 펼쳐게 되는데 주요방향으로 전국의 지역문화축제를 엄선하여 우선적으로 국제규모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거점전략’이다. 문화관광부(2007)

② 지방관광활성화 도모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는 목적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특산물 판매,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관광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이병국, 2010)



[그림 2-18] 문화관광축제 사업 배경 및 목적

(3) 문화관광축제의 사업내용

① 사업 기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본격적인 문화관광육성시책을 추진하여 단 년도 계속 사업으로 매년 지원해주고 있다.

② 지원 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 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7(문화관광축제의 지정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축제의 개최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사업 규모

문화관광축제는 40개 내외 선정하여 지원해주고 있다.

④ 지원 조건

문화관광축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직접지원 방식이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며, 지자체와 50% 정률 지원하고 있다.

⑤ 사업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된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해주고 있고, 각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예산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3] 문화관광축제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사업기간	'96~단 년도 계속사업
지원근거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사업규모	문화관광축제 40개 내외 선정 및 지원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 보조(정률지원, 50%)
사업시행주체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각 시·도)

⑤ 사업 추진절차

㉓ 문화관광축제 지원신청(지자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문화관광축제 평가 계획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방법에 대한 전반적 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지자체 축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진다. 한편, 문화관광축제에 신규 진입(유망축제 희망)을 원하는 축제에 대해 광역시와 도에서 추천한다.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2개 이내, 광역도 3개 이내, 특별자치시 1개 이내, 특별자치도 2개 이내 축제에서 추천할 수 있다.

㉔ 문화관광축제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현장평가, 소비자 평가, 선정평가 등을 바탕으로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현장평가는 40%, 소비자 모니터링은 10%, 선정평가는 50% 반영한다. 선정평가 항목은 축제 특성과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 발전성, 축제의 성과로 구성한다.

㉕ 선정결과 통보(문화체육관광부)

기존 지원 축제의 경우 현장평가, 소비자평가, 선정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 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축제는 유망축제의 30%내로 선발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등급별(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교부한다.

㉖ 국고보조금 교부요청서 제출(지자체), 교부결정 및 통지(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는 선정결과에 따라 교부요청서를 제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부요청서를 검토 후 등급별(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보조금을 차등화 하여 교부하고 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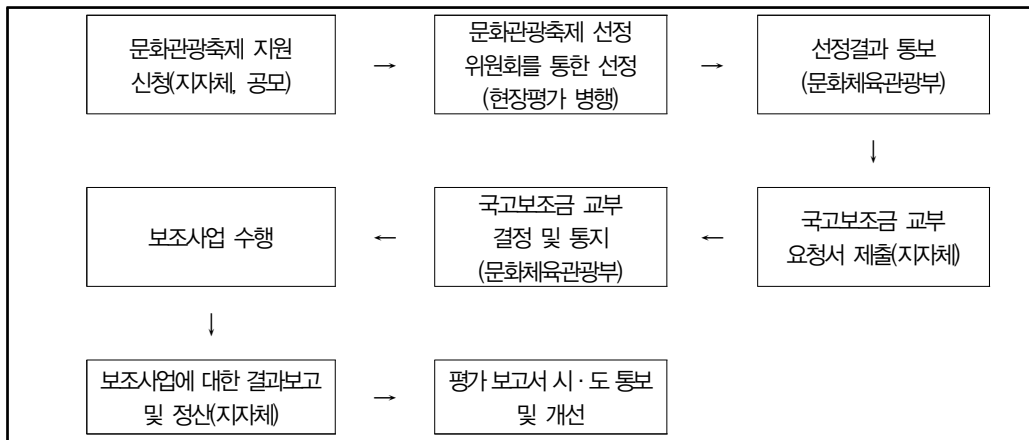
㉗ 보조사업 수행

지자체는 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관광축제 평가 지표(콘텐츠, 운영 등)를 반영한다. 또한, 축제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의뢰하여 방문객 만족도/소비 지출 조사 및 축제 운영 관련 자체평가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제 기간 중 현장심사단인 민간 전문가 3인과 문화체육관광부 1인의 평가를 진행하고 소비자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㉘ 평가 보고서 시·도 통보 및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현장평가단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해당 년도에 조사된 만족도와 이전 문화관광축제 만족도와 비교 분석하여 문화관광축제 운영 및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한다. 이렇게 정리된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를 시·도에 통보하고 축제 운영에 있어 개선을 유도하고 축제 성과 및 환류를 모색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림 2-25]와 같다.



[그림 2-19]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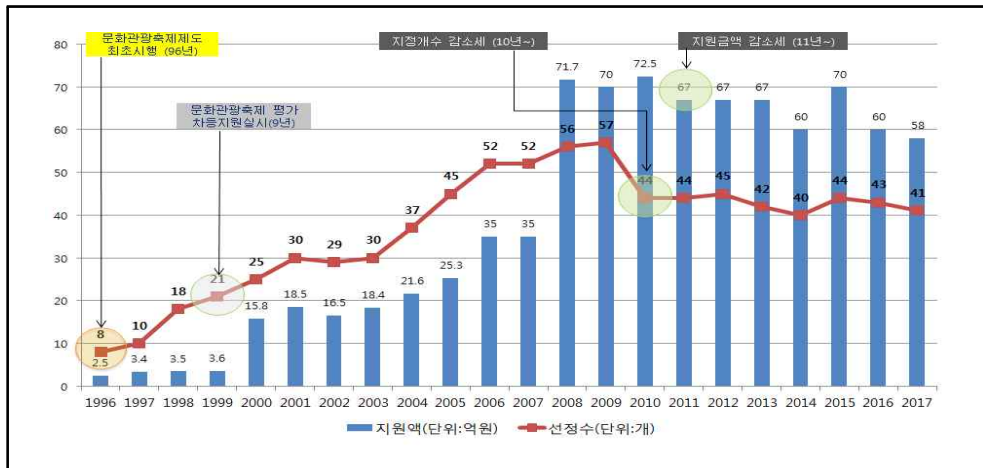
(4) 문화관광축제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지방 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통문화와 독특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다. 축제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는 대표적 관광콘텐츠이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복합산업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을 위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 2013년~2015년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표 2-4]와 같이 40여개의 축제에 60억원의 예산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문화관광축제 관광객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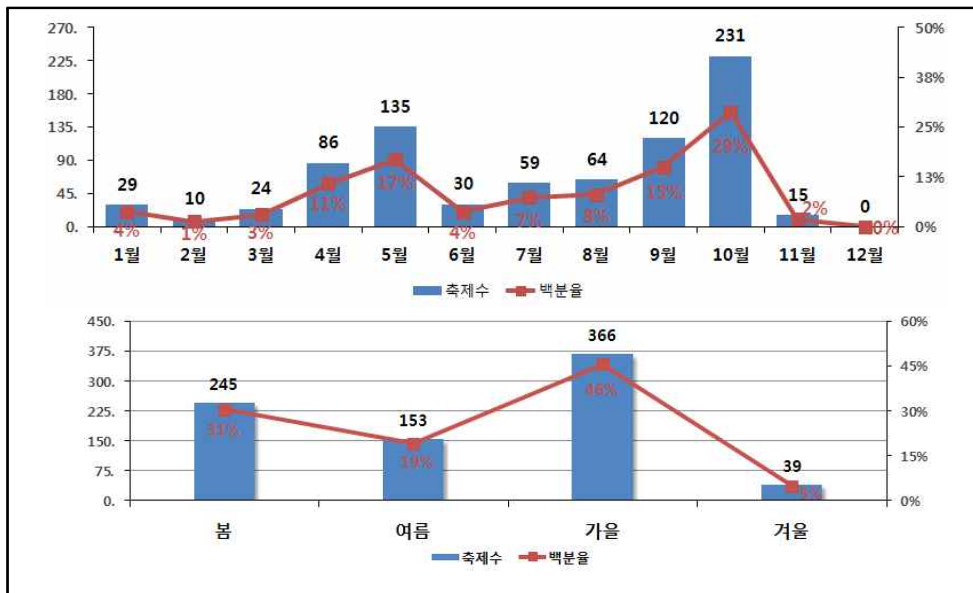
연도	선정축 제 (개수)	국비 지원	관광객 현황(명)		경제효과 (백만원)	비고
			내국인	외국인		
2013	42	6,696	27,809,089	1,644,231	1,642,233	외국인관광객, 전년대비 110%증가
2014	40	5,902	16,734,505	553,471	1,059,608	세월호 사고로 관광객 감소
2015	44	6,279	17,050,425	537,241	795,653	메르스 사태, 방문객 추산방식 엄격화 등

또한 [그림 2-26]과 같이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문화관광축제 제도를 최초 시행한 이후에 지정개수 및 지정금액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 지정개수가 감소하고 2011년부터는 지정금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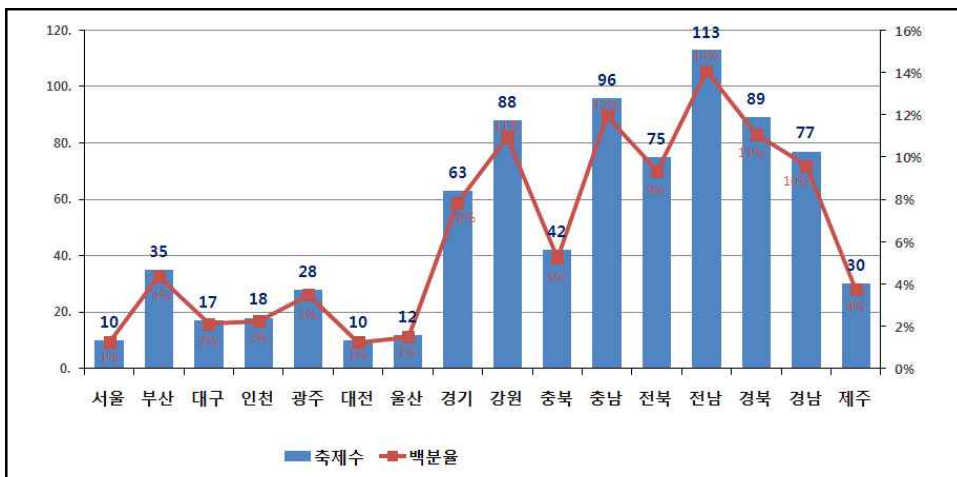
[그림 2-20] 문화관광축제 연도별 운영현황

문화관광축제의 개최시기별 운영현황을 보면 [그림 2-21]과 같이 지역특산품 수확철인 가을(10월)과 야외활동에 적합한 봄·가을(5월·10월)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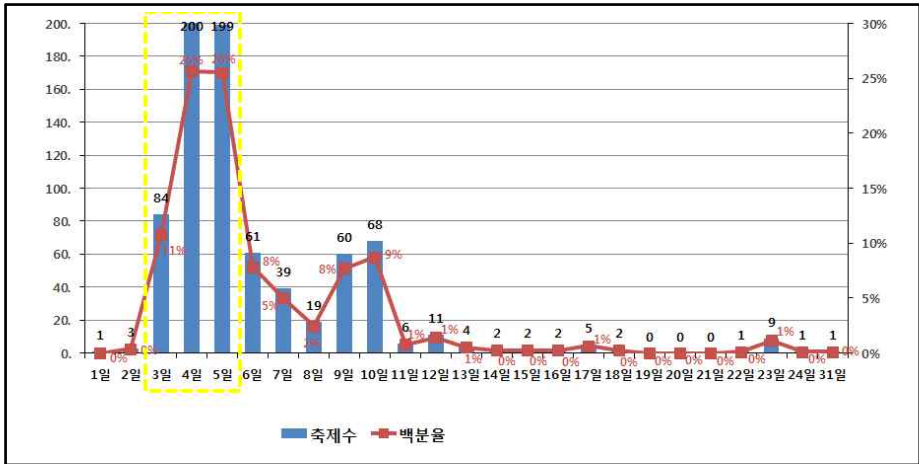
[그림 2-21]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기별 운영현황

문화관광축제의 개최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면 [그림 2-28]와 같이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 보다는 전남, 충남, 경북, 강원 등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2-22] 문화관광축제 개최지역별 운영현황

문화관광축제의 개최일수별 현황을 보면 [그림 2-23]과 같이 3~5일이 많으며, 대부분의 축제가 주말을 이용한 10일 내로 개최되고 있다.



[그림 2-23] 문화관광축제 개최일수별 운영현황

(5) 문화관광축제의 등급 현황

①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력

문화관광축제 최초 도입 2년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축제 예산 지원을 하였으나,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한 축제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처음으로 문화관광축제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2000년부터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간 7회에 걸친 등급제도 개선과 3회의 지원제도 변경을 통해 현재의 4등급제와 차등 예산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22년간 813개 축제에 86,466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24]와 [표 2-5]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div>1996년</div> <div>첫 도입 (한국관광공사 지원)</div> <div>8개 축제에 대해 각각 21백만 원 지원 1개 50백 만원, 1개 50백 만원, 1개 35백 만원, 2개 30백 만원, 1개 24백 만원, 1개 18백 만원, 1개 14백 만원</div>	<div>1997년</div> <div>2회 차 (한국관광공사 지원)</div> <div>2종류로 나눠 차등 지원 2개 50백 만원, 8개 30백 만원</div>	<div>1998년</div> <div>3회 차 (최초 국비지원)</div> <div>국비와 한국관광공사 동시지원 국비 5개, 축제에 대해 각각 70백 만원 지원, 한국관광공사 13개 축제에 대해 24백 만원</div>
<div>1999년</div> <div>4회 차 (평가제 도입)</div> <div>평가제 최초 도입 국비 6개 축제에 대해 각각 60백 만원 지원, 한국관광공사 15개 축제에 대해 24백 만원</div>	<div>2000년</div> <div>5회 차 (등급제, 차등지원)</div> <div>등급제 도입, 차등지원(국비) 인센티브축제-4개, 140백 만원 집중육성축제-4개, 70백 만원 지역육성축제-15개, 40백 만원</div>	<div>2001년</div> <div>6회 차</div> <div>인센티브축제-5개, 100백 만원 집중육성축제-5개, 70백 만원 지역육성축제-20개, 50백 만원</div>	<div>2002년</div> <div>7회 차 (등급제 개선)</div> <div>등급제 개선 최우수축제-3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19개, 60백 만원 지역육성축제-7개, 30백 만원</div>
<div>2003년</div> <div>8회 차 (등급제 개선)</div> <div>등급제 개선 최우수축제-3개, 13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80백 만원 지역육성축제-7개, 30백 만원 예비축제-7개, 지원금 없음</div>	<div>2004년</div> <div>9회 차</div> <div>최우수축제-3개, 200백 만원 우수축제-9개, 100백 만원 지역육성축제-13개, 60백 만원 예비축제-14개, 지원금 없음</div>	<div>2005년</div> <div>10회 차 (등급제 개선)</div> <div>등급제 개선 최우수축제-3개, 250백 만원 우수축제-9개, 130백 만원 지역육성축제-8개, 60백 만원 성장축제-7개, 40백 만원 예비축제-18개, 지원금 없음</div>	<div>2006년</div> <div>11회 차 (등급제 개선)</div> <div>등급제 개선 최우수축제-5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13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13개, 50백 만원 예비축제-25개, 지원금 없음</div>
<div>2007년</div> <div>12회 차</div> <div>최우수축제-7개, 250백 만원 우수축제-9개, 100백 만원 성장축제-17개, 50백 만원 예비축제-19개, 지원금 없음</div>	<div>2008년</div> <div>13회 차 (등급제 개선)</div> <div>등급제 개선 대표축제-2개, 800백 만원 최우수축제-7개, 350백 만원 우수축제-12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17개, 70백 만원 예비축제-20개, 30백 만원</div>	<div>2009년</div> <div>14회 차</div> <div>대표축제-2개, 800백 만원 최우수축제-8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9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17개, 70백 만원 예비축제-21개, 30백 만원</div>	<div>2010년</div> <div>15회 차 (등급제 개선/일괄제 도입)</div> <div>등급제 개선, 일괄제 도입 지원기간 원조 종료 대표축제-2개, 800백 만원 최우수축제-8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24개, 70백 만원</div>
<div>2011년</div> <div>16회 차</div> <div>대표축제-2개, 800백 만원 최우수축제-8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24개, 50백 만원</div>	<div>2012년</div> <div>17회 차</div> <div>대표축제-2개, 800백 만원 최우수축제-8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12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23개, 40백 만원</div>	<div>2013년</div> <div>18회 차</div> <div>대표축제-2개, 600백 만원 최우수축제-8개, 30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22개, 70백 만원</div>	<div>2014년</div> <div>19회 차</div> <div>대표축제-2개, 500백 만원 최우수축제-8개, 25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30백 만원 성장축제-20개, 89백 만원</div>
<div>2015년</div> <div>20회 차</div> <div>대표축제-2개, 500백 만원 최우수축제-9개, 25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50백 만원 성장축제-23개, 99백 만원</div>	<div>2016년</div> <div>21회 차</div> <div>대표축제-3개, 450백 만원 최우수축제-7개, 22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53백 만원 성장축제-23개, 84백 만원</div>	<div>2017년</div> <div>22회 차</div> <div>대표축제-3개, 400백 만원 최우수축제-7개, 220백 만원 우수축제-10개, 130백 만원 성장축제-21개, 84백 만원</div>	

[그림 2-24]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이력

[표 2-5] 1996~2017년 문화관광축제 현황

연도	선정축제(개수)	국비지원	등급 명칭 및 축제수(지원액: 백만원)						비고	
1996	8	한국관광공사	등급명칭 없음	1(60), 1(50), 1(35), 2(30), 1(24), 1(14), 1(8)						첫 도입
1997	10			2종류로 나누어 차등 지원 2(50), 8(30)						
1998	18	350		예산의 원천: 국비 5(70), 한국관광공사 13(24)						
1999	21	360		예산의 원천 국비 6(60), 한국관광공사 15(24)						평가제 도입
2000	25	1,580	인센티브	집중육성	지역육성			등급제 도입, 차등지원		
			4(140)	6(70)	15(40)					
2001	30	1,850	5(100)	5(70)	20(50)					
2002	29	1,650	최우수	우수	지역육성					
			3(100)	19(60)	7(30)					
2003	30	1,840	최우수	우수	지역육성	예비				
			3(130)	10(80)	10(50)	7(없음)				
2004	37	2,160	3(200)	9(100)	11(60)	14(없음)				
2005	45	2,528	최우수	우수	지역육성	유망	예비			
			3(250)	7(130)	8(60)	9(40)	18(없음)			
2006	52	3,500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5(300)	9(150)	13(50)	25(없음)				
2007	52	3,500	7(250)	9(100)	17(50)	19(없음)				
2008	56	7,170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2(800)	7(300)	10(150)	17(70)	20(30)			
2009	57	7,000	2(800)	8(300)	9(150)	17(70)	21(30)			
2010	44	7,250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급한도제 도입		
			2(800)	8(300)	10(150)	24(70)				
2011	44	6,700	2(800)	8(300)	10(150)	24(50)				
2012	45	6,700	2(800)	8(300)	10(150)	23(40)				
2013	42	6,700	2(600)	8(300)	10(150)	22(76)				
2014	40	6,900	2(500)	8(250)	10(130)	20(89)				
2015	44	6,924	2(500)	8(250)	10(150)	23(99)				
2016	43	6,000	3(450)	7(220)	10(130)	23(84)				
2017	41	5,804	3(400)	7(220)	10(130)	21(84)				
계	813	86,466								



[그림 2-25] 문화관광축제 현황(1996년~2018년)

② 문화관광축제 지역별 등급지정 현황

2019년 문화관광축제 지역별 등급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역도는 강원 6개, 전남 6개, 경기 5개, 경북 5개, 충남 4개의 순으로 다수의 축제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등 0개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역도의 경우 지역 특산물 및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외래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2019년 문화관광축제 지역별 등급 지정 현황

구분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서울(0)				
부산(0)				
대구(2)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인천(1)				인천펜타포트축제
광주(1)		추억의7080총장축제		
대전(0)				
울산(0)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6)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	횡성한우축제 강릉커피축제

			발 춘천마임축제	평창송어축제
충북(2)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충남(4)				한산모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전북(5)	무주반딧불축제		임실N축제	고창모양성제 순창장류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전남(6)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	강진청자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경북(5)	문경차사발축제		봉화은어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영덕대게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경남(3)	산청한방약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제주(1)		제주돌불축제		
계(41)	3개	7개	10개	21개

2)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지원 등 제도개선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첫째, 평가제는 지자체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단계 평가(소비자 만족도(10%), 전문가 현장참관(40%), 축제운영(15%), 콘텐츠(15%), 종합평가(20%))를 실시하는데 평가위원 성향에 따라 축제등급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정성평가 위주), 표준화된 평가지표로 인해 축제획일화 우려가 있으며, 사후평가 중심(환류 미흡)이다.

둘째, 등급제는 문화관광축제는 4 등급제(대표-최우수-우수-유망)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등급상승에 과도한 정책역량을 소모하여 장기적인 축제육성이 요원, 축제문화 서열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일몰제는 대표-최우수-우수축제는 예산 지원기간을 10회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축제 지속 발전과 세계적 축제 출현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지원체제로 축제 전담조직이 거의 전무, 축제지원기구도 부재하다. 축제의 정책환경은 지역축제 정책규제(행정안전부의 과도한 축제예산편성 시 지방교부세 감액 배분)와 언론의 부정적인 비판이 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18년 : 관광축제예산 정부 60여억, 지역 3천여억)에 부응하는 새로운 축제정책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정부 선도육성(축제 평가·등급→우수축제 예산차등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후원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제도 개선안

첫째, 개선방향은 세계적인 축제 육성방안 마련 등 정책중심 확장, 장기성장유도형 제도로 개편, 자율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축제지원체계 마련에 있다. 둘째, 정책영역을 확장하여 우수 지역축제 발굴육성(문화관광축제 지정→예산 지원)이외에 세계적 축제 육성과 일회성 행사 구조조정까지 정책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표 2-7] 문화관광축제 사업 내용

현행	개편
우수 지역축제 발굴 문화관광축제 지정(평가) 예산지원(지역대표축제로 육성)	세계적 축제 육성(법적 지원근거 마련) 문화관광축제 졸업축제 간접지원(홍보, 컨설팅 등) 문화관광축제 지정(우수지역축제 발굴) 일회성 축제 구조조정 *(빅데이터 정보제공: 빅데이터 분석('19년 2억 신규편성)을 순차적으로 확대(' 19년 100여개→ 향후 400여개)등)

셋째, 제도를 개편하여 장기적인 축제육성을 위해 매년 문화관광축제 지정하는 정책관행을 탈피, 평가 객관화, 등급제 폐지, 일몰축제 간접지원 등 기존 축제정책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데 있다. 넷째, 지원체계를 축제전담조직 신설 유도 및 축제인력 전문성 등 강화(←축제지원기구) 하도록 하는데 있다. 축제전담조직(민간 재단, 사단법인 등을 전담조직으로 인정)설립을 문화관광축제 선결요건화(3년 유예)하여, 지역축제를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관주도 탈피) 개최하는 추진주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축제지원기구(일본의 전통예능활용센터 사례와 같이 지역마츠리를 지역별, 유형별로 등록시켜 관리, 지역축제전국시상, 지역축제 지원사업 등을 실시)에 대해 예산지원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컨설팅, 축제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축제아카데미

미 운영 등을 통해 축제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표 2-8] 문화관광축제 사업 내용

구분	현행	개편
축제 지정	· 신규축제 :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지정 · 재지정 :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재지정 · 지정탈락 :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 신규 : 종전 동일(신규수요발생시, 매년) · 재지정 : 정량요건* 충족 시 자동지정(2년), 요건 2년 연속 미 충족 시 탈락 * 방문객(도농고려) 등(빅데이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정/ '18.12월)
평가	· 전문가 정성평가 위주 · 사후평가 중심	· 정성평가 + 빅데이터 분석(정량) 병행 · 사후평가 + 사전컨설팅 및 환류강화
등급제	· 문화관광축제(대표-최우수-우수-유망)	· 문화관광축제(단일등급)
일몰제	· 정부 예산지원 10회로 한정	· 10회 지원 존속(시도지원 명문화 : 법 개정)

※ 축제종류 : 대한민국문화관광축제(세계적인 축제 : 법적근거 마련) ← 글로벌후보축제 ← 문화관광축제 ← 문화관광육성축제(신규예비, 빅데이터 분석 정보제공) ◀홍보, 컨설팅 지원

3) 지방정부 지역축제에 주는 시사점

(1)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아직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그 보다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문화관광축제 정책추진의 방향의 측면에서 논하는 것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 혁신방안’의 소액 축제에 대한 국고지원의 단계적 일몰 적용 계획이라 인증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적 축제 육성의 국비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국비 지원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증제 및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인증제 관련하여 추진 기관, 인증 시기, 인증 평가시기(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인증기준, 인증기관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선정대상, 선정방법, 선정규모, 예산 지원 기간, 평가지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새로운 문화관광축제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업무매뉴얼 개발과 이를 기초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

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오훈성, 2018).

셋째, 중앙정부의 중심의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극복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있어 중앙과 광역단체 간 및 광역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축제사업 관계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미흡하므로 전담조직을 통해 다양한 관광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만나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보와, 공감대의 확보를 통한 공공성의 구현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오훈성, 2018).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지금의 제도 개선 방향도 지자체가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축제 비전문가인 단체장을 비롯한 축제부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지역축제의 정치도구화, 중앙정부의 정책 의존 등 축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장기간 축제의 노하우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축제전담계약직 공무원 임용 및 축제 전담조직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와 축제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방안 구축, 축제의 정체성 및 지역현실에 맞는 축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지자체 스스로 축제의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위원 다변화, 평가위원의 평가지표 합리성 제고, 평가방식 객관성 제고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도 평가 운영 방식이 복잡성을 개선하고, 평가위원 및 피평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 소비자 평가 및 방문객 공식집계 등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소비자(방문객) 만족도 및 관광객 수 집계 등 측정이 각 지자체별 자체 계획과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축제별 일관성 및 신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설문내용 및 측정방식 등을 제공, 지자체가 제출한 측정 결과는 축제 평가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 소비자 평가의 경우 설문 표본수를 확대해나가고, 설문내용에 있어서도 등급별로 차등하여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 방문객 공식집계는 2016년 처음 시행한 지자체로부터 방문객집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피드백을 받고, 측정방법 및 측정시간 세분화 등 방문객집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대응방향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매년 60억 정도의 소액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전국의 약 693개 이상의 축제를 개발하거나 복원하도록 촉진하였고 지역관광의 콘텐츠를 생산토록 만들었다. 실제로 2016년 문화관광축제 지정된 33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축제 지정 전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제교류 효과, 조직역량 강화,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에서 유의하다고 나타났다(오훈성, 2016).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과 축제를 지역관광을 이끌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 축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문화관광축제 평가중심 정책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전환에 따른 정책 다변화가 필요하다. 1999년 평가제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축제를 심사하고 평가하여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고 일정한 지원책을 제공해 주었다. 그 동안 좋은 성과와 자극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평가지표 맞추어 잘 구성된 전략적 축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계와 축제 간 특성화 보다는 평가시스템에 맞추어 표준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훈, 2006). 따라서 축제목표와 축제특성에 따른 정책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제별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내 축제를 모아 연합체를 만들고, 서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펀드를 조성하여 축제에 대한 기금대여와 축제기획 관리에 대한 축제지식 제공 및 중장기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관광축제 평가방식 변화에 따른 사후평가 환류 및 빅데이터분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평가지표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를 도입하는데 빅데이터의 평가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뒷받침 없을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였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축제장을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538명의 인원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체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방문객 측정도구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지국 3km이내 인원이 집계되고 있어 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축제의 방문객은 순수 축제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로밍서비스 미사용 외국관광객을 비롯하여, 휴대폰 미소지 계층인 어린이, 노인들의 방문객 누락에 대한 보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정주인구

가 적은 지방정부에서의 축제 빅데이터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문객수 및 경제적파급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보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축제 육성 중심의 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의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별도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국제형 축제에 대한 정보 및 관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외 전략적 홍보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축제 및 대표축제 등 성과가 검증되고 해외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 대하여 해외 언론취재 유도, 해외 축제와의 교류프로그램 등 광역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언론 팸투어·취재지원, 축제 해외시장 설명회,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국제 축제조직 교류 지원, 축제전문가·외국인 축제 모니터링 정례화, 글로벌축제 지역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축제전담조직 신설 유도 및 축제인력 전문성 등 강화정책에 따른 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축제는 기본적으로 유희성, 일탈성, 대동성, 지역성을 담아내는 문화콘텐츠이므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관광축제를 현장에서 기획하고 경영하는 지역 실무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지역축제의 질적 발전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문화·관광 기획자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관광축제 상위등급 축제 담당자 대상으로 해외 홍보 및 마케팅전략, 해외 우수축제 사례 조사 및 실무자 강연, 선진축제 답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문화관광축제 하위등급 축제 담당자 대상으로는 일반과정으로 축제 기본 이론, 축제 콘텐츠 및 브랜드개발전략, 축제 분야별 전략(기획, 운영, 홍보·마케팅 등), 국내 우수사례 소개 및 답사프로그램으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축제에서 필요로 하는 기획전문인력(문화기획자,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축제조직(축제재단·위원회 등)에 상주 파견(1년단위 연장)하는 축제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지자체와 매칭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축제전담 공무원 대상으로 축제 기획·경영 실무매뉴얼 개발 보급을 통해 축제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오훈성·이훈, 2017).

국외 선진축제는 대부분 민간에서 축제가 태동하여 민간과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축제를 발전시키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제는 아직까지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앞으로는 점차 민간과 국가가 서로 협력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변화해나가야 한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축제의 본질적인 목적인 일탈성을 잘 나타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콘텐츠화하여 방문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 민간 등 축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목표체계와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마련하여 정책 전환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3장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분석의 시사점

1. 충남 축제 개최현황과 특성

1) 전국과 충남의 축제 현황

(1) 시도별 축제 개최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886개의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울이 1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이 105개, 이어 충남이 93개 순으로 파악되었다. 개최 개수로는 충남이 전국 세 번째의 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최로 2일 이상 개최되는 축제로 문화관광축제, 특산물축제, 문화예술제, 일반축제 등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단순 주민위안 행사, 순수 예술행사,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 수치이다.

[표 3-1] 2018년 지역축제 개최현황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6	126	37	24	26	9	10	24	3	94	75	46	93	51	105	77	58	28

(2) 충남 축제 총괄 현황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역자치단체들은 지역 문화의 질,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최근 지역축제의 세계화, 충남 문화요소 발굴 등의 사업을 제시하며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충남의 지역축제는 총 93개로 문화예술 분야 17개, 관광특산 64개, 전통민속 9개, 기타 3개 등이 개최되고 있다.

[표 3-2] 충남 분야별 지역축제 현황(2017)

계	문화예술	관광특산	전통민속	기타
96	17	64	9	3

자료 : 충청남도(2017), 2017충남 관광기본자료

(3) 시·군별 축제개최 현황

시군별 축제 개최는 당진시에서 14개, 서천군과 태안군 11개, 공주시 9개, 보령시 7개, 천안시와 아산시 6개, 논산시 5개, 청양군과 홍성군 4개, 금산군 부여군 3개, 예산군 2개, 계룡시 1개 등의 순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 3-3] 시군별 지역축제 현황(2017)

시군별	문화관광축제				
	계	문화예술	관광특산	전통민속	기타
합 계	93	17	64	9	3
천안시	6	2	4		
공주시	9	2	4	3	
보령시	7		7		
아산시	6	1	4	1	
서산시	7		6	1	
논산시	5		5		
계룡시	1		1		
당진시	14	2	7	3	2
금산군	3		3		
부여군	3	2		1	
서천군	11	2	9		
청양군	4	1	3		
홍성군	4	1	3		
예산군	2	2			
태안군	11	2	8		1

충남지역 93개 축제의 개최현황을 15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계룡시는 ‘군문화축제’ 1개를 개최하고 으며, 공주시는 겨울공주군밤축제, 백제여울마당, 웅진성수문명교대식,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계룡산 벚꽃축제, 계룡산신제, 마곡사 신록축제, 마곡사토요무대, 백제문화제 등 9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축제, 금강여울축제, 비단고을 산꽃축제, 남일면홍도화축제 등 4개이다.

논산시는 5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논산딸기축제,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논산강정갯길축제, 양촌곶감축제 등이다. 당진시는 12개 축제를 주최 또는 지원하고 있다. 순성매화벚꽃축제,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장고향실치축제, 농심체험한마당, 한진바지락축제, 왕매실 따기체험행사, 버그내연호문화축제, 삼교호조개구이축제, 심훈상록문화제, 국화전시회 등이다.

보령시는 14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주산봄꽃축제, 대천항 수산물축제,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축제, 보령머드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보령예술제, 만세보령문화제,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보령 김 축제, 청라은행마을축제, 온새미로축제, 천북굴축제,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이다. 부여군은 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2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서산시 7개 축제가 개최된다. 지곡왕산포 서산갯마을축제, 팔봉산 감자축제, 삼길포 우럭축제, 서산어리굴젓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서산국화축제, 철새기행전 등이다. 서천군은 10개의 축제가 열린다.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꿀갑축제, 해랑들랑어울레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동백꽃주꾸미 축제, 광어도미 축제, 춘장대여름문화예술축제, 홍원항 전어꽃게축제, 마량포 해넘이해돋이축제, 한산소곡주축제가 있다.

아산시 5개 축제가 열린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신정호 별빛축제,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IN 아산(구 대한민국 코미디 핫 페스티벌), 은행나무길축제, 짚풀문화제 등이 있다. 예산군은 3개 축제가 개최된다. 매현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형제축제,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이다.

천안시는 천안홍타령춤축제, 청바지페스티벌, 천안예술제, 입장거봉포도축제, 천안호두축제,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천안영화제 등 8개의 축제가 열린다. 청양군은 3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칠갑장승문화축제, 청양고추구기자축제, 백제문화체험축제 등이 열린다.

태안군은 6개 축제가 개최된다. 몽산포항 주꾸미&수산물축제, 신진도 꽃게 축제, 모항항 해

삼축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태안거리축제, 솔향기길 축제 등이 개최된다. 마지막으로 홍성군은 4개 축제를 개최한다. 홍성역사인물축제, 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대축제, 홍성남당항대하축제,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등이다.

[표 3-4] 2018년도 충청남도 축제개최 현황

(단위 : 개)

합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1	9	4	5	12	14	2	7
93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10	5	3	8	3	6	4	

충남도 개최되는 93개 축제를 15개 지자체별로 분류하였다. 보령시가 14개, 당진시 12개, 서천군이 10개, 공주시 9개, 천안시 8개, 서산시 7개, 태안군 6개, 아산시와 논산시가 각 5개, 금산군과 홍성군이 각 4개, 예산군 및 청양군이 각 3개, 부여군 2개, 계룡시가 1개 순으로 축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개최되는 축제의 시기, 주요내용, 주최 및 주관, 최초 개최년도 및 횟수, 예산, 세부사업명 등의 현황은 [부록의 시군별 축제 세부현황] 자료와 같다.

2) 충남 축제의 특성

(1) 축제의 종합 분석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은 형식적 종류, 소재, 개최주기, 조직형태, 상설조직의 형태, 위탁여부, 방문객수, 개최장소 등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8가지 특성에 따라 축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93개 축제의 예산은 약 3백 1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도비는 69억원 가량으로 파악되었고 시군비는 약 2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축제의 종류는 문화예술, 생태자연, 전통역사, 주민화합, 지역특산물, 기타 등 6개로 파악되었다. 지역특산물이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생태자연은 17개, 문화예술이 16개, 전통역사가 14개, 주민화합이 6개 순으로

타났다.

조직의 형태는 공공기관, 위원회(조직, 추진, 집행),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시민단체, 임의단체 등 7개 종류로 파악되었다. 공공기관은 9개, 위원회는 54개, 사단법인은 10개, 재단법인은 8개, 조합법인 1개, 시민단체 2개, 임의단체 4개로 분석되었다.

축제사무국의 유무와 상설화의 경우 사무국이 없는 축제가 11개로 집계되었다. 사무국이 있는 축제는 81개로 나타났다. 그 중 비상설이 67개, 상설 사무국은 15개로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위탁여부에 대해서 자체추진, 부문위탁, 전체위탁으로 분류되었다. 자체추진은 56개 축제가 해당되었고 부문위탁 17개, 전체위탁은 18개로 파악되었다.

(2) 시군별 축제의 특성

① 계룡시의 축제

계룡시는 매년 시에서 주관이 되어 군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형태의 축제으로써 계룡의 대표축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계룡시가 주최로 자체추진하고, 상설조직은 없다.

[표 3-5] 계룡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2018 계룡軍문화축제	문화 예술	군(軍)	매년	공공 (시)	없음	자체추진	1,180	1,180	-

② 공주시의 축제

공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대부분 전통역사 문화예술 형태로 역사와 자연을 소재로 하는 축제이며 문화예술과 기타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조직위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축제가 다수이며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대부분이 전체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백제문화제는 1,771천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계룡산 벚꽃축제 등의 순이었다. 이중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가 도비지원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표 3-6] 공주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종류	축제소재	개최주기	조직형태	상설조직	사업위탁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겨울공주 군밤축제	기타	겨울, 밤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	-	-
백제 어울마당	전통역사	세계유산	매년	-	없음	전체위탁	250	250	-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전통역사	수문병근무 교대식 재현	매년	-	없음	전체위탁	284	280	4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	전통역사	구석기	격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부분위탁 (프로그램)	178	176	2
계룡산 벚꽃축제	기타	벚꽃	매년	임의단체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300	300	-
계룡산산신제	전통역사	산신제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2	2	-
마곡사 신록축제	문화예술	신록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4	4	-
마곡사토요무대	문화예술	문화예술공 연	매년	임의단체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1	1	-
제63회 백제문화제	전통역사	백제역사	매년	공공	없음	부분위탁 (프로그램)	1,771	1,760	11

③ 금산군의 축제

금산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대부분 자연생태 형태로 개최되며, 대표축제는 인삼을 소재로 하는 특산물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사단법인과 임의단체가 운영하며 대부분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거나 조직이 없다.

축제의 운영은 전체가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산인삼축제가 대표축제이고, 이 중 금강여울축제가 도비지원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표 3-7] 금산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종류	축제소재	개최주기	조직형태	상설조직	사업위탁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제37회 금산인삼축제	지역특산물	인삼	매년	임의단체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	엑스포 대체	엑스포 대체
2018 금강여울축제	생태자연	강(여울)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7	7	-
2018 비단고을 산꽃축제	생태자연	산꽃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12	12	-
제11회 남일면홍도화축제	생태자연	홍도화	매년	임의단체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6	6	-

④ 논산시의 축제

논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대부분 지역특산물을 형태로 개최하며, 젓갈과 딸기, 고구마, 대추, 꽃감 등을 소재로 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모두 축제조직위원회가 운영하며,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전체가 자체추진을 통해 이루어지며, 논산딸기축제와 강경젓갈축제 등이 논산의 대표축제이고, 이 둘 두 축제가 도비지원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표 3-8] 논산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논산딸기축제	지역 특산물	딸기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620	615	5
상월명품고구마 축제	지역 특산물	고구마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38	38	-
연산대추축제	주민화합	연산대추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80	80	-
논산강경젓갈축제	지역 특산물	젓갈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90	284	6
양촌꽃감축제	지역 특산물	꽃감	매년	추진위원회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0	100	-

⑤ 당진시의 축제

당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자연생태와 전통역사, 문화예술 및 지역특산물 등을 행태로 하며, 대표적인 축제로는 기지시줄다리가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와 사단법인 및 당진시 또는 읍면에서 운영하며 대부분이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일부 상설조직이 있다. 축제의 운영은 전체위탁이나 자체추진이나 부분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비지원 축제는 없다.

[표 3-9] 당진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순성매화벚꽃축제	생태자연	벚꽃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1	1	-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전통역사	진달래, 민속놀이, 두견주	매년	공공(읍면 동)	없음	부분위탁	1	1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 실	기타	안전교육	매년	재단법인	있음 (비상설)	프로그램 전체위탁	5	5	-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	전통역사	줄다리기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부분위탁	50	40	10
장고향실치축제	지역 특산물	실치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	2	-
농심체험한마당	문화예술	농업	매년	공공 (시군구)	있음 정규직2명	자체추진	25	25	-
한진바지락축제	지역 특산물	바지락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	1	-
왕매실 따기체험행사	지역 특산물	매실	매년	조합법인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1	1	-
버그내연호 문화축제	생태자연	연꽃	매년	축제집행 위원회	있음 (비상설)	부분위탁	5	5	-
삽교호조개구이 축제	지역 특산물	조개구이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3	3	-
심훈상록문화제	문화예술	심훈선생	매년	사단법인	정규직1명 총1명 있음	전체위탁	5	5	-
국화전시회	문화예술	국화	매년	공공 (시군구)	있음 정규직2명	자체추진	45	45	-

⑥ 보령시의 축제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지역특산물이 가장 많고 생태자연과 문화예술, 주민화합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대표축제로는 보령머드축제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대부분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에서 운영하며 보령머드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자체추진이 가장 많고 일부는 부분위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축제는 보령머드축제이며, 도비지원 축제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표 3-10] 보령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무창포 주꾸미·도다리축제	지역특산 물	주꾸미· 도다리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	10	-
주산봄꽃축제	생태자연	봄꽃	매년	공공(읍면동)	없음	부분위탁	2	2	-
대천항 수산물축제	지역특산 물	수산물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5	15	-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축제	지역특산 물	조개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보령머드축제	문화예술	머드	매년	재단법인	있음 계약직4명	자체추진	5,688	5,066	622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생태자연	신비의바 닷길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52	52	-
보령예술제	문화예술	문화예술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	2	-
만세보령문화제	주민화합	민속문화	격년	만세보령 문화제 추진위원회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5	15	-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지역특산 물	대하·전 어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	10	-
보령 김 축제	지역특산 물	김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80	80	-
청라은행마을축제	생태자연	은행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부분위탁 (운영, 프로그램)	3,000	3,000	-
제14회 온새미로축제	지역특산 물	농특산물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	2	-
천북굴축제	지역특산 물	굴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00	200	-
대천겨울바다사랑 축제	문화예술	바다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계약직4명	자체추진	300	300	-

⑦ 부여군의 축제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자연생태와 전통역사 형태가 있으며,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두 축제 모두가 부여군의 대표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축제조직위에서 개최하며 모두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의 운

영은 자체추진이며 서동연꽃축제가 도비지원 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1] 부여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제16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생태자연	연꽃, 서동 (무왕)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14	1,014	-
제64회 백제문화제	전통역사	사비백제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00	1,000	-

⑧ 서천군의 축제

서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지역특산물과 생태자연, 문화예술 등의 형태로 개최되며, 한산모시문화제가 대표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개최주기는 모든 축제가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며 대부분이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대부분 자체추진이나 3개가 전체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산모시문화제와 동백꽃주꾸미 축제가 도비지원 축제이다.

[표 3-12] 서천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생태자연	철새	매년	추진 위원회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40	39	1
꿀갑축제	지역 특산물	꿀뚜기, 감오징어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전체위탁	200	190	10
해랑들랑어울레축 제	생태자연	해양생물, 생태계	매년	공공 (시군구)	없음	전체위탁	20	20	-
한산모시문화제	지역 특산물	모시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87	277	10
동백꽃주꾸미 축제	지역 특산물	주꾸미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468	468	-
광어도미 축제	지역 특산물	광어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50	250	-
춘장대여름문화 예술 축제	문화예술	가요제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0	20	-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지역 특산물	전어, 꽃게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60	160	-
마량포 해넘이해돋이 축제	생태자연	해넘이, 해돋이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	-	-
한산소곡주 축제	지역 특산물	소곡주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0	100	-

⑨ 아산시의 축제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문화예술과 자연생태, 전통역사, 주민화합 등의 형태로 추진되며, 아산성웅이순신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이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대부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며 대부분 상설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자체추진으로 이루어지며, 은행나무축제가 도비지원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표 3-13] 아산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아산성웅 이순신축제	주민화합	이순신장군	매년	재단법인	있음 정규직7명 계약직3명 총10명	자체추진	307	307	-
신정호 별빛축제	문화예술	여름밤	매년	재단법인	있음 정규직7명 계약직3명 총10명	자체추진	9	9	-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IN 아산 (구 대한민국 코미디 핫 페스티벌)	문화예술	코미디	매년	재단법인	있음 정규직7명 계약직3명 총10명	자체추진	1	1	-
은행나무길축제	생태자연	은행나무길	매년	재단법인	있음 정규직7명 계약직3명 총10명	자체추진	26	26	-
짚풀문화제	전통역사	짚풀	매년	사단법인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96	96	-

⑩ 예산군의 축제

예산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전통역사와 지역특산물 등의 형태로 개최하며, 매현윤봉길평화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이다. 개최주기는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사단법인과 기타 형태로 운영하며 대부분 1개 축제가 상설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자체추진으로 이루어지며, 매현윤봉길평화축제가 도비지원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표 3-14] 예산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의좋은형제축제	전통역사	인물	매년	없음	없음	미기재	7	7	-
매한윤봉길 평화축제	전통역사	인물	매년	사단법인	있음 정규직3명 계약직10명 총13명	자체추진	9	9	-
예산장터 삼국축제	지역 특산물	국화 국밥 국수	매년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77	77	-

⑪ 천안시의 축제

천안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문화예술이 가장 많고, 지역특산물과 생태자연, 기타의 형태로 개최되며, 천안흥타령춤축제가 대표축제이다. 개최주기는 대부분이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재단법인과 시민단체, 축제조직위 등에서 운영하며 대부분이 비상설 조직이나 상설 조직도 있다. 축제의 운영은 자체추진이나 부분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천안청바지페스티벌이 도비 지원축제이다.

[표 3-15] 천안시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천안흥타령춤축제	문화예술	춤	매년	재단법인	있음 정규직4명 계약직2명 총6명	부분위탁	125	125	-
청바지페스티벌	문화예술	청바지	매년	미정	공모예정	부분위탁	5	5	-
천안예술제	문화예술		매년	사단법인	있음 계약직1명	부분위탁	30	30	-
입장거봉포도축제	지역특산물	포도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5	5	-
천안호두축제	지역특산물	호두	매년	시민단체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0	10	0
천안북면 위례벚꽃축제	생태자연	벚꽃	매년	축제 조직위	있음 (비상설)	부분위탁	20	20	-
대한민국 국제농기계 자재 박람회	기타	농기계및 농자재	격년	국제농기 계자재박 람회 조직위	있음 (비상설)	부분위탁	280	280	-
천안영화제	문화예술	영화	매년	재단법인	있음 (비상설)	부분위탁	3	3	-

⑫ 청양군의 축제

청양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모두 전통역사의 형태로 개최되며,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대표축제이다. 개최주기는 모두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공공이나 축제조직위 등에서 운영하며 비상설조직과 조직이 없이 개최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모두 자체추진하며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도비지원축제이다.

[표 3-16] 청양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칠갑장승문화축제	전통역사	장승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30	30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전통역사	고추, 구기자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50	150	-
백제문화체험축제	전통역사	백제문화	매년	공공	부	자체추진	30	30	-

⑬ 태안군의 축제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대부분이 지역특산물이 많고 주민화합과 주민화합의 형태로 개최된다. 개최주기는 모두가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축제조직위에서 운영하며 모두 비상설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의 운영은 자체추진이나 축제조직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도비지원축제는 없다.

[표 3-17] 태안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몽산포항 주꾸미&수산물축제	지역특산물	주꾸미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138	138	-
신진도 꽃게 축제	지역특산물	꽃게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미개최	-	-
모항항 해삼축제	지역특산물	해삼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76	76	-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지역특산물	대하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302	302	-
2018 태안거리축제	주민화합	흥, 화합, 동행 등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축제조직위 자체추진	25	25	-
솔향기길 축제	생태자연	자연경관	매년	축제조직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7	27	-

⑭ 홍성군의 축제

홍성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종류는 지역특산물과 전통역사의 형태로 개최되며, 홍성역사 인물축제가 대표축제이다. 개최주기는 대부분이 매년 개최되며, 축제주체는 모두가 축제조직 위에서 운영하며 모두가 비상설조직이다. 축제의 운영은 모두가 자체추진이며, 홍성역사인물 축제가 도비지원축제이다.

[표 3-18] 홍성군 축제의 특성

축제명	축제 종류	축제 소재	개최 주기	조직 형태	상설 조직	사업위탁 운영여부	방문객수 (2017기준, 천명)		
							합계	내국인	외국인
홍성역사인물축제	전통역사	역사인물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79	79	0.3
광천토굴새우젓광 천김대축제	지역특산물	토굴새우 젓, 광천김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30	30	-
홍성남당항대하축제	지역특산물	대하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500	500	-
홍성남당항새조개 축제	지역특산물	새조개	매년	축제조직 위	있음 (비상설)	자체추진	235	235	-

3) 충남 시군과 도의 평가와 지원제도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축제평가 및 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10개 시군에서 축제와 관련한 조례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등에서 축제와 관련한 조례와 자치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주시는 ‘축제평가단구성 운영지침’, 금산군은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는 ‘축제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는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서산시는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 서천군은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아산시는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예산군은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 태안군은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홍성군은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였다.

수집된 조례 및 자치법규의 제정시기와 평가, 지원사항 그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9] 충청남도 시군의 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조례)

지역	법규명	제정시기	평가사항 수록 유무	지원사항 수록 유무
공주시	축제평가단구성 운영지침	2008.04	있음	있음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4	있음	있음
당진시	축제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	있음	있음
보령시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2011.02	없음	있음
서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조례	2012.01	있음	있음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5.11	없음	없음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2010.10	있음	있음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	2007.01	있음	있음
태안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1	있음	있음
홍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06.10	있음	있음

자치법규 또는 조례는 홍성군에서 충남지역 처음으로 2006년도에 제정되었으며 태안군은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제정되었다. 천안시, 논산시, 청양군, 계룡시, 부여군은 특정축제에 한정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축제의 평가와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의 내용들은 각 법규 간 제정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체축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평가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법규가 있는 반면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안에 평가와 지원의 임무를 부여한 조직에 관한 법규가 있다. 아울러 평가와 지원에 대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수록한 법규도 존재한다. 각각의 자치법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3-20] 충청남도 시군의 축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조례)의 내용

지역/ 자치법규명	항목	내용
공주/축제평가단 구성 운영지침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축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제6조(평가단 임무) 평가단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전 행사 및 축제 운영자에게 평가자임을 통보하고 평가결과를 공지한다. 2. 축제행사 장소의 적정성, 무대설치의 충실성, 축제의 기획과정, 홍보사항, 관객 확보, 관객의 반응, 계속지원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3. 축제 및 행사장을 방문하여 별표 1의 평가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른 평가계획서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평가 후 평가표는 공주시청 축제업무 부서에 제출한다.
	지원	제7조(평가결과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평가결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한다. 1. 95점 이상: 익년도 축제경비 10% 증액 2. 70점 이하: 익년도 축제경비 20% 감액 3. 60점 이하: 일몰 (퇴출)
금산/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발전과 금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제8조(평가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그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추진주체가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축제 개최결과의 평가는 제5조에 따라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는 평가소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하는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할 수 있다. ③ 평가소위원회는 제8항에 다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8항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해 축제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지원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추진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사용한 보조금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추진주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당진/축제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p>제1조(축제위원회 설치 등)</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진시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당진시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당진시 축제의 결산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지원	<p>③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축제 개최 예정일로 부터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p>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
	지원	<p>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전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서산/축제육성 및 지원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5)
	평가	제16조(평가)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	제17조(축제의 육성)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천/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
	지원	-
아산/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기획심의·의결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축제개최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방법은 위원회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또는 전문가에 별도의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지원	제13조(기능) 아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종합기획 및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의 2. 축제의 기획지원·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축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발견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축제지원 및 운영조례	목적	제14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자원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제14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축제를 개최한 단체는 행사종료 시 사업 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원	제1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12조의 지역축제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만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경우나 지역축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보조금의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홍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태안/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제17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태안군 축제의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태안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안군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최하는 축제로서 별표의 축제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를 포함한다.
홍성/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목적	제2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정체성 확립과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성군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	제2조(사업계획 심의 및 평가) ① 제2조에 따라 선정된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제2조제항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사업개시 6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결정한다.(개정 2013.9.30.) ②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축제 추진 주체는 평가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원	제2조(기능) 홍성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각종 축제의 사업계획 심의·조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추진주체(주최, 주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축제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충남도내 축제와 관련한 자치법규 또는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나타냈다. 먼저, 구체적인 평가와 지원 사항을 명시한 자치법규사례가 있다. 공주시의 경우 평가항목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제시하고 있다. 금산군과 예산군의 조례에서는 평가와 지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결과가 지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

두 번째는 축제육성과 지원에 관련한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그 역할과 기능 속에 평가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별도의 규칙으로 이를 규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령시의 경우 재단법인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서천군은 평가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으며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와 홍성군은 평가와 지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제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기능으로 명시하였다.

세 번째는 축제 개최 전 개최타당성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평가와 지원에 대한 규정은 선언

적인 경우이다. 당진시와 서산시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축제의 평가체계와 차등지원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과 시행 여부에 대하여 2019년 1월 24일과 25일에 걸쳐 15개 지자체의 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도의 유무와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1] 충청남도 시군별 축제관련 평가체계 및 지원 유무 및 시행여부

지역	축제평가체계 유무	시행 여부 및 의견
계룡시	없음	현행 군(軍)문화축제 이외 개최축제 없으므로 별도의 평가 및 지원제도 없음
공주시	있음	축제 간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시행
금산군	있음	조례의 내용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행 하지 않음. 평가는 시행하나 차등지원은 지역내 갈등의 소지
논산시	없음	축제별 자체평가 시행. 차등지원은 없음
당진시	없음	18년 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세부적 기준은 미비한 상태이며 예산상황에 따라 회의로 추천
보령시	없음	축제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는 있음. 평가체계는 부재
부여군	없음	서동연꽃축제의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음
서산시	없음	심의제도의 기능으로 축제개최 전 축제기본방향의 수립과 예산배분 역할
서천군	없음	평가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 없음.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 조례는 있음
아산시	없음	축제별 개별평가 실시하고 있음
예산군	있음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평가 시행함. 사전, 축제 중, 사후 평가 실시
천안시	없음	-
청양군	없음	고추구기자축제와 장승문화축제 등 2개의 축제밖에 없어 제도 미비. 고추구기자축제에 대한 조례 있음
태안군	없음	조례가 있어 위원회에 의해 개최전 심의
홍성군	없음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자문기능 시행

주: 2019년 1월 24~25일 비상임연구위원 전화면접조사 결과임.

공주시를 제외하고 9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충청남도의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

례'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는 점을 보인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의 기능과 역할,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평가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위임하는 방식이 유사하다.

충청남도의 축제평가 및 지원제도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다. 충청남도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 육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평가의 결과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표 3-22]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07-10-01 조례 제 3277호 (일부개정) 2008-07-01 조례 제 3328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p>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축제를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충청남도 우수축제의 선별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충청남도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7.

1>

1. 문화·예술단체 대표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축제관련 임직원
4.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충남 도비지원축제 및 평가제도 현황

충청남도는 지역축제의 중점육성을 위해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전문가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지원해왔다. 이를 위하여 충남도는 2003년부터 도비지원 축제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충남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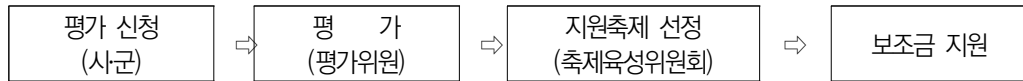
2018년도 도비지원축제는 총 13개 축제가 지정되었다.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등 4개의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당 연지원축제였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홍성 역사인물 축제, 논산 딸기 축제, 보령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서산 국화 축제, 금강 여울 축제,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제, 태안 국제모래조각 페스티벌, 예산 매현 윤봉길 평화축제 등 9개 축제는 현장평가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도비지원축제로 선정되었다.

[표 3-23] 2018년도 도비지원축제 현황

구분	축제명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논산 강경 젓갈 축제
	부여 서동연꽃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서산 해미읍성 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충청남도 지정축제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홍성 역사인물 축제
	논산 딸기 축제
	보령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서산 국화 축제
	금강 여울 축제
	청양 칠갑산 장승문화제
	태안 국제모래조각 페스티벌
	예산 매현 윤봉길 평화 축제

도비지원축제는 현장평가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선정되고 보조금지원이 결정된다.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시군에 의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축제를 신청하고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평가지표에 따라 현장평가가 실시된다. 이후 축제육성위원회

가 열리고 현장평가 점수와 육성위원 간 심의에 의해 지원축제가 선정되며 이듬 해 초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그림 3-1] 지원축제 선정과정

2018년도 각 시군에서 평가신청 된 축제는 16개로 위촉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현장평가가 진행되었다. 현장평가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에 의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평가 항목은 축제기획, 콘텐츠, 운영, 성과, 발전성 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의 평가항목과 일치한다.

[표 3-24] 2018년도 도지원 평가신청 축제

시군	축 제 명
천안시	천안청바지페스티벌 (10월)
	천안흥타령춤축제 (9월)
공주시	석장리 세계구석기 축제(문화관광축제) (5월)
보령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8월)
아산시	은행나무축제 (10월)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문화관광축제)(10월)
	국화축제 (10월)
논산시	강경 젓갈 축제(문화관광축제) (10월)
	딸기축제 (4월)
금산군	금강여울축제 (7월)
부여군	서동연꽃축제(문화관광축제) (7월)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문화관광축제) (6월)
	동백꽃주꾸미 축제(3월)
청양군	고추·구기자 축제 (9월)
홍성군	홍성 역사인물축제 (문화관광축제) (9월)
예산군	매한 윤봉길 평화축제 (4월)

도지원축제의 평가는 크게 현장평가와 축제육성위원회의 서면심의에 의해 지원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현장평가는 시군에서 추천한 축제 당 충청남도 육성위원 3인 내외로 평가 반에 의해

진행된다. 축제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평균점수로 40%가 반영된다.

[표 3-25] 2018년도 도비지원축제 현장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1.축제기획	○ 축제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기획목적,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 축제 개최 1개월전 기획서 제출	5
2.축제의 특성 / 축제 콘텐츠	소계	40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20
	○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 그 축제만의 독특한 소재와 자원으로 관광객의 유인·몰입 가능성	-
	○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 축제 캐릭터 개발 등	15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5
3.축제의 운영	소계	30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10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5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5
	○ 축제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확립	10
4.축제 발전성과	소계	15
	○ 자치단체장의 육성 의지 등 발전 가능성	5
	○ 축제조직체 구성 여부 및 축제 재정자립도	10
5.축제의 성과	소계	10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 관광객 수(외국인 포함), 지역 홍보효과 등	4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 관광객 비용지출, 재방문 기능성 등	3
	○ 축제 관람객 만족도	3
계		100
감점	※ 축제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대중연예인 참여 등 과도한 행사는 감점	5

축제육성위원회는 매년 11월 중 최고 및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서면평가에 의해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서면평가는 순위결정을 위한 점수비중 60%를 적용한다. 평가결과는 순위에 따라

차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추천하고 이외의 축제는 순위에 따라 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된다.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4개 축제에 대하여 도비 1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다. 이외 순위의 9개 축제에 대해서 도비 4억 2천만원이 지원되었다.

충청남도는 도비지원 대상 축제에 대하여 축제컨설팅, 축제멘토, 지역축제아카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축제컨설팅은 매년 3개 축제를 지정하여 축제당 1천만원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역특화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지역전통문화와 특산품 홍보 및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역축제 멘토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를 제외하고 1개 축제 당 1명의 멘토를 지정토록 하여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피드백까지 긴밀한 전문자문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축제아카데미는 도시군 축제담당 공무원과 민간축제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현장답사, 해외 선진축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교육과정을 통하여 축제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축제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5)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충청남도의 축제개최 현황과 특성, 충남 시군과 도의 평가와 지원제도, 충남 도비지원축제 및 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축제의 양적성장에 비해 평가체계의 획일성을 지적할 수 있다. 2018년도 축제집계에서 충남지역의 축제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축제의 양적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되는 경쟁력 높은 축제는 양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평가체계와 제도에 부합해야 축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와 형식으로 발전잠재력이 있는 축제들이 사장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축제평가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제육성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원받는 축제가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새로운 축제는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기회외 박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기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축제의 형식과 종류, 소재에 국한한 평가체계에서 장점을 유지하되 신규축제의 진입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평가체계의 속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별 평가 및 지원제도의 미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축제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특이한 것은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이 충남의 축제관련 자치법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수가 다양하므로 자치법규도 세부시행령을 따로 정하되 자치법규는 다소 모호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모호하고 선언적 내용의 축제관련 자체법규를 광역자치단체의 형식과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주시의 축제평가 및 지원에 대한 자치법규는 비교적 구체적인 평가와 지원, 불이익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법규를 적용한 사례도 있어 시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 시군의 자치법규는 축제의 추진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위원회에 평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시군별 축제경쟁력 강화는 축제간 선의의 경쟁과 지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충남의 축제육성 관련 조례의 취지가 시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상설 축제추진체와 전문성 부족이다. 도내 93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사무국의 유무와 상설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사무국이 없는 축제가 11개, 사무국이 있는 축제가 81개로 나타났다. 축제의 실질적인 추진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여부는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각 축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무국이 있는 축제 중 비상설이 67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연중 상설로 운영되는 상주직원이 있는 사무국은 15개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축제의 성장과 육성은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 전개될 수 있는데 축제개최에 앞서 개설되고 축제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사무국의 존립양상은 현행 축제육성을 위한 평가와 지원제도의 취지와 부합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의 비전문성을 양산할 것이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축제의 미래 모습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평가와 지원항목에서 축제조직의 상설화와 축제의 사후관리, 전문성과 숙련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축제 평가제도와 시군적용의 어려움이다. 유선으로 축제공무원들에게 시군축제의 평가와 지원제도의 시행여부와 현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공주시, 예산군, 금산군은 평가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 지자체는 평가체계가 부재하며 실제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도비지원축제와 같이 세부적인 평가와 차등지원은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견을 보였다.

충남도가 보유한 축제의 양적 경쟁력은 전국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차별화 또는 특화경쟁력 등 질적 경쟁력은 자문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능력을 각 축제에 부여하기 위한 전문성의 배양, 잠재성이 높은 축제가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다원화된 평가 및 지원체계, 선의의 경쟁과 균등한 성장기회가 부여되는 축제발전방안이 요구된다.

2.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1) 의견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그 동안에 시·군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해 오면서 도내 15개 시·군의 우수축제의 발굴·육성을 위해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여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서 직접 도내 축제를 평가하고, 도비 지원에 대한 축제선정과 도비지원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 축제육성위원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 조사개요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일 시 : 2019년 2월 8일 (금) 14:00~17:00
- 장 소 : 도청 회의실
- 대 상 : 축제육성위원 및 도청관계자
- 조사방법 : 의견조사표에 의견 서술형 제안

(3) 조사내용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충남 축제육성 및 지원정책 활성화 과제와 개선 방안
- 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항목 개선 방안
-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축제별 도비 지원액 개선 방안
- 충남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방안
-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세부적 보완사항
- 기타의견

2) 전문가(충남육성위원회) 의견조사 개최결과

(1) 충남 축제육성 및 지원정책 활성화 과제와 개선 방안

충남 축제육성 및 지원정책의 활성화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는 축제콘텐츠 및 조직 전문성 강화, 예산배정지침 마련 컨설팅과 사후평가 실시 등이 있다. 그리고 충남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 커뮤니티 지원, 전문가와 전문팀 등의 전문성 제고, 평가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표 3-26] 충남 축제육성 및 지원정책 활성화 과제와 개선 방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의 성장을 유도하는 평가’가 아닌, 종합적 편리성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수년째 상을 주고받지만 할뿐, 객관적으로 충청남도의 축제가 성장하는 모습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 콘텐츠가 성장하면 관광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콘텐츠보다 관광적 요소만 지속적으로 재촉하는 형국. ※ 예시) 현재의 평가 배점은 콘텐츠 35점, 나머지 65점은 사실상 운영문제(홍보, 행사 운영, 주민참여정도, 재정자립도, 개선의지 등)에 치우쳐 있음. 때문에 전문가는 열심히 평가하고 도청의 평가척도대로 따라와도 콘텐츠는 제자리 걸음하거나 매우 느리게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고수해 온 것임. 	관광요소와 더불어 콘텐츠 강화
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차원에서 축제의 테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기초지자체의 모든 축제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충남도가 중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테마를 선정 (예 : 서해안관광개발, 충남문화발전, 충남농촌 활성화 등)하여, 도는 이에 부합하는 축제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축제는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수행도록 구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축제별 전문조직(OO 축제재단)설립을 통한 축제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해야함 	도대표축제 육성과 조직전문성 제고
위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는 연간 총괄적 축제 평가를 통하여 축제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 지원 가능 금액을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차등배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축제의 규모 및 총 투입예산, 대응 투자 %, 현장 평가 점수, 해당 지역의 중장기 축제발전계획 등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을 세워 그에 따른 배분이 필요함 - 또한 재정적 지원이외에, 축제의 질 적인 부분에 있어, 지속적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지역축제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축제 본연의 목적이 축제 전반에 걸쳐 잘 표현되어 전국적으로, 나아가 글로벌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축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축제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다. 과거 방문객의 연령과 동행특성(가족, 친구, 연인 등) 등을 분석하여 주요 타깃마켓을 정하고, 그 타깃마켓의 공통적 홍보수단을 파악하여 집중적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축제의 발전적 운영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대한 지원으로 매년 “기대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예산배정, 지침마련, 컨설팅지원, 홍보강화, 사후평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커뮤니티 지원 : 축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임. 축제 담당자들이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할 단계. 기존에도 축제아카데미를 비롯해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축제 관계자들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만나서 서로 노하우를 나누면, 축제 체력이 높아지고 아이디어도 나오리라 생각됨. 거창한 주제 보다는 충남 축제를 만들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나누면서, 규모와 내용을 키우다보면 축제 수준이 업그레이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충남 축제 상호 협조 : 타 지역의 경우, 서로 축제를 홍보해주는데 충남에서는 그런 모습을 그다지 보지 못함. 축제 커뮤니티 형성과 함께, 협력을 도모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 시범적으로 축제들끼리 ‘시스템 축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함. 	축제 커뮤니티 지원
위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축제는 다른 도와 광역시에 비하여 전문적인 시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다른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충남의 축제는 매년 비슷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으며, 축제 정책 또한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실무담당자)의 교체가 빈번한 편으로 전문성을 띄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매년 트렌드를 파악하여 축제를 변모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전문팀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충남의 축제육성 의지가 도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충남의 축제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대도민 홍보활동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충남도의 축제 수는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됨. 새로운 축제의 개발보다는 기존 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충남도의 축제를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충남도 축제전문가 양성 정책도 동반되어야 할 것임 	축제담당공무원과 축제주체인력에 대한 전문성제고
위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평가 :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점검 - 평가 결과의 피드백 - 평가 결과의 성과 관리 	평가시스템과 결과 관리 강화

(2) 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의 평가항목 개선 방안

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의 평가항목 개선방안에서는 축제평가항목의 배점강화와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고, 평가항목에 운영주체의 전문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축제의 규모나 개선의지 항목 등에 있어서 평가항목의 구체화와 정책적 개선의향도 포함토록 하고, 일반적인 공통항목 평가 이외에 차별화를 위한 평가항목과 혁신에 대한 가산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재구성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평가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축제별 유형화를 통해 평가기준을 차별화하고,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로 세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3-27] 충남 지역향토문화축제 평가 항목 개선 방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프로그램 완성도 배점 대폭 강화. (지역적 특성을 참신하게 활용한 콘텐츠는 배점을 주도록 더욱 강조) - 기획서 배점 삭제 (기획서 좋았다고 관광객의 만족도에 영향없음) - 자치단체장의 육성이지 삭제 (자치단체장의 육성지를 전문가라 하여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며, 문화관광축제에서도 1-2년쯤 전에 삭제되었음) - 감정요소 삭제해도 무관 (핵심 콘텐츠 및 운영실태 평가에 다 포함되어 있음) - 축제운영은 종합적 운영상태와 안전관리실태 두가지로만 나뉘어도 충분히 포함함. 현재는 4개로 나뉘어 있음. 	평가항목의 배점강화와 항목조정 필요
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한계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 '축제전담조직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된 운영주체(조직)유무'를 평가항목에 추가 반영토록 해야함 - 평가항목 중 차별성, 대표성 항목의 비중을 높여 각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축제별 중장기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축제관련조직과 담당자들이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며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가 필요함 	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위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규모에 따른 보다 구체성있는 평가항목이 요구됨. 예를들면, 안내원 배치 등의 안내체계 점수에도 축제 규모 통로위치와 개수, 관광객 수, 위험성 여부 등을 고려한 인원 배정 등의 기준체계가 필요함. - 개선의지 항목은 향 후 축제의 발전가능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 위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후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 과 운영 방침을 세우는 방향으로 활성화 정책지원이 있을 경우, 이 항목에 대한 점수 상향조정이 필요함. 	평가항목의 구체화와 개선의지 포함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평가는 일반적인 공통 평가항목 외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항목 설정이 필요함. 문화예술축제와 생태축제, 농촌축제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항목으로 평가받고 있음. 기본적으로 축제의 운영과 발전역량 등에 있어서는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부분은 축제 성격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밖에 없음. 좀 더 디테일한 평가 항목에 대한 더 논의가 필요함. - 평가 항목 중 '혁신'에 대한 가산점 항목을 제안함. 과거에 비해 연예인 동원이나 의례 식순이 과도한 부분은 많이 줄었지만, 그다지 '새로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임. IT 기술이나 홍보 방법, 또는 안내 방법 등 축제 전 반에서 눈에 띄만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전에 과도한 연예인 동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점수를 감점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임. 	차별화 및 혁신적 평가항목과 가산점 반영의 항목 구성 필요
위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개최지역의 특성과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최될 수 있음. 그럼에도 문화관광축제와 충청남도 축제의 평가 기준은 모든 축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 축제의 주된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역사축제의 경우 역사적 의미의 반영정도, 예술축제의 경우 예술적인 수준, 에듀테인먼트축제의 경우 교육성과 오락성의 접목정도, 특산물축제의 경우 특산물 응용범위와 판매정도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시행중인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결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편임. 흥행에 성공하는 축제가 꼭 훌륭한 축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축제의 성격에 따라 양적 평가의 기준과 질적 평가의 기준을 배점의 차이를 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유형화된 축제 평가기준으로 차별화 필요
위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세부항목 : 1가지 이상 들어가면 2가지 평가의 어려움(1가지는 양호, 1가지는 미흡 시, 보통?)으로 향후 개선사항 항목 찾기 어려움 - 홍보분야 : 인터넷 홍보 내용 첨가 필요 - 행사주관 : 일반적인 평가 어려움 - 차별성 : 평가 세부사항 내용 명확화 - 주민 참여도 : 주민참여도와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인터뷰를 의미하는지...) - 개선의지 : 시장 군수 등 기관장 등의 개선의지를 평가단이 평가하기는 어려움. - 소요예산 확보 : 지자체 또는 전남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을 반드시 만나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서 평가단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음)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 세부항목 개선 필요

(3)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축제별 도비 지원액 개선 방안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축제별 도비지원액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축제성격과 등급제 실시와 컨설팅지원책 강화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지원예산 사용지침마련 및 지원금 차등화, 지원금 사후평가제 실시와 지원금 제정기준 마련, 지원금액의 고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몰축제의 지원방안 모색과 도비지원 비율과 축제수의 고정화가 필요하며, 일괄성 있는 도비지원액 기준 마련과 신생축제 및 소규모축제, 일몰축제의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더불어 도비지원금의 제도화와 차등지급금액 비율화 및 통폐합축제 인센티브 제시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3-28]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축제별 도비 지원액 개선 방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1축제 지원의 철학은 맞으나, 절대적이어서는 위험함. - 성격, 등급 구분하여 지원액 등급제 실시가 바람직. 아무리 지역 안배, 균등 발전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제도의 본질적 취지는 축제육성이지 운영비 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 - 관광형 축제와 향토문화 구현이 우선되는 축제를 구분하여 지원액 차등 명분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지역향토 축제가 차후 잘 성장한다면 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콘텐츠 구현능력도 부족하고, 재정자립은커녕 예산확보 능력부족, 참신한 상상력 부족, 외부 전문인력 네트워크 부족, 지역민들 참여조차 안 되는 수준의 축제들이 대부분인데 관광축제 되면 지원금주겠다고 혼란스런 교육을 시키는 셈임. - 컨설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축제를 별도 선정하여 금액지원과 컨설팅지원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축제성격과 등급제 실시와 컨설팅지원책 강화가 필요
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인 섭외 등 획일화된 무대중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 사용금지규정마련 등 지원예산을 통한 축제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도비지원은 축제마케팅, 홍보비사용 등 적정한 사용제한규정마련) - 연례적인 나누기식 축제지원액을 지양하고 글로벌축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외래 관광객 유치의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적극 지원하되 도비지원액은 외래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비용등에만 사용도록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도비지원액이 축제의 어느부분에 사용되었는가를 세밀히 사후평가하여 매년 발전정도를 피드백 할 필요가 있음 	지원예산 사용지침마련 및 지원금 차등화, 지원금 사후평가제 실시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는 연간 총괄적 축제 평가를 통하여 축제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매년 지원액도 상이함. 따라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간 일정한 혹은 소폭 상향되는 수준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고정된” 혹은 “대응 %따른 지원” 등 으로 수혜받는 지자체의 입장과 불필요한 예산조정 등을 줄여야함. - 도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액 기준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축제 평가 대상 축제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원체계는 다소 무리가 따름. 형평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지원금제정기준마련과 금액의 고정화 필요
위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로 빠진 축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축제들이 일몰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 성장이 멈추는 사례가 있음. 지원액이나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가로 진행해야겠지만, 일몰제 축제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함. - 도비 지원 비율을 매년 일정하게 가져가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축제 육성 방향을 ‘선택과 집중’ 으로 할 것인지 여러 축제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함. 도비는 매년 변경이 되더라도, 비율과 지원 축제 수를 일정하게 정해놓으면, 축제 담당자들이 목표표를 좀더 분명하게 설정하고 축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일몰축제의 지원방안 모색과 도비지원 비율과 축제수의 고정화 필요
위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도비 지원액은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액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임. 일관성있는 축제 지원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의 방식은 당해년도 절대평가를 통한 지원액을 책정하고 있으나, 신생축제 또는 소규모 축제의 경우 몇 년간의 추이에 따라 성장하는 축제는 도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축제 또는 일몰축제의 경우라도 충남도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축제는 도의 재량에 따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괄성 있는 도비지원액 기준 마련과 신생축제 및 소규모축제, 일몰축제의 지원책 마련
위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을 통해 명시하고, 금액이 아닌 비율로 명시하여 매년 지원액 변경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연말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명확화 - 차등 지원금액을 비율로 명시하여 액수에 따른 문제 발생 억제 - 지역축제의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시(예산의 효율성 및 축제의 규모화 유도) 	도비지원금의 제도화와 차등지급금액 비율화 및 통폐합축제 인센티브 제시

(4) 충남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방안

충남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평가전문가 선정 개선과 콘텐츠전문가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컨설팅 기능 추가와 민간전문기관 설립과 축제자립화, 글로벌 축제 집중 육성, 축제육성 지원제도와 기관설립과 평가제도 개선,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과 재방문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축제의 본질에 적합한 축제평가와 탈락 축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및 축제관계자에 대한 역량의 강화, 축제다운 축제의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표 3-29] 충남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방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지역전문가 배제, 외부적 시각 절대적 활용 충남 지역전문가의 역할도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적용을 해 왔고 한편으로 익숙한 관점이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향토축제의 구체적 콘텐츠 성격에 맞는 전문가와 축제전문가를 병행투입 분야별 세부 전문가들은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에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현실적 활용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음. 예시) 은행나무축제 - 숲전문가, 구석기축제 - 선사문화학자, 청바지축제 - 패션, 의류전문가 향토축제일수록 직무적 전문성보다 콘텐츠의 매력도, 성장가능성에 방점을 두어야 함. 지금 당장 홍보 못하고 운영 미비하다고 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진짜 가능성 있는 콘텐츠를 놓치게 됨. 	평가전문가 선정 개선과 콘텐츠전문가 활용성 제고
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축제육성위원회에 축제평가기능과 함께 공개적인 축제컨설팅기능을 추가하여 충남축제발전을 견인토록 해야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축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조직을 구성(가칭 -OO 축제재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일몰제 후에도 축제가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입장료 부과 및 축제를 통한 수익사업에 관련된 방안 모색 필요 향후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에 따른 외국인방문객을 고려한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필요 : 축제참가객 및 스태프대상 간단한 외국어교육 및 홍보자료, 안내판설치 등 	축제컨설팅 기능 추가와 민간전문기관 설립과 축제자립화, 글로벌 축제 집중 육성
위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방안을 위해서는, 법 제도 수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빅 데이터 등의 분석체계, 축제의 지속적 운영 및 발전성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축제육성지원센터를 구성해야함. 축제운영, 재정적 지원, 축제지원센터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평가분석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 축제 평가점수들이 바이어스되지 않도록 해야함 축제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축제의 전반적 총괄운영, 지속적 발전 체계 구축, 체계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축제의 연속적 발전이 가능함. 	축제육성 지원제도와 기관설립과 평가제도 개선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축제 홍보를 위한 공동 플랫폼을 제안한다. 충남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점 하나는 홍보임 -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 외에도,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 플랫폼이 있어 젊은 세대들을 끌어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며 내부 홍보보다는 외부 홍보, 온라인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방문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전략 마련. 성공한 축제의 경우, 재방문율이 높아 꾸준히 방문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재방문을 유도하는 할인 전략이나, 축제 경험 후기를 유도하는 등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문자와 관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 	통합홍보 플랫폼 구축과 재방문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위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응집체이자 지역문화를 계승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지정'이라는 제도로 축제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오기는 했으나, 이에 지정되지 않은 축제의 상대적인 박탈을 가져오기도 했음.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축제가 그러하듯이 축제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어우러진 것이어야 함. 평가제도에 의한 천편일률적인 평가기준은 오히려 고유한 지역문화의 과도한 '무대화'와 개최목적만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음. 이에 따라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충남도의 축제평가에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축제의 경우 홍보와 기획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충남도 내의 모든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전담기구, 홈페이지운영, 전문 인력양성 등의 노력이 요구됨. 전담기구와 전문 인력이 확보될 경우 현재 지원금 지급으로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제도를 축제별 전문가 지원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매년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공무원보다는 축제 스태프와 지역주민)를 대상으로 꾸준히 축제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축제는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축제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지역주민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며 축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 도출은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축제의 본질에 적합한 축제평가와 탈락축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축제관계자에 대한 역량의 강화
위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다운 축제 발굴 및 육성 	축제다운 축제 육성

(5)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세부적 보완사항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세부적인 보완사항으로는 충남형 특성 축제평가척도 개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의 지양과 비수기 축제의 지원정책, 평가결과 반영 및 점검의 추진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일몰대상 축제의 활성화방안의 모색과 공정한 축제평가방식 마련 및 평가축제 대상 범위 확대, 평가단에 문화원장의 구성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표 3-30]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세부적 보완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척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장점만 가져와, 충남지역의 개성적인 축제컨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지금과 같이 문화관광축제를 따라가야 하니, 무조건 똑같이 하는 방식은 결국 지역적 개성있는 축제를 걸러내고 유도해 내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더 그럴 것으로 보임. - 청바지축제, 은행나무축제 등 윤력능력은 부족하나 콘텐츠 자체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들은 별도 컨설팅그룹으로 분류하여 지원방식 모색 -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석장리 구석기 축제, 서동연꽃축제같은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전문가 컨설팅 과정을 매우 정밀하게 정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관광학과 교수들의 경우 실제로 어떤 분야의 전문·전공인지 구분필요. 호텔경영 전공, 조경전공, 조리전공 등 전문성을 너무 간과해서 문제가 됨.(실제 컨설팅 과정에서 전공이 연관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문화관광축제 평가에서도 지역 축제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평가자들의 전문성에 있었음.) 	충남형 특성 축제평가척도 개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
위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과 같은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공연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노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유도 (단 노래자랑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노년층을 위해 부분적으로 실시는 고려하되 축제의 중심선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 비수기시즌 경제침체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비수기시즌 축제 지원정책 강화 (예 : 1월 공주 군밤축제) - 축제현장평가제도를 통한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 컨설팅에서 나온 자문내용의 수행여부등을 매년 점검토록 해야함 	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의 지양과 비수기 축제의 지원정책, 평가결과 반영 및 점검 추진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축제장 공간 배치” , “진입로, 안내원 배치의 적정성” 등의 항목의 점수 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제안 중 하나는, 현재는 연간 평가로 이루어지는 축제 평가에서, 지속적 발전지원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연속 3년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지역축제의 경우 (물론 문화관광축제로 승급될지라도) , 도 차원에서 추가적 지원(재정적, 체제적, 운영적 지원 포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과 지속발전체계로 전환
위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로 지원받지 못한 축제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일몰대상 축제의 활성화방안 제안
위원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축제 평가는 평가위원이 각각 방문하는 축제는 2~3개로서 대다수의 평가위원이 실제 축제를 방문하지 않고 보고서에 의존하여 평가를 하고 있음. 그나마 평가위원이 방문평가한 결과는 최종 평가보고서에 적용되지 않고 있었음. 축제평가를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금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음. 지자체별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평가와 지원금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시군별로 신청한 축제에 대하여 충남도에서 (일시적 또는 시범적으로라도) 축제평가팀을 구성하여 동일한 시각에서 모든 축제를 평가해보는 것도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공정한 축제평가방식 마련과 평가축제 대상범위 확대
위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단 구성에서 문화원장 의무화는 충청남도 축제의 향토축제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됨. 	평가단에 문화원장 구성 의무화

(6) 기타의견

기타의견으로는 축제명칭 구체화와 일정 고정,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며, 충실화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반영 및 후속조치 강화, 정기적인 축제의 실태와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현장평가의 투명성과 개선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31] 기타의견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위원 2	<p>*축제의 명칭 선정에 고심할 필요가 있음. 명칭만 보고도 축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축제의 킬러콘텐츠를 반영한 네이밍브랜드 개발필요 (예 : 홍성역사인물축제(누군지모름. 모호함) ⇒ 홍성성삼문축제, 홍성김좌진축제 등 명확한 명칭으로 연도별추진)</p> <p>*외지인유치를 위해서는 축제개최일의 고정화가 필요함. 수도권또는 해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행업체의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축제개최기간이 고정되어 있어야 상품화가 용이하며 이러한 상품이 적어도 3년이상 동일시기에 판매될 때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음</p> <p>*축제방문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함 국내지방축제, 특히 충남지역 축제는 지역내에서의 홍보는 수행하고 있으나 대도시 수도권 특히 해외마케팅은 전무한 실정임. 축제개최일의고정화와 아울러 지역외, 국내외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축제명칭 구체화와 일정고정, 마케팅 강화 필요
위원 3	<p>현재 축제육성위원회의 현장평가 시, 평가하는 축제의 보다 상세한 자료들을 제공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듯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된 축제의 사후평가를 통해 Feedback이 있어야함. - 개선점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사항을 체크하는 장치마련과 - 익년도 축제의 해당 부문의 향상도 측정이 가능토록 해야 지역 향토축제의 보다 발전성을 이끌어낼 수 있음 	평가자료의 충실화와 평가결과의 반영 및 후속조치 강화
위원 5	충남도 차원에서 5년이나 10년 간격으로 충남도내의 축제를 전수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축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평가와 지원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꾸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기기적인 축제의 실태와 평가제도 개선방안 모색
위원 6	현장평가의 투명성, 개선사항 확인	현장평가의 투명성과 개선사항 확인 필요

3) 종합정리 및 시사점

(1) 충남 축제육성 지원정책에 대한 부문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충남 축제의 육성 및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콘텐츠 및 조직 전문성 강화, 예산배정지침 마련 컨설팅과 사후평가 실시, 축제 커뮤니티 지원과 전문가와 전문팀 등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시스템에 대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평가항목의 업그레이드와 개선 추진

충남 향토문화축제의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에서는 축제평가항목의 배점강화와 항목의 조정, 평가항목에 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축제의 규모나 개선의지 항목에서는 평가항목의 구체화와 정책적 개선의향도 포함토록 하였다. 더불어, 축제평가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차별화하고,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로 세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축제평가에 따른 등급별 도비지원액과 방식의 개선 필요

축제평가에 따른 도비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축제성격과 등급제 실시, 컨설팅지원책 강화뿐만 아니라 지원예산 사용지침마련 및 지원금 차등화, 지원금 사후평가제 실시와 지원금 제정기준 마련과 지원 금액의 고정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일몰축제의 지원방안 모색과 도비지원 비율, 축제수를 고정하고, 일괄성 있는 도비지원액 기준 마련과 신생축제 및 소규모축제, 일몰축제의 지원책 마련 등과 더불어 도비지원금의 제도화와 차등지급 금액 비율을 고정하는 한편, 통폐합축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방안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충남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인 육성 대책 요구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평가전문가 선정 개선과 콘텐츠전문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축제컨설팅 기능 추가와 민간전문기관 설립, 축제자립화, 글로벌 축제 집중 육성, 축제육성 지원제도와 기관설립과 평가제도 개선, 통합홍보 플랫폼 구축과 재방문객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축제의 본질에 적합한 축제평가와 탈락축제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및 축제 관계자에 대한 역량의 강화, 축제다운 축제의 육성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충남 축제평가제도의 세부사항의 업그레이드 필요

축제평가제도에서는 충남형 특성 축제평가척도 개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의 지양과 비수기 축제의 지원정책, 평가결과 반영 및 점검의 추진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몰대상 축제의 활성화방안의 모색과 공정한 축제평가방식 마련 및 평가축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평가단에 문화원장의 구성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6) 축제명칭의 개선과 마케팅 강화 제안

기타의견으로는 축제명칭 구체화와 일정 고정, 마케팅 강화 및 충실화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반영과 후속조치 강화, 정기기적인 축제의 실태와 평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평가의 투명성과 개선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의 도출

1)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와 지원제도 변화에 대한 시사점

(1)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변화에 대응 필요

① 중앙정부 축제제도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대응방안 모색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주도형 축제의 경우 축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축제평가제도는 예산 중심 지원에 따라, 축제 평가가 개선보다는 예산확보를 위한 평가로 지속되고 있어 평가제도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축제제도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② 축제평가를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함에 제도개선 필요

축제평가의 방식·방법은 대부분이 현장방문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축제의 일부는 행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 등 단계적인 평가방식도 이루어졌지만 이는 일부 축제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제 평가방식을 정량과 정성적 평가 방식을 병행하면서, 축제 전, 축제기간, 축제 후 등 단계별로 사전 컨설팅과 현장평가, 행사 후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의 적용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③ 축제평가에 따른 지원금 및 지원인센티브의 다양화 추진

중앙정부에서는 축제의 평가 후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예산을 지급하였다. 축제평가 후 이러한 예산중심의 인센티브 제공은 실질적인 축제 발전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축제평가가 예산의 지원이나 확보 수단이 아닌 축제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원 인센티브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④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와 모니터링이 요구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축제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평가를 하지 않는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 주관자의 자체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지방정부 축제에 주는 시사점

① 중앙정부 국비지원 타당성 확보방안에 사전 준비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역축제에서 소액축제에 대하여 국고지원의 단계적 일몰 적용계획에 맞추어 문화관광축제의 인증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축제의 집중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국비 지원의 타당성 확보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② 글로벌 및 인증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문화관광축제의 인증제와 관련하여 추진 기관, 인증 시기, 인증 평가시기(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인증기준, 인증기관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하고 명확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선정대상, 선정방법, 선정규모, 예산 지원 기간, 평가지표도 정부는 새로운 문화관광축제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업무매뉴얼 개발과 이를 기초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글로벌 및 인증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③ 문화관광축제와 같이 지역축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마련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시스템을 평가위원 다변화, 평가위원의 평가지표 합리성 제고, 평가방식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④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중심에서 진흥중심으로 정책변화에 대응

문화관광축제가 평가중심 정책에서 진흥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정책 다변화가 추

진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축제 목표와 축제특성에 따른 정책 다변화를 모색하여 축제별 컨설팅과 교육과 지역 내 축제의 연합체 구성, 축제를 공유하는 아카이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축제 펀드를 조성하여 축제의 자립화와 축제기획 관리에 대한 축제지식 제공 등 축제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⑤ 축제평가 방식의 변화에 따른 사후 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대응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평가 지표에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를 도입하는데 빅데이터의 평가지표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글로벌 축제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대응방안 모색 필요

지역의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글로벌 축제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축제 및 대표축제 등 성과를 검증하고 해외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 대해서는 충남도 자체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을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

⑦ 축제전담조직 신설 유도 및 축제인력 전문성 등 강화정책을 추진

문화관광축제는 지역축제의 전담조직과 실무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지역축제의 질적 발전에 관건이다. 세계적 수준의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축제의 전담조직 설립운영과 문화·관광 기획자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의 지원 필요하다. 특히, 문화관광축제 상위등급 축제 담당자 대상으로 심화과정으로 해외 홍보 및 마케팅전략, 해외 우수축제 사례 조사 및 실무자 강연, 선진 축제 답사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다. 문화관광축제 하위등급 축제 담당자 대상으로는 일반 과정으로 축제 기본 이론, 축제 콘텐츠 및 브랜드개발전략, 축제 분야별 전략(기획, 운영, 홍보·마케팅 등), 국내 우수사례 소개 및 답사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축제전담 공무원 대상으로 축제 기획·경영 실무매뉴얼 개발 보급을 통해 축제전문성 함양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킬 수도 있다.

2)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분석의 시사점

(1) 축제평가제도의 획일성 개선

충남지역의 축제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축제의 양적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경쟁력이 높은 축제는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러한 축제평가제도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제육성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축제의 형식과 종류, 소재에 국한한 평가체계에서 장점을 유지하되 신규축제의 진입이 활발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평가체계의 속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시군별 축제평가제도의 강화

충남의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축제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이들 시군은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이 충남도의 축제관련 자치법규와 유사하다. 충청남도도 광역자치단체의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수가 다양하므로 시군별 자치법규는 세부시행령을 따로 정하여 선언적 내용의 축제관련 자체법규를 광역자치단체의 형식과 내용에서 준용하던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시군별 축제경쟁력 강화는 축제 간 선의의 경쟁과 지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충남의 축제육성 관련 조례 취지가 시군에도 연계 적용하여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비상설 축제의 추진체계 구축과 전문성의 제고 필요

축제의 실질적인 추진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존재 여부는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축제의 추진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사무국이 있는 축제 중 비상설이 67개를 차지하며, 연중 상설로 운영되는 상주직원이 있는 사무국은 15개이다.

중장기적으로 축제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축제의 상설조직체계가 구축되고, 사무국 근

무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향후 평가와 지원항목에서 축제조직의 상설화와 축제의 사후관리, 전문성과 숙련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도축제 평가제도와 시·군적용의 일체화와 다원화된 평가 방안 모색

도축제 평가제도와 시군적용의 어려운 점은 각 시군별로 평가지원 제도와 평가체계가 일체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비지원축제와 같이 세부적인 평가와 차등지원은 일부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충청남도가 개최하는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의 지속적인 관리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성의 배양, 다원화된 평가 및 지원체계, 선의의 경쟁과 균등한 성장기회가 부여되는 축제발전방안이 요구된다.

3)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의 시사점

(1) 기존 축제육성 지원정책에 대한 부문별 개선 추진

현재 충남 축제의 육성과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와 시군에서 개최되는 각 축제에 대한 콘텐츠 및 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예산배정의 지침 마련뿐만 아니라 컨설팅과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각 축제별로 커뮤니티 지원과 전문가 전문팀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축제 평가시스템에 대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2) 축제평가항목의 개선과 평가기준의 차별화

충남 향토문화축제의 평가항목 개선의견에서는 축제평가항목의 배점 강화와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평가항목에서 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의 규모나 개선의지 항목에서는 기존의 축제평가항목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정책적 개선의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충남 각 시·군의 축제 평가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기존에 축제의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로 세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축제평가 결과 도비지원액의 등급화와 지원방식의 개선

축제를 평가한 후에 평가에 따른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축제성격과 등급제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달리하여 실시하고, 도비 지원에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비 지원예산에 대한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도비 지원금을 차등화하면서, 도비지원금 사후평가제 실시와 함께 지원금의 세부적인 제정기준의 마련과 지원 금액의 고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문화관광축제와 같이 도비지원 축제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지원방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하는 액수에 대한 비율과 축제수를 고정하고, 일관성 있는 도비지원액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생축제 및 소규모축제, 일몰축제의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기존에 시행되던 도비지원금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차등지급에 대한 지원 금액 비율을 고정하는 한편, 통폐합축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방안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인 육성 대책 필요

충남의 향토문화축제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제평가를 실시하는 전문가 선정에 대한 개선과 콘텐츠전문가의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고, 더불어 축제의 평가뿐만 아니라 축제컨설팅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의 자립화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설립과 문화관광축제의 트렌드 변화에 맞춘 글로벌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축제육성 지원제도의 개선과 축제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설립과 기존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나아가 충남과 시·군 축제를 통합한 홍보 플랫폼 구축과 축제 재방문객을 위한 지속적 유치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충남의 고유한 축제의 본질에 적합한 축제평가의 실시와 탈락 축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와 각 시·군의 축제관계자에 대한 역량의 강화와 축제다운 축제의 육성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5) 축제평가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축제평가제도는 충남형 특성 축제 평가척도 개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축제에서 이루어졌던 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의 지양과 비수기 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된 축제의 결과를 반드시 다음 축제에 반영이 되도록 점검을 하고 축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발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몰대상이 되는 축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각 시·군에서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축제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도내의 평가축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축제평가단에 각 시·군의 문화원장을 축제육성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6) 현대적 수요에 맞도록 축제명칭으로 변경과 마케팅 강화

지역의 정체성과 현대인들이 인식과 수요에 적합한 축제명칭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유동적인 축제기간에 대한 일정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남도와 각 시·군별 축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소마케팅을 병행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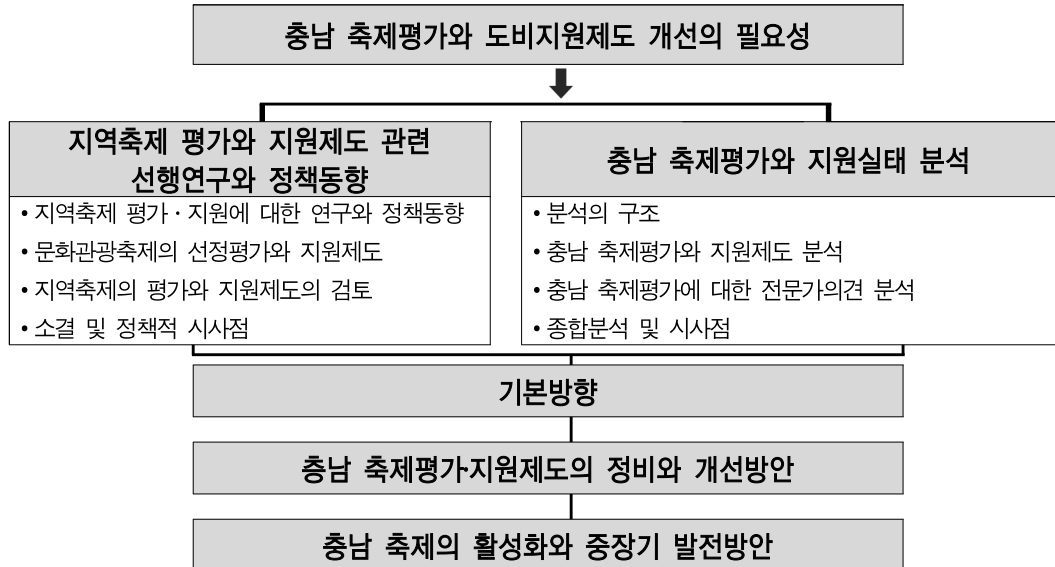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축제평가결과의 반영과 후속조치 강화와 충남도와 각 시·군 축제의 실태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1. 접근 틀과 기본방향

1) 접근 틀

본 연구에서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접근 틀은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접근 틀

2) 기본방향

지역축제 평가·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동향, 문화관광축제의 선정평가와 지원제도, 지역 축제의 평가와 지원제도 사례 검토뿐만 아니라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분석,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1) 문화관광축제 변화에 따른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도입
- (2) 충남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및 세부지침 마련
- (3) 비평가와 비지원 시·군별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과 육성
- (4) 도비지원제도의 체계화와 시군별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 (5) 차별화된 지역 축제의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2.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 정책과제

1) 성장형 효율적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개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따른 자치단체 역량의 제고와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그리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등지원제도의 재검토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①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축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부터는 줄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성장형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축제의 중간평가 실시, 개선 및 성장 유도를 위한 진단형 평가실시, 연차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평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충남에서는 ① 중앙정부 축제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필요, ② 기존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 추진, ③ 축제평가 방식·방법의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④ 축제평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지원인센티브 제공의 다양화, ⑤ 축제주관자의 자체적인 축제의 평가 또는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2)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충청남도는 경쟁력 있는 우수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비지원축제 제도를 운영해왔다. 도비지원축제는 현장평가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선정되고 보조금지원이 결정된다.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시군에 의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축제를 신청하고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평가지표에 따라 현장평가가 실시된다. 이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지원축제가 선정되며 이듬해 초 보조금지원이 결정된다.

충남도 지원축제의 평가는 크게 현장평가와 축제육성위원회의 서면심의에 의해 지원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현장평가는 시군에서 추천한 축제 당 충청남도 육성위원 3인 내외로 평가반에

의해 진행되며, 축제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평균점수로 40%가 반영된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충남축제의 지원제도는 축제의 양적성장에 비해 평가체계의 획일성으로 차별화 경쟁력이 높은 축제는 양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시군별 평가 및 지원제도가 미비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수가 다양하므로 자치법규도 세부시행령을 따로 정하지 못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과 시군별로 연계될 수 있는 시행체계와 운영지침이 갖추어져야 한다.

3)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지원제도의 대응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는 4등급제(대표-최우수-우수-유망)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대상의 축제들은 매년 등급상승에 과도한 정책역량을 소모하여 장기적인 축제육성을 어렵게 하였고, 축제문화 서열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축제의 일몰제 실시는 대표-최우수-우수축제 등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기간을 10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비지원 중단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축제의 지속 발전과 세계적 축제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일몰제의 실시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축제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도별로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축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2017년에 93개 축제 중 13여개가 도비지원축제로 선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80여개의 축제는 도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비지원에서 비평가되고 있는 시·군축제에 대한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4)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지역축제 지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지역축제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지원은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며, 지원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의 근거와

전제로서 축제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축제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축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을 통한 자립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예산지원 중심의 재정 지원과 함께 기획 및 홍보에 대한 지원, 간접적인 행정지원 등 지원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추진주체들의 확실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개선하고, 축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 축적으로 축제 운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5) 축제 관련 전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

축제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축제의 조직 운영 주체는 대개는 편의상 크게 민·관 주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관주도형 축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에 있어서도 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관주도형 축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전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축제조직위’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상당수의 축제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며, 축제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한다면 축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축제조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하겠다.

축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축제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실제 지역축제의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기능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 관련 조직의 구성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지역축제의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참여주체의 문제이다. 지자체 장이나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지원조직이 아니라,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가진 전문가 및 지역주민 중심의 생산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충남 축제평가·지원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

1) 충남형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충청남도에서도 2003년부터 지역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축제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한 축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충남에서도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선정과 충남의 브랜드축제로 육성

① 충남의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전략적 선정과 육성

문화관광축제는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8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의 부재와 축제문화의 서열화 및 획일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이 바로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실시이다. 이러한 제도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정책목표

- 세계인이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육성

○ 지원사업명

- (시범) 2019년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
- 육성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광·역시도, 해당 지자체
- 선정대상
 - 문화관광축제를 명예 졸업한 대표 축제
 - * 2019년 글로벌 육성 축제(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한 명예축제)
 - :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선정규모
 -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1개 선정(2019년 시범선정 후 확대 실시 예정)
- 예산지원
 - 최대 15년 지원(5년 마다 중간평가 실시 및 피드백)
- 관련법 개정
 -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지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평가개선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 도입
- 지원내용
 - 축제지원센터 지원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관계자 교육·워크숍, 사전 컨설팅, 빅데이터 정보제공, 홍보마케팅, 기업 스폰서 유치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에서는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도록 현행 글로벌육성축제 지원을 체계화 하고, 직접재정지원 종료(일몰) 축제에 대한 후속 지원체계로써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축제 성장·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중앙·지역 축제 지원 전담조직을 통한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도 충남에서도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직접 재정지원이 종료된 축제에 대해 일정요건이 충족될 시에 문화관광축제의 명칭

사용과 간접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지원을 부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글로벌육성 축제 5개에 대한 집중 지원은 유지하되, 축제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간접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충남에서도 기존에 일몰된 금산임삼축제와 천안홍타령 축제도 이 제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1] 문화관광축제의 강화된 간접지원 단계 지원사업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지원 규모	5개 - 보령머드축제, - 안동국제탈춤축제 - 진주남강유등축제 - 김제지평선축제 - 화천산천어축제	총 10개 이내 (기존 5개, 신규 5개 이내) <재정지원 종료 축제(예시)> - ('20년 : 대표 2, 최우수 2) (대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차사발축제, (최우수) 이천쌀문화축제,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 ('13~'14년 : 최우수 5) 금산임삼축제('13년), 함평 나비축제('13년), 하동 야생차문화축제('13년), 천안 홍타령축제('14년), 양양 송이축제('14년)	
지원 예산	'19년 11억원 (건설팅 1억, 관광상품개발 5억, 관광수용태세개선 5억)	'20년 23억원 (건설팅 3억, 관광상품개발 10억, 관광수용태세개선 10억)	관광공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지원
지원 대상	글로벌육성축제 5개 문화관광축제 '대표' 등급 연속 3회 또는 5회 직접 재정지원 받은 후 재정지원 종료된 축제	• 기존 5개 축제(유지) • 직접 재정지원 종료(일몰) 축제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선정된 축제 - '20년 종료 축제(대표2, 최우수2, 우수1) 및 기존 일몰 축제(최우수 5, 우수 3) 중 선정된 축제	
선정 방법	별도 선정 없음 (직접 재정지원 종료 후 축제 명칭부여한 후 지원)	• 기존 5개 축제 : 별도 선정 없음(기존 동일) • 신규 5개 이내 : 일정요건 심사 후 선정 * (일정요건 예시) 기존 축제등급 및 등급별 선정 횟수, 축제 자생력, 축제지원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 3년간 방문객 수 및 증가율 등	
자격 및 혜택 부여	명칭부여, 간접지원 (('11~'14) 명예대표축제 (('15년부터~현재까지) 글로벌육성축제	• 명칭 사용 자격부여 - 기존 5개 축제 :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 신규 5개 이내 : 명예 문화관광축제 • 간접지원 - 기존 5개 축제 : 강화된 간접지원 사업유형 모두 지원 - 신규 5개 이내 : 사업유형 중 택 2개, 지원 신청 * 축제별 간접지원사업 수요조사, 건설팅 등 실시 예정	재정지원 종료와 함께 '문화관광축제' 명칭(브랜드) 사용 중단 등으로 홍보마케팅 문제, 지원축소 등 애로사항 고려
지원 기간	매년(단년 계속)	• 매년(단년 계속). 단, 지원사업(과제)별 성격에 따라 지원사업내 과제 단위 다년간(최대 3년) 지원 가능 * (예시) 관광상품개발, 관광수용태세개선 등 연도별 2~3년 소요 시 최대 3년 범위내 지속 지원	
비고	-	중간평가 도입 검토 (빅데이터 기반 추이 분석 등 연계 평가) →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지속 여부(자격, 혜택부여 지속 여부) 결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실시하면서 충남에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보령머드축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 시도의 경쟁 대상인 화천산천어 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등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는 우선 1개 축제를 선정하고, 이 후 3~5개의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를 선정 및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적인 평가준비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를 충남의 브랜드축제로 선정 개최

지역 마케팅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홍보활동으로서 이는 크게 휴가 마케팅(Vacation marketing)과 사업 장소 마케팅(Business site marketing)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http://100.daum.net/encyclopedia>).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광객이나 기업체 시설 유치를 위하여 지역 마케팅의 일환으로 축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 충남의 브랜드 축제로 선정하여 지역의 장소마케팅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 제도의 실시하면서 충남에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보령머드축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 시도의 경쟁 대상인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등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는 우선 1개 축제를 선정하고, 이 후 3~5개의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를 선정 및 육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전략적인 평가준비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 일몰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글로벌 육성축제로 육성 추진 :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등
 - 보령머드축제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제적 메가이벤트로 업그레이드
 - 금산인삼축제 : 금산인삼축제의 홍콩 및 베트남 현장 개최 등 글로벌 축제로 육성
- 2019년 현재 문화관광축제의 등급 상향 방안 : 유망축제 4개 시·군
 - 한산모시문화제 : 국제적 패션쇼 등과 의류 관련 국제박람회로 글로벌 축제화
 - 서산해미읍성축제 : 서산해미읍성, 유방택 별축제와 연계한 조선시대테마형 글로벌 축제화 추진
 - 논산강경젓갈축제 : 동남아와 유럽 등의 생선 발효음식 관련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
- 백제문화제의 글로벌 브랜드축제로서 개최방안
 -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등 연계 한·중·일 고대 역사문화 글로벌 축제로 육성
-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육성방안 도입
 - 내포지역의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내포국제무형문화대전'을 국제행사로 개최

(2) 충남도비지원축제의 인증제 실시 : 시·군축제 평가제 실시 연동

①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등급과 명칭의 변경

충청남도 축제의 평가는 2003년부터 도비지원축제 제도를 운영하여 2007년에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비지원을 위한 축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라 도비지원액을 결정하였다. 2018년에는 도비지원을 위한 등급으로는 대표축제 1개, 최우수축제 1개, 우수축제 2개, 유망축제 5개 등 총 9개의 축제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서 충남의 도비지원축제도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의 등급과 명칭 변경 및 기존의 자체적인 축제평가제도를 업그레이드 하여 축제등급과 명칭의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문화관광축제’로 별도의 등급과 명칭으로 관리를 추진함

- 예시 :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한산모시문화제 등

○ 문화관광축제가 단일등급제로 전환 될 경우 이에 대응한 등급제를 실시

- 기존의 대표·최우수·우수·유망축제 등은 문화관광축제의 등급과 동일한 형태였으나 이들 등급제의 변화에 맞도록 변경 추진(*2019년까지는 등급제를 그대로 반영함)

○ 지역향토문화축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비지원육성축제 지원 명칭제도 실시

- 도비지원의 과다한 경쟁을 막고 질적인 지역축제 육성명칭 지원제도로 도입 추진

② 시·군별 충청남도육성축제 인증제와 선정축제의 컨설팅 지원 실시

충청남도는 그 동안에 축제에 대하여 도비지원 행사비뿐만 아니라 매년 3개 내외의 축제를 선정하여 각 10백만 원씩 컨설팅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을 별도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서 2019년에는 아산시 은행나무 축제, 서산시 지곡 왕산포 서산갯마을 축제, 예산군 예산장터 삼국축제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강화하여 충청남도의 육성축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육성축제로 지정된 축제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제도를 실시토록 추진한다.

○ 기존 컨설팅 지원축제 선정 및 각 10백만 원의 컨설팅비 지원제도 개선

- 충청남도 육성축제 인증축제 선정(5개소) : 각 20백만 원씩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

③ 도비지원 대상축제에 대한 시·군 축제 자체평가제 실시

앞에서 충남 시·군 지역 15개 시군의 축제평가 및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내 축제와 관련한 자치법규 또는 조례를 제정한 10개 시군에서 일부의 경우 평가항목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어떤 시·군에서는 평가와 지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결과가 지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불명확 하는 등 평가제도가 각각 다르고, 도비지원축제의 평가와는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를 제외하고 9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충청남도의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의 축제평가 및 지원제도는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충청남도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 육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군의 축제평가도 충청남도의 축제평가와 연계하여 1차적으로 시·군의 자체 축제평가를 실시한 대상만을 도비지원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 시·군 축제 자체평가제 실시 -----> 도비지원축제 대상축제 지원자격을 부여

- 기존에 도비지원축제는 시·군 자체평가를 하지 않은 축제도 평가대상으로 하였음

(3) 축제평가에 빅데이터 정량지표 반영 추진

① 문화관광축제 대상 및 도비지원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지표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지표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에 이 방법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빅데이터(카드사, 통신사, SNS 등)를 활용한 정량지표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및 중장기 계획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축제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며, 필요한 정보는 해당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 제공하여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방문객 수와 시간 관련 데이터
 - 당일 이용객 수, 숙박 이용객 수
 - 주요 이동동선, 체류시간, 재방문을
 - 관광목적지
- 방문객 행태와 소비 관련 데이터
 - 업종별 매출, 축제 소비효과 분석
 - 복지/여가 계층분석, 소비/트렌드 분석
 - 외국인 소비 분석, 고객 특성 분석
- 검색어와 키워드 관련 분석
 - 연관 검색어, 긍정/부정 키워드
 - Buzz량 분석, 키워드 분석, 계정 분석

② 유인측정에 의한 입장객수 측정방식의 도입

축제의 방문객 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유인측정에 의한 입장객수 측정방식을 문화관광축제와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축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의 도비 지원축제도 유인측정에 의한 입장객수 측정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한다. 유인측정에 의한 방문객 수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집계 방향
 - 축제 기간 중 집계 일시 지정, 집계 일별 운영시간, 집계 주관자 등
- 집계 방법
 - 측정방법 : 유인측정
 - 측정인원 : 00명/1일(0교대)
 - 측정기기 : 디지털 핸드카운터, 자동계측기 등
- 집계 장소
 - 축제 장소 유형 : 유형별 분류
 - 축제장 면적 : 주출입구와 간이 출입구의 위치, 집계 범위 지정

(4) 현장평가 이외에 사후평가, 사전컨설팅 및 환류시스템 강화

① 현장평가와 사후평가에 대상축제의 선정과 도입

충청남도의 도비지원축제는 현장평가와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선정되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2018년도 각 시군에서 평가 신청된 축제는 16개로 위촉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현장평가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현장평가 이외에도 사후평가를 통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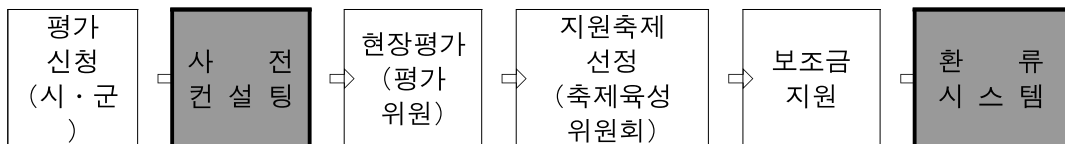
○ 현장평가 -----> 사후평가 사전컨설팅 및 환류시스템 강화

- 현재는 시·군에서 편장평가를 신청하면 평가위원은 현장평가를 통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고 있음

② 사전컨설팅과 환류시스템을 강화

충남 도비지원축제의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시군에 의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축제를 신청하고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에 의해 평가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축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현장평가 이외에도 사전컨설팅과 환류시스템을 통한 강화로 도비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표 4-2] 지원축제 선정과정에 사전컨설팅과 환류시스템 강화



○ 기존 현장평가 후 도비지원축제 선정 -----> 사전컨설팅 및 환류시스템 단계로 강화

2)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충남의 축제평가제도는 그동안의 운영의 과제를 분석하여 과제를 찾고 도비지원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다면적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시·군별로 축제 자체평가 심사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1) 다면적 축제평가체계로 전환과 평가항목의 보완·운영

① 일원화된 축제평가에서 다면적 축제평가체계로 전환

충청남도 축제는 현재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이 매년 현장평가 대상축제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비지역축제를 평가하는 일원화된 축제평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의 충남축제제도에 대한 분석과 축제육성위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분석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바와 같이 일원화 된 축제의 평가보다는 다면적 축제평가체계로 변화를 통한 질적성장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면적 평가를 위해서 1단계로는 시·군의 도비지원 대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2단계로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평가와 3단계로 사후평가를 통하여 축제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1단계 : 시·군 도비지원 대상 의무평가 실시

- 매년 도비가 지원 대상이 되는 축제는 의무적으로 도의 평가항목과 동일하게 자체평가를 통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함

○ 2단계 : 충남 축제육성위원회 현장평가 반영

- 기존에 매년 방문하여 실시되고 있는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들의 현장평가를 통한 평가를 반영토록 함

○ 3단계 : 사후평가를 통한 축제의 차년도 축제개선을 유도

- 전년도에 1단계와 2단계에서 평가된 평가내용에 대한 해당 년도의 축제평가 결과 반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축제의 개선과 활성화 유도

② 축제평가항목의 보완·운영

축제의 평가는 개최시기에 현장을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는데, 2002년부터 시작된 주요 평가항목은 6개 분야 15개 항목이었다. 그리고 배점기준은 양호·보통·미흡 등 3등급으로 세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점수로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3] 2003년 충남축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평점
1. 홍보분야(15)	가. 사전홍보(5)	○사전 홍보물 제작배부 사항(부수, 시기 등) ○신문방송라디오 등 홍보방법, 횡수 등 평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나. 행사기간홍보(5)	○거리, 지역의 축제분위기 조성 정도 ○행사장의 홍보방법 등 고려 종합평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다. 안내체계(5)	○진입로, 행사장 등 안내원 배치, 적정성 등 평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2. 행사준비 진행(15)	가. 행사장 배치(5)	○축제場 공간의 배치,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등 이용편의 여부 등 평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나. 행사주관(5)	○행사 주관단체의 인적구성, 전문가 배치 등 ○행정기관의 협조지원 등 고려 평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다. 편의시설(5)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배치 상태 등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3. 프로그램(25)	가. 주제관련성(5)	○프로그램이 축제 주제와 적합성이 있는지 여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나. 차별성(10)	○축제가 他축제에 비해 차별화특성화 가능성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양호	10~8		
			보통	7~5		
			미흡	5미만		
	다. 대표성(5)	○그 축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개발되었는지 평가	양호	5~4		
			보통	3~2		
			미흡	1		
4. 주민참여도 (15)	가. 주민참여도(10)	○프로그램, 행사진행 전반에 지역주민의 참여도,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	양호	10~8		
			보통	7~5		
			미흡	5미만		
	나. 유관기관 협조체계(5)	○행사에 대한 지역유관기관의 참여도, 호응도 평가	양호	10~8		
			보통	7~5		
			미흡	5미만		
5. 개선의지(20)	가. 개선사항(10)	○지난해 문제점의 개선 여부 ○프로그램, 운영면 등 종합적으로 개선사항 평가	양호	10~8		
			보통	7~5		
			미흡	5미만		
	나. 개선의지(10)	○시장군수등 기관장, 주관단체의 개선의지 등 종합검토	양호	10~8		
			보통	7~5		
			미흡	5미만		
6. 소요예산 확보(10)	가. 보조금 지원(5)	○道費보조에 따른 市郡費 부담시행	도비이상	5		
			비율보조	3		
			미만	1		
	나. 자체예산확보(5)	○자체예산 확보 사항	50%이상	5		
50%미만			3			
6분야	15항목		100점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03)

그리고 전문가의 현장평가에 대한 보고서 양식은 평가항목에 맞추어 행사개요를 정리하고, 홍보·안내, 행사진행 준비사항, 프로그램, 주민참여도, 개선사항 및 의지를 서술적으로 평가하였다. 더불어 이를 종합평가 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토록 하였다.

〔표 4-4〕 2003년 전문가 평가보고서 양식

항 목 별		내 용
행 사 개 요		
항 목 별 평 가	1. 홍보·안내	
	2. 행사진행 준비 사항	
	3. 프로그램	
	4. 주민 참여도	
	5. 개선사항, 개선의지	
종 합 평 가		
개 선 방 향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03)

2018년의 주요 평가항목은 5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별도 항목에서는 축제와 무관한 프로그램과 대중 연예인 참여 등 과도한 행사는 감점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배점에 있어서는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세부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축제의 기획 5점, 축제의 특성과 콘텐츠 40점, 축제의 운영 30점, 축제 발전성 15점, 축제의 성과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감점사항으로 -5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홍보와 행사진행 준비, 행사프로그램, 주민참여도, 개선사항 등에 평가항목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의 발전역량, 축제의 효과 등에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표 4-5] 2018년 충남축제 평가항목(1)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1.축제기획	○ 축제 기획서의 전반적인 분야(기획목적, 콘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 축제 개최 1개월전 기획서 제출	5
2.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소계	40
	○ 축제 주제(소재)관련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20
	○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 그 축제만의 독특한 소재와 자원으로 관광객의 유인·몰입 가능성	-
	○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 - 축제 방문객에 위한 특색 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 축제 캐릭터 개발 등	15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연계투어, 체류형 야간프로그램 등	5
3.축제의 운영	소계	30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 등 행사장내 운영 효율성	10
	○ 축제 기획운영 전문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정도	
	○ 축제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등	5
	○ 접근성·공간배치 등 행사장 환경 및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운영 적절성	
	○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조 수준	
4.축제 발전성	소계	15
	○ 자치단체장의 육성·지원 등 발전 가능성	5
	○ 축제조직체 구성 여부 및 축제 재정자립도	10
5.축제의 성과	소계	10
	○ 축제 관련 관광객 유발 정도 - 관광객 수(외국인 포함), 지역 홍보효과 등	4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 관광객 비용지출, 재방문 가능성 등	3
	○ 축제 관광객 만족도	3
계	합계	100
감점	※ 축제주제와 무관한 프로그램, 대중연예인 참여 등 과도한 행사는 감점	-5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8)

[표 4-6] 2018년 충남축제 평가항목(2)

평가 점수 합계	축제 기획 (5점)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40점)			축제운영성 (30점)				축제발전성 (15점)		축제의 성과 (10점)	감점
	축제 기획 서 전반 분야	대표 프로 그램 완성 도	타축제 와 차별성	관광 자원과 연계성	자치 단체 장의 육성 의지 등	행사장 내 운영 효율성 등	편의 시설 운영 적절 성 등	관람 객 안전 관리 등	주민 참여 도 등	축제 재정 자립 도 등	관광객유치/ 지역경제발전/ 관광객만족도	축제와 무관한 과도한 행사
100	5	20	15	5	10	5	5	10	5	10	10	(-5)
											※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략적 평가(5)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8)

그리고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은 기존과 같이 축제개요에 기간, 장소, 주최, 주관, 주요행사 내용을 제시하고, 총평으로 잘된 점과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을 정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항목 별로는 축제기획, 축제의 특성 및 축제 콘텐츠, 축제의 운영, 축제발전성, 축제의 성과 등을 서술적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표 4-7] 2018년 전문가 평가보고서 양식

평가항목	평가 내용
1.축제기획	○
2.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3.축제의 운영	○
4.축제 발전성	○
5.축제의 성과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8)

2019년의 주요 평가항목은 5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으며, 특히 5번째의 기타사항

항목에서는 연예인 동원 과도한 예산지출과 주제와 무관한 의례 식순, 홍보된 축제프로그램의 축소와 부실 진행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배점에 있어서는 각각의 평가항목 별로 세부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분야 45점, 축제의 운영 20점, 축제 발전역량 30점, 축제의 효과 5점 등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9점을 부여 하고 있다.

[표 4-8] 2019년 충남축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평가
1.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45)	○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15) - 축제 기획의도 및 축제 주제 등의 명확성	15	
	○ 대표 프로그램의 차별성(20) - 대표프로그램의 창의성, 주제 표현 여부 ※ (현장점검시) 관광객의 호응도 등 축제장 분위기 고려	20	
	○ 지역 특색문화 소재 활용성(10) -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10	
2. 축제의 운영 (20)	○ 시설 인프라 운영의 우수성(5) - 축제장까지의 다양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접근성 정도 및 편의시설 배치	5	
	○ 인적 인프라 운영의 우수성(5) - 인적자원의 친절성, 안전요원 배치 등(진행요원, 안내, 자원봉사자, 구급차 등)	5	
	○ 축제 홍보 등 관광객 유치 활동의 적극성(10) - 명확한 홍보전략의 수립 여부(연관된 축제나 관광지 등 홍보 등)	10	
3. 축제 발전역량 (30)	○ 지역 사회 연계성(10) -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10	
	○ 축제 추진주체의 체계화 정도(10) - 축제 전담조직 구성 및 핵심인력의 장기적 근무, 조직의 안정성 등	10	
	○ 자립 및 자생 가능성(10) - 축제 산업화 여부(입장권 발매, 대표프로그램 유료화, 축제콘텐츠 및 축제 브랜드를 활용한 외부 협찬 여부 등)	10	
4. 축제의 효과 (5)	○ 성과 분석 객관성 및 인근 지역 관광활성화 기여도(5) - '방문객 집계지침' 준수, 연계관광 정보제공 등 축제방문객 체류시간 증대 위한 노력 ※ (예) 주+야간 프로그램 마련, 숙박 관광 유도 등	5	
5. 기타사항 (-9)	※ 연예인 동원 등 과도한 예산지출 수반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 주제와 무관한 의례 식순이나 행사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홍보된 축제 프로그램이나 부스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등 축제 진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합 계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9)

충남 축제의 평가항목 개선은 첫째, 축제 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축제규모나 개선의지 항목에서는 기존의 축제평가항목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평가항목 이외에도 정책적 개선의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더불어, 충남 각 시·군의 축제평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평가기준을 차별화하고, 기존에 축제의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로 세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며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항목에 배점강화와 항목조정 사항
 -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 배점 대폭 강화
 - 기획서 배점 삭제
 - 자치단체장의 육성의지 삭제 등
- 축제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 전문성 있는 독립된 운영주체(조직)의 유무
 -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축제의 전문성 평가
 - 축제별 중장기 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추가 등
- 평가항목의 구체화와 개선의지의 포함
 - 축제의 규모 따른 평가체계와 항목의 구성
 - 개선 의지항목에 사후 평가를 통한 반영여부 확인 등

특히,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에 의한 축제 지속성 평가부문(안)에서는 축제 자생력 강화 노력 등을 심사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문화관광축제 및 여타 지역축제 발전방향 제시, 질적 성장 유도 등을 하고, 광역 시도에서는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 지표를 준용하여 지자체 자체 축제 선정 및 지원을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평가 지표 개발이전에 예시로 제시된 평가부문(변경 예정)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측면 : 축제 재정자립, 축제 자원 및 재무관리, 축제산업화, 일자리 창출 등
- 사회문화적 측면 : 지역주민·단체 축제참여, 지역민의 축제 인식, 교육 등
- 환경적 측면 : 친환경, 환경보호 등

○ 기타(가감점) : 연예인 행사 등 현행 가감점 + 축제지원전담조직 구성, 축제기획 등 핵심인력 운영 등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 현재 문화관광축제 지정 심사·평가부문, 평가지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다. 따라서 지정 심사·평가체계 연구 및 보완, 개선안 지자체 설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남과 각 시·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2) 도지원축제와 연계한 시·군별 축제평가제도 실시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에 의하면 문화관광축제의 심사·평가방식이 ① 자체 성과관리체계 강화, ② 소비자(수요자) 현장평가 도입 등 평가주체 다각화, ③ 자생력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종합심사 개편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따라서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는 이상의 3가지 측면에서의 평가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① 시·군별 조례개정 및 제정과 자체축제수립 및 성과심사제도의 도입 시행

충남에 15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축제와 관련한 조례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군 중에는 공주시의 경우 ‘축제평가단구성 운영지침’을 운영하였으며, 금산과 당진, 서산, 예산, 태안 등에서 평가항목이 있으나 평가제도가 축제별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머지 시군들은 현재 축제평가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므로 우선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축제평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시·군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대표축제와 특화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는 자체적인 성과 심사제도와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도비지원축제로서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도비지원축제에 대한 축제개최 전 자체축제계획 수립 및 자체성과 심사의 의무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문화관광축제의 심사·평가방식에서 자체 성과관리체계가 강화되기 때문에 충남의 각 시·군에서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준비하는 축제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축제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축제도 이제부터는 자체축제평가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자체성과 심사는 축제 성과를 관리하고,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심사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으로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된 문화관광축제(‘20~’21년) 대상으로 2차년도 말에 서면심사를 하는데, 지정 1차년도와 2차년도 축제결과 보고서를 감사하여 각각 동일 비율을 반영
- 문화관광축제에서 공통사항으로 제시된 공통지표 및 개별 축제 특성 등이 반영된 자체지표를 설정하고, 전년대비 실질적 개선 및 주요성과를 평가함
- ※ 기존 ‘자체성과지표 달성도 심사’(‘19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평가에서 첫 도입)의 문제점인 자체지표의 대표성 부족, 형식적 설정·달성, 비교평가 불가 등을 개선

시기	축제 개최 전	축제 개최 기간 중	축제 개최 후
(1차년도)	자체 축제계획 수립, 제출 (공통/개별지표 설정, 목표치 등 제시)	현장평가 실시 (소비자 현장점검, 전문가 현장평가)	자체 축제결과보고서 제출 (주요성과, 지표 달성도, 개선내용 등)
(2차년도)	자체 축제계획 수립, 제출 (공통/개별지표 설정 및 변경, 목표치 등 제시)	현장평가 실시 (소비자 현장점검, 전문가 현장평가)	자체 축제결과보고서 제출 (주요성과, 지표 달성도, 개선내용 등)
2차년도말 차기 문화관광 축제 지정	1. 자체성과심사(계획, 실행, 성과·환류 중심으로 평가) 2. 현장평가(소비자 현장점검, 전문가 현장평가 합산하여 평가) 3. 축제 지속가능성 등 종합심사(정량 및 정성평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그림 4-2〕 축제개최전 지자체 축제 계획 수립 및 자체성과 심사

③ 현장평가에 소비자 현장점검단 평가 및 전문가 현장평가로 구성

이번의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제시된 평가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는 축제개최 기간 중 현장평가에서 기존에 없었던 소비자 현장점검과 전문가 현장평가로 구성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 소비자 현장점검단(모니터링) 평가방식을 신규 도입하여 기존 전문가 위주 현장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비자(방문객) 시각을 반영함
- * 기존에 축제기간 동안 소수 축제전문가 3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던 방식의 객관성 부족 문제와 공급자 중심의 평가를 개선함

○ 서면 확인사항, 현장평가에 부적합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인 가능한 평가 항목 위주로 개선

○ 소비자 현장점검단 운영방식 검토 중(2019. 10. 31 현재) : 추후 통보 및 매년 실시

* 시군 평생학습센터 교육 및 충남-정(情) 우수업소 현판 부착 및 시군홈페이지에 탑재 및 홍보

시기	축제 개최 전	축제 개최 기간 중	축제 개최 후
'20년 (1차년도)	축제별 축제계획 수립 (기존 방식, 자체 계획 수립)	현장평가 (기존 방식,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	축제별 축제결과보고서 작성 (기존 방식, 자체성과지표 달성도 등)
'21년 (2차년도)	자체 축제계획 수립, 제출 (제시한 작성지침, 안내에 따라 공통/개별지표 설정, 목표치 등 제시)	현장평가 (개선 결과 도출된 평가지표, 평가방식 적용하여 소비자 현장점검, 전문가 현장평가)	자체 축제결과보고서 제출 (제시한 작성지침, 안내에 따라 주요성과, 지표 달성도, 개선내용 등)
'21년말 차기 문화관광 축제 지정	▶ 자체성과심사 ▶ 현장평가 ▶ 축제 지속가능성 등 종합심사 「제3차」 개선 결과 도출된 평가부문별 평가지표, 평가방식 등 적용하여 심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그림 4-3〕 축제개최 기간 중 현장평가지 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평가

④ 축제 개최 후 종합심사 단계에 대한 평가체계에 준비

축제개최 후 단계에서 축제 지속성 평가부문(안)에서는 축제 자생력 강화 노력 등을 심사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문화관광축제 및 여타 지역축제 발전방향 제시, 질적 성장 유도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따라서 광역 시도에서는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 지표를 준용하여 지자체 자체 축제 선정 및 지원을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평가지표 개발이전에 예시로 제시된 평가부문(변경 예정)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측면 : 축제 재정자립, 축제 자원 및 재무관리, 축제산업화, 일자리 창출 등

○ 사회문화적 측면 : 지역주민·단체 축제참여, 지역민의 축제 인식, 교육 등

○ 환경적 측면 : 친환경, 환경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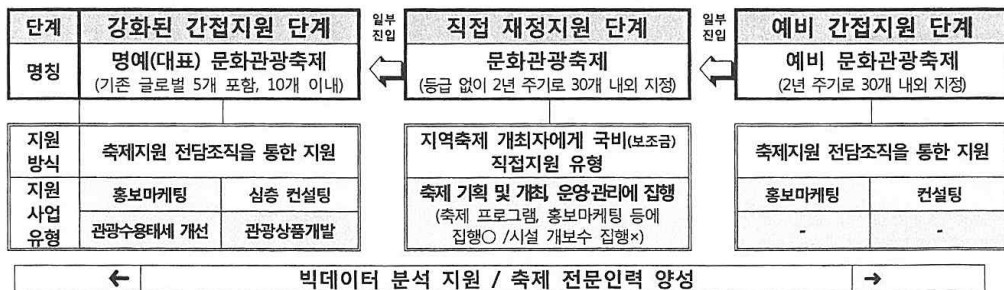
○ 기타(가감점) : 연예인 행사 등 현행 가감점 + 축제지원전담조직 구성, 축제기획 등 핵심인력 운영 등

3)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도비지원제도의 대응

문화관광축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최근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2019. 10. 31)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충남의 도비지원축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1) 성장 단계별 지원강화 제도에 대한 준비와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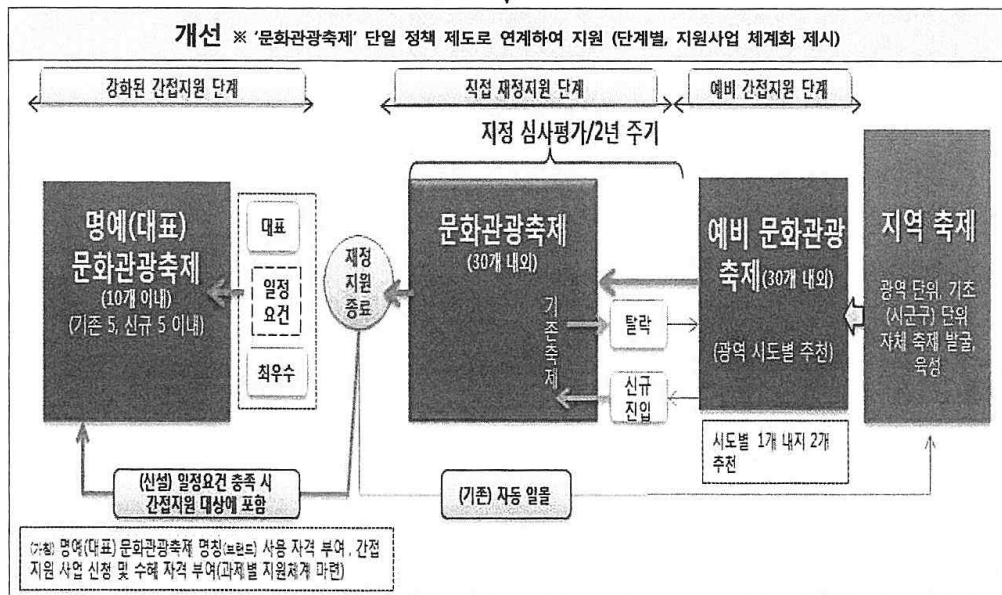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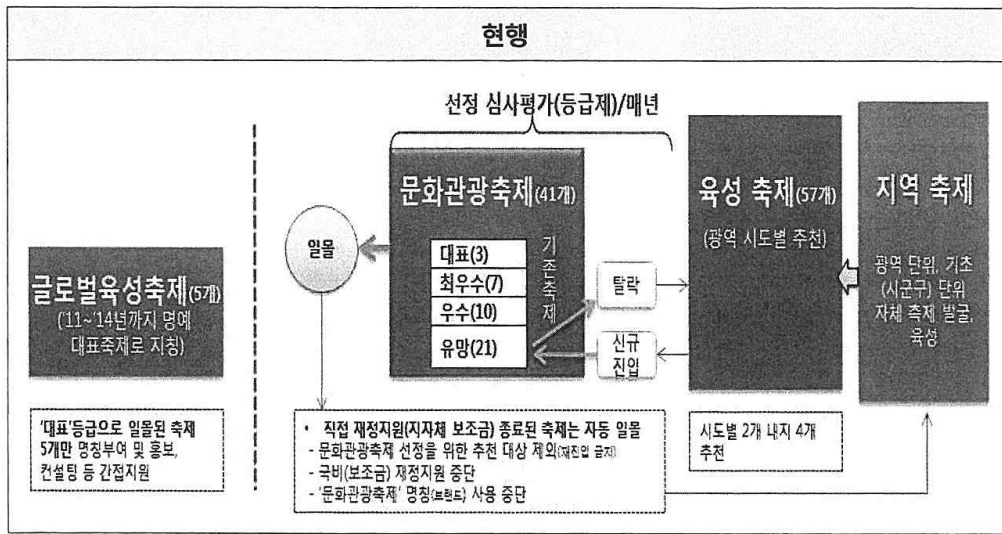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는 향호 성장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행 축제는 글로벌 육성 축제와 문화관광축제, 육성 축제 등으로 개별 명칭과 등급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강화된 간접지원 단계/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직접 재정지원 단계/문화관광축제, 예비 간접지원 단계/예비문화관광축제 등으로 구분하여, 질적 성장을 거쳐 자생력 강화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성장단계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체계화한다는 것이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그림 4-4〕 중장기 관점 문화관광축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즉, 문화관광축제는 예비단계(발굴)를 거쳐, 직접 재정지원 단계(성장) 및 후속 지원 단계(자생력/지속성)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충남의 도비지원축제도 기존의 축제지원제도를 앞에서 소개한 3가지의 축제 지원단계에 맞추어 성장 단계별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그림 4-5) 문화관광축제의 현행 및 개선제도의 변화방향

(2) 충남의 문화관광축제 축제에 대한 제도와 지원체계 대응

기존의 문화관광축제 등급 평가에 따른 과도한 경쟁 유발로 지역축제 관계자의 부담과 등급제로 인한 축제 서열화 개선 및 장기적인 성장유도형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서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매년 평가·선정하는 대신 2년 주기로 (재)지정 및 단일 ‘문화관광축제’명칭과 지원제도 틀 내에서 차등 없이 동일하게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충남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도비지원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를 신청하는 축제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표 4-9] 중장기 관점 문화관광축제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구분	주요 개선사항	
	현행	개선
문화관광축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등급제(대표·최우수·우수·유망) 매년 선정(차년도 지원대상 축제를 전년도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 등급 없음 2년 주기 지정 (‘19년말 지정→’20~’21년 문화관광축제 / ‘21년말 지정→’22~’23 문화관광축제)
지정 개수 및 직접지원(지자체 보조) 예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축제 41개(등급별 차등지원 최대 32백만원 ~ 최소 80백만원) 육성축제 57개(직접지원 없음.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관광축제 30개 내외 지정(등급없이 균등지원, 70백만원 이내 예상) 예비 문화관광축제 30개 내외 지정(직접지원 없음. 홍보, 컨설팅 등 간접지원 등 동일)
지정 심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성과지표달성도, 현장평가(전문가 축제 개최기간 현장평가, 온라인소비자평가, 분야별 심사, 종합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성과심사(산설 지정·2차년도 계획 대비 주요 성과 개선사항 심사) 현장평가(소비자 현장평가, 산설 전문가 현장평가, 축제 지속가능성 등 종합평가(산설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 종합평가)) * ‘21년말 지정’22 ~’23 문화관광축제 부터 적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 문화관광축제는 광역 시도 추천을 통해 지정(추천 기준, 절차 등 별도 안내 예정) 직접 재정지원기간 : 누적 총 10년간 지원으로 지원기간 제한(일몰제 유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향후, ‘20~’21년 문화관광축제의 지정방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정시기 : ‘19. 11~12월(계획)

- 11월 : 문화관광축제(‘20~’21년) 지정계획 수립 및 통보 및 빅데이터 분석자료 등 결과 확인
- 12월 : 문화관광축제(‘20~’21년)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문화관광축제(‘20~’21년) 지정, 최종 결과 발표 및 통보

○ 지정심사·평가 : 기 통보된 기준과 내용에 따라 ‘19년 문화관광축제 기존 등급에

따라 다른 방식과 절차 적용

구분 (‘19년 등급 기준)	심사·평가 절차 및 방법 (‘19년말 지정 추진 시에 한하여 시범적용)
문화관광축제 (대표, 최우수, 우수)	→ 최소정량요건(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축제 방문객 수 등) 충족 여부 검토 → 미충족 축제에 대해서는 자체 소명자료 제출하도록 안내 → (지정 심사위원회) 충족/미충족 최종 확인, ‘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지정
문화관광축제(유망), 육성축제	→ 최소정량요건(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축제 방문객 수 등) 충족 여부 검토 → 미충족 축제에 대해서는 자체 소명자료 제출하도록 안내 → (지정 심사위원회) 충족/미충족 최종 확인,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분야별평가 및 종합평가(현장평가, 온라인소비자평가, 분야별평가 합산 등) 하여 ‘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지정 * 문화관광축제(유망)과 육성축제 비교 평가 실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그림 4-6)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심사·평가

- 최소정량요건 : ‘19년도말 지정할 ‘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한하여 빅데이터분석 결과와 방문객 수 등을 시범 적용함

시범적용 요건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소재 축제 : 방문객 7만 또는 관외 방문객 3만 이상 ■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 소재 축제 : 방문객 10만 또는 관외 방문객 8만 이상 	다만, 문체부 빅데이터 분석결과 방문객 값을 미충족할 경우, 문화관광 축제 방문객 집계지침에 따라 집계한 방문객 수 결과 값 자료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최소정량요건 충족 여부 판단 (지침 준수 여부, 결과 값 등 검토)

향후, ‘22~‘23년 문화관광축제의 지정방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정시기 : ‘21. 11~12월(지정은 2년 주기로 1회만 실시)
- 지정심사·평가 : 개편된 지정 심사·평가 방식에 따라 실시
 - ▶ 자체성과관리체계 강화, ▶ 소비자(수요자) 현장평가 도입 등 평가주체 다각화, ▶ 자생력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종합심사 재편

이상과 같이 등급제가 폐지되고, 등급없이 균등지원되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정제도에 맞추어 충남의 문화관광축제의 선발과 도비지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예비 간접지원 단계의 예비 문화관광축제의 진입제도를 도비지원 축제에 반영

문화관광축제 제도 중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예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여 간접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과거 '03~'09년까지 예비 등급을 두고, '18년부터는 현행 육성축제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틀 내에서 예비 문화관광축제를 두고, 직접 재정지원 없이 컨설팅과 현장평가(전문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질적 개선 등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정방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정시기 : '20. 1월

- 1월 : 예비 문화관광축제('20~'21년) 지정을 위한 축제 추천 요청

○ 절차 : 광역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한 축제 중 지정

- 기초 지자체 추천 → 광역시도 자체에서 외부전문가 참여 심사평가 절차 추진

○ 규모 : 축제지원의 행정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 일정 수준 이상 수준을 갖추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30개 내외 지정

○ 지정주기 : 문화관광축제 지정 주기(2년 마다)에 맞추어, 2년 단위로 예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

(4)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개선에 따른 도비지원 축제 대응

그 동안 문화관광축제의 일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태가 다른 일몰 축제의 혼재 등을 고려하여 '일몰' 대신 '재정지원기간 종료'의 의미로 제도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재정지원 기간의 제한은 기존 등급제 하에서 '누적 10회' 또는 등급별로 차이를 둔 기준을 등급제 폐지에 따라 '누적 총 10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몰제에 따른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4-10〕 일몰제 개선에 따른 재정지원기간 제한의 정비방안

구분	(‘20년 ~)	3차(‘17 ~ ‘19년)	2차(‘15년 ~ ‘16년)	1차(‘10 ~ ‘14년)
재정지원 기간	누적 총 10년까지 지원	누적 총 10년까지 지원	누적 총 10년까지 지원	누적 총 7년까지 지원
대표축제	등급구분 없음. 기존 등급제 하 지원기간과 지정제 하 지원기간을 합산	연속 5년 지원	총 5년 지원	총 3년 지원
최우수· 우수축제		최우수 등급 이하 총 10년	동일등급 5년 지원	동일등급 3년 지원
유망축제		일몰제 미적용	일몰제 미적용	동일등급 4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4)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축제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자립형 축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차별화된 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지원의 다각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

① 공공재원이외 행정지원으로의 변화 추진

기존의 지역축제와 관련한 지원방향은 예산지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 지역축제의 발전기반 및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 간접적인 행정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정책으로 모든 축제들이 예산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의회 예산조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축제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그 단적인 예이다. 지원은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즉, 예산지원의 방법 또한 단순히 축제 자체의 개최를 위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축제의 인프라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② 분배형 예산지원방식에서 재정적 지원방식의 다원화

현재의 지역축제에 대한 분배형 예산 지원 방식은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지역축제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그 성과를 지역축제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 지원방식의 다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축제의 초기 수준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점차 민간수준으로 자체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정책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법상 재정 문제와 예산회계법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이무용, 2005).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수입 증대를 기하여야 하나, 축제 참가자의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등 축제와 관련한 세수가 전부 국가 수입이 되고, 지역축제의 주최자인 지방정부는 쓰레기 처리부담, 교통 혼잡, 시설설치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는 모순적 구조로 축제이익이 지역에 환류되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회계법상 ‘예산단년도’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음 연도 축제 예산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축제 기획의 어려움이 상존하여 지역축제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2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축제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 개최 및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③ 민간기업 메세나와 축제 자체수익 증대방안의 모색

나아가 민간기업 스폰서쉽, 축제자체 수익 증대방안 등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기업체 및 민간조직의 스폰서쉽 형성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다.

④ 문화예술 관련 예산과 연계한 축제예산의 확대

지역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축제예산이며, 자생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축제 전체 예산 배정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군에서도 축제 예산 배정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개별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관리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시군별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 강화

지역축제의 평가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시각에서의 축제 평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왜곡된 평가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축제 유형의 다양성이나 지역축제의 중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별 축제, 또는 개별 축제를 범주화한 유형별 축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 기준과 지표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축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축제의 준비 과정부터 실행 과정 그리고 축제 이후의 사후 영향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지역축제 평가시스템을 실시해야 한다. 축제실행계획서를 평가하는 사전평가, 축제 개최 시 축제전문가, 방문객, 지역주민, 상인 등의 현장 평가, 축제 개최 이후 운영결과보고서(축제담당자 자체평가 포함)를 평가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전, 현장, 사후평가를 종합하여 모든 축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인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역축제 평가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있어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조화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계량적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분석의 피상성, 그리고 정성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평가의 주관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서로 평가결과를 보완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접근방법을 조합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 개최의 목적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평가결과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의 직접 및 간접방식 등 다양화 추진

지역축제의 평가결과를 통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평가점수를 등급화하는 방법이 있다. 평가결과 A등급(우수축제) 축제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축제로 선정하여 예산(30% 상향조정 등)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B등급(유망축제) 축제의 경우에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C등급(예비축제)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항목별, 평가주체별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가 높은 축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방법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축제들이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축제 프로그램 분야, 시설분야, 마케팅분야, 지역문화발전 등을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분야를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지원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별 축제에 대한 평가 후 평가분석 결과를 해당 지역축제조직위 및 시군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며, 축제의 평가에 치중한 것에서 벗어나 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에 따른 축제컨설팅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축제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2019. 10. 31)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유형에서도 축제 지원사업의 직접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지자체 등 축제운영주체에 축제 개최 관련 사업비와 홍보비 등을 국비 보조금 형태로 직접 교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 지원사업은 축제 운영주체로부터 축제 개최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축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축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은 기본적으로 개별 축제운영주체의 역할이라 전제하고 있으므로 충남의 축제 예산확보와 지원 방식도 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4-11]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사업 유형

유형 구분	주요내용
컨설팅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축제 진단, 축제운영주체의 수요에 따른 전문가·업체의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 유형에 맞는 컨설팅
축제 관광상품 개발	축제 방안상품 개발, 기념품(머천다이즈 MD) 등 상품 개발, 지역관광 및 유관 산업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축제와 공연, 식음료, 문화재, 지역 관광자원 등 결합 관광상품 *(1단계) 사전조사(리서치) (2단계) 시제품 개발, 시험 (3단계) 상품판매 등 단계별 지원
축제 수용태세 개선	축제 안내 및 홍보물 등 안내·홍보체계 개선, 기자재 재활용·공동 활용, 축제 셔틀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방문객 집계 및 결제시스템 도입 등
축제 홍보 마케팅	국내외 관광마켓·박람회 참가 지원(축제상품 홍보 및 판매), 해외 유력인사 팸투어,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축제 빅데이터 분석	방문객수(통신사 데이터), 소비지출(카드사 데이터) 관련 기간별, 연도별, 연령대별 추이 분석 및 축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 제공
축제관련연구개발(R&D)	축제 공간배치, 방문객 동선 등 개선 연구, 축제 조명·디자인 연구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2019. 10. 31)

5) 축제 관련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축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축제별 차별화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과 각 시·군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충남문화재단 중심의 축제네트워크 구축

① 축제의 추진 주체간 협력시스템 구축

충남의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한다. 축제 담당자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축제전문가 그룹과 실제 축제기획자와 실무자간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축제는 민간 전문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관의 열린 자세로의 지원 및 지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협조 체제 구축이 지역축제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축제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의 통로와 상호간 경험과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축제 관련 담당공무원 및 축제조직위원회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② 충남문화재단을 축제네트워크 플랫폼으로 구축

지역축제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이들의 요구와 역할이 다양하므로 이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 축제네트워크는 도·시·군간, 시·군간, 민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구조이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축제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는 충남의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충남문화재단을 충남 지역 축제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 축제 네트워크의 주체로서 충남문화재단의 축제 관련 주요업무 내용은 축제관련 DB 구축, 축제평가시스템 개발 및 축제평가단 운영, 관련기관 및 조직간 정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충남축제네트워크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축제 간 연계방안 등 발전적 아이디어 교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충남 축제전담기구로의 상설화

① 충남 축제전담 상설기구로의 전환

충남축제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충남축제전담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 지역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전담 상설기구의 독립적 운영이 중요한데, 법적·제도적 기준에 의해 설치하여 안정성 보장과 동시에 축제의 개최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형식상 조직이 아닌 실행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민간주도형 축제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초기에는 충남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순수 민간주도로 운영되도록 충남도는 자금의 집행부분만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 이원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지역축제업무의 조정 및 통합과 종합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3) 충남 축제전문가의 양성과 주민참여 활성화

① 지역축제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축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다양한 축제의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남 지역축제의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축제 기획 및 운영자,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간의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통해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터뷰 결과에서도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참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충남지역의 축제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부분이라 하겠다.

②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해설사로 양성 : 예) 서동연꽃축제 연꽃해설사

지역축제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축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며,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축제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축제가 개최되기 전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해 단순히 질서유지, 안내 등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 평가 및 사후 피드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축제의 주인으로서 실제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축제 안내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충남도 또는 시·군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 내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하고,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기존에 충남공무원교육원의 축제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 4-12] 충남축제 아카데미 프로그램 예시

구분	세 부 내 용
[강의1. 축제 기획제작운영]	축제의 기획제작 단계별 구성요소와 운영
[강의2. 축제의 유형과 경향]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 전망과 평가의 흐름
[강의3. 축제예산 수립과 운영체계]	효율적인 축제예산 편성과 집행 시 고려할 요소
[강의4. 축제운영 및 관리]	축제운영 및 관리 실무
[강의5. 기획서 작성 실제]	좋은 축제기획서의 요건과 기획서 작성 실제
[기획세미나1. 프로그램 개발]	축제 정체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방향과 구성에 대한 사례분석
[기획세미나2. 축제 홍보마케팅]	지역관광을 위한 축제의 홍보마케팅 방안 사례분석
[현장실습, 성공축제 벤치마킹]	국내 지역축제 중 분야별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실습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종합정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획재정부 재정혁신추진과제에서 축제·행사성 지원사업으로 개선을 위하여 국비지원의 부적합성과 관리지침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충남축제에 있어서도 이에 대응하여 도비지원 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향토문화축제의 평가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변화된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제도에 대응하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향토문화축제의 평가방법과 도비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평가와 제도개선의 정책동향과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충남 향토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충남에서 도비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향토문화축제의 평가실태와 지원제도에 대하여 시군 및 축제평가 요인별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찾는다.

셋째, 도출된 과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남 향토축제평가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도 도비지원축제 제도의 개선대책을 제안하여 충남도와 시·군의 축제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의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2) 지역축제 평가·지원에 관한 연구와 동향

① 지역축제 평가와 지원체계

축제평가란 개별 축제 또는 소수의 축제들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이거나 또는 특정 개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개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문화관광축제로의 전환이 양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축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향 및 지원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은 지역주민,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축제담당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축제현장의 참여관찰 조사 등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향이 있는 평가 대상도 다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지역축제 평가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과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은 축제 지원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축제평가·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축제평가란 개별 축제 또는 소수의 축제들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이거나 또는 특정 개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개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문화관광축제로의 전환이 양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축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향 및 지원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정책목표와 지향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는 약하다. 단순히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정책은 지역의 특정 축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다.

③ 문화관광축제의 정책동향

199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문화관광축제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의 부재와 축제문화의 서열화 및 획일화에 대한 우려, 정부와 지자체간 축제발전 정책 연계 부족 등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의 기본방침은 ① 자치분권 원리에 따른 자치단체 역량제고, ②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③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등지원제도의 재검토 등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이다. 세계적인 축제 도약 및 지속가능한 축제 육성을 위해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적, 축제 콘텐츠, 운영주체 등의 측면에서 축제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단계별 성과 관리 체계화이다. 중앙정부는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기관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해당축제의 질적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줄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성장형 평가이다. 문화관광축제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축제의 중간평가, 개선 및 성장 유도를 위한 진단형 평가, 연차별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평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④ 소결 및 시사점

지역축제 평가·지원 연구와 중앙정부의 정책동향 분석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축제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이 필요

둘째, 기존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의 요구 시기

셋째, 축제평가 방식·방법의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넷째, 축제평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지원인센티브 제공의 다양화

다섯째, 축제주관자의 자체적인 축제의 평가 또는 모니터링 필요
여섯째, 축제평가와 개선을 위한 제도화 추진 등으로 제시되었다.

⑤ 지방정부 지역축제에 주는 시사점

이상의 선행연구 및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이 지방정부의 지역축제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둘째,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축제 정책의 대응방향 등의 차원에서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① 축제현황과 도비지원축제 현황분석과 지원제도 분석의 시사점

충청남도의 축제개최 현황과 특성, 충남 시군과 도의 평가와 지원제도, 충남 도비지원축제
및 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하는 바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축제의 양적성장에 비해 평가체계의 획일성을 지적할 수 있다. 2018년도 축제집계에서
충남지역의 축제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축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평가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축제의 양적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경쟁력이
높은 축제는 양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진단할 수 있다.

둘째, 시군별 평가 및 지원제도의 미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충남의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축제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특이한 것은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이 충남의 축제
관련 자치법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셋째, 비상설 축제추진체와 전문성 부족이다. 도내 93개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사무국의
유무와 상설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사무국이 없는 축제가 11개, 사무국이 있는 축제가 81개로
나타났다.

넷째, 도축제 평가제도와 시군적용의 어려움이다. 유선으로 축제공무원들에게 시군축제의
평가와 지원제도의 시행여부와 현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공주시, 예산군, 금산군은
평가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 지자체는 평가체계가 부재하며 실제 시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도비지원축제와 같이 세부적인 평가와 차등지원은 소규모 자치단체

에서 지역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의견을 보였다

②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시사점

충남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 축제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콘텐츠 및 조직 전문성 강화, 예산배정지침 마련 컨설팅과 사후평가 실시, 축제 커뮤니티 지원과 전문가와 전문팀 등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시스템에 대한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충남 향토문화축제의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에서는 축제평가항목의 배점강화와 항목의 조정, 평가항목에 운영주체의 전문성 평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축제의 규모나 개선의지 항목에서는 평가항목의 구체화와 정책적 개선의향도 포함토록 하였다. 더불어, 축제평가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차별화하고, 평가분야와 평가요소별로 세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축제평가에 따른 도비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축제성격과 등급제 실시와 컨설팅 지원책 강화뿐만 아니라 지원예산 사용지침마련 및 지원금 차등화, 지원금 사후평가제 실시와 지원금제정기준 마련과 지원금액의 고정화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

넷째, 지역 향토문화축제의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평가전문가 선정 개선과 콘텐츠전문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축제컨설팅 기능 추가와 민간전문기관 설립과 축제자립화, 글로벌 축제 집중 육성, 축제육성 지원제도와 기관설립과 평가제도 개선, 통합홍보 플랫폼 구축과 재방문객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축제평가제도에서는 충남형 특성 축제평가척도 개발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의 지양과 비수기 축제의 지원정책, 평가결과 반영 및 점검의 추진뿐만 아니라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기타의견으로는 축제명칭 구체화와 일정고정, 마케팅 강화 및 충실화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와 반영과 후속조치 강화, 정기기적인 축제의 실태와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평가의 투명성과 개선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정책제언

(1) 기본방향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① 문화관광축제 변화에 따른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 도입, ② 충남 축제평가제도의 업그레이드 및 세부지침 마련, ③ 비평가와 비지원 시·군별 경쟁력 있는 축제의 발굴과 육성, ④ 도비지원제도의 체계화와 시군별 자율평가제도의 도입, ⑤ 지역 차별화된 축제의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2)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 정책과제

① 성장형 효율적 충남형 축제평가와 지원제도의 개선

문화관광축제의 제도개선은 지방자치분권 원리에 따른 자치단체 역량의 제고와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그리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차등지원제도의 재검토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첫째, 중앙정부 축제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필요, 둘째 기존 축제평가 제도의 업그레이드 또는 개선 추진, 셋째 축제평가 방식·방법의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 넷째 축제평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지원인센티브 제공의 다양화, 다섯째 축제주관자의 자체적인 축제의 평가 또는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②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충남축제의 지원제도는 축제의 양적성장에 비해 평가체계의 획일성으로 차별화 경쟁력이 높은 축제는 양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시군별 평가 및 지원제도의 미비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수가 다양하므로 자치법규도 세부시행령을 따로 정하지 못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과 시군별로 연계될 수 있는 시행체제와 운영지침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지원제도의 대응

정부의 문화관광축제는 4 등급제(대표-최우수-우수-유망)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대상의 축제들은 매년 등급상승에 과도한 정책역량을 소모하여 장기적인 축제육성을 어렵게 하였고, 축제문화 서열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충남에서도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지원제도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지역축제 지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지역축제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지원은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며, 지원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예산지원 중심의 재정 지원과 함께 기획 및 홍보에 대한 지원, 간접적인 행정지원 등 지원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⑤ 축제 관련 전문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관 주도형 축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전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축제조직위’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축제의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참여주체의 문제이다. 지자체 장이나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지원조직이 아니라,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가진 전문가 및 지역주민 중심의 생산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충남 축제평가·지원제도의 정비와 개선방안

① 충남형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

충청남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축제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한 축제제도의 변화에 따라 충남에서도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신규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선정과 충남의 브랜드축제로 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의 글로벌 문화관광축제의 전략적 선정과 육성,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를 충남의 브랜드축제로 선정 개최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충남도비지원축제의 인증제 실시로 시·군축제 자체 심사평가제와 연동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제도에 맞추어 충남 축제평가에 따른 등급과 명칭의 변경, 시·군별 충청남도육성축제 인증제와 선정축제의 컨설팅 지원 강화, 도비지원 대상축제에 대한 시·군 축제 자체심사평가제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축제평가에 빅데이터 정량지표 반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축제 대상 및 도비지원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지표제 도입과 유인축정에 의한 입장객수 측정방식의 도입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현장평가 이외에 사후평가, 사전컨설팅 및 환류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현장평가와 사후평가에 대상축제의 선정과 도입, 사전컨설팅과 환류시스템을 강화 등이 현재의 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에서 보강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로컬관광 서비스 혁신과 충남 관광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는 로컬관광 서비스시스템을 민간주도형으로 혁신과 관광업계의 자발적 리더십 강화와 관광단체의 기능과 역할 개선 등을 추진한다.

② 충남 축제평가제도와 도비지원의 세부운영지침 마련

충남의 축제평가제도는 그동안의 운영의 과제를 분석하여 과제를 찾고 도비지원의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다면적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시·군별로고 축제 자체평가 심사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다면적 축제평가체계로 전환과 평가항목의 보완·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축제평가에서 다면적 축제평가체계로 전환과 축제평가항목의 보완·운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도지원축제와 연계한 시·군별 축제 자체심사평가제도 실시이다. 이에 따라 시·군별 조례개정 및 제정과 자체축제수립 및 성과심사제도의 도입 시행과 도비지원축제에 대한 축제 개최 전 자체축제계획 수립 및 자체성과 심사의 의무화, 현장평가에 소비자 현장점검단 평가 및 전문가 현장평가로 구성, 축제 개최 후 종합심사 단계에 대한 평가체계에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사항별 충남 축제 도비지원제도의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축제제도를 개선하면서 최근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2019. 10. 31)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이들 제도개선에 맞추어 충남의 도비지원축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성장 단계별 지원강화 제도에 대한 준비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예비단계(발굴)를 거쳐, 직접 재정지원 단계(성장) 및 후속 지원 단계(자생력/지속성)를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충남의 도비지원축제도 기존의 축제지원 제도를 앞에서 소개한 3가지의 축제 지원단계에 맞추어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충남의 문화관광지정축제에 대한 제도와 지원체계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축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매년 평가·선정하는 대신 2년 주기로 (재)지정 및 단일 ‘문화관광축제’명칭과 지원제도 틀 내에서 차등 없이 동일하게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충남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도비지원축제 중 문화관광축제를 신청하는 축제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예비 간접지원 단계의 예비 문화관광축제의 진입제도를 도비지원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문화관광축제 제도 중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예비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여 간접지원을 함으로써 향후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 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틀 내에서 예비 문화관광축제를 두고, 직접 재정지원 없이 컨설팅과 현장평가(전문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질적 개선 등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문화관광축제 일몰제 개선에 따른 도비지원 축제 대응이다. 그 동안 문화관광축제의 일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형태가 다른 일몰 축제의 혼재 등을 고려하여 ‘일몰’ 대신 ‘재정 지원기간 종료’의 의미로 제도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따라서 충남도 재정지원기간의 제한은 기존 등급제 하에서 ‘누적 10회’ 또는 등급별로 차이를 둔 기준을 등급제 폐지에 따라 ‘누적 총 10년’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

(4) 차별화된 자립형 및 민간주도형 축제 강화와 예산지원방식 개선

① 예산지원의 다각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

예산지원의 다각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재원이외 행정지원으로의 변화 추진이다. 기존의 지역축제와 관련한 지원방향은 예산지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 지역축제의 발전기반 및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 간접적인 행정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분배형 예산지원방식에서 재정적 지원방식의 다원화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분배형 예산 지원 방식은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지역축제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지역 사회에 환원되고, 그 성과를 지역축제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 지원방식의 다원화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 메세나와 축제 자체수익 증대방안의 모색이다. 민간기업 스폰서십, 축제 자체 수익 증대방안 등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문화예술 관련 예산과 연계한 축제예산의 확대이다. 지역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축제예산이며, 자생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축제 전체 예산 배정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군별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분석 강화

지역축제 유형의 다양성이나 지역축제의 중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별 축제, 또는 개별 축제를 범주화한 유형별 축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 기준과 지표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축제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축제 평가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있어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조화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③ 평가결과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의 직접 및 간접방식 등 다양화 추진

지역축제의 평가결과를 통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평가점수를 등급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항목별, 평가주체별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가 높은 축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차등지원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축제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5) 축제 관련 전문조직 구성 및 운영과 전문인력의 양성

① 충남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원 중심의 축제네트워크 구축

충남의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한다. 축제 담당자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축제전문가 그룹과 실제 축제기획자와 실무자간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리고 축제네트워크는 도·시·군간, 시·군간, 민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하여 충남의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충남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원을 충남지역 축제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② 충남 축제전담기구로의 상설화

충남축제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충남축제전담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충남문화재단과 시군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순수 민간주도로 운영되도록 한다.

③ 충남 축제전문가의 양성과 주민참여 활성화

충남 지역축제의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축제 기획 및 운영자,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간의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통해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지역축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도록 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축제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충남 도비지원 축제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 축제 평가에 대한 이론연구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충남 도비지원축제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제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나 앞으로 이들 제도적 변화와 연계한 충남 도비지원축제의 연계성과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전시키는 2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18), 재정혁신추진과제 자료
- 김경태(201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 김사현(1990), 관광경제학, 경영문화원
- 류정아(2006),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2007),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관광부(2007), 문화관광축제 변화와 성과
- 문화연대(2004),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개혁방안 연구, 문화연대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5), 내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추진안. 내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2018 문화관광축제 정책 심포지엄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계획. 내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10. 31),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지자체 설명회 자료.
- 배만규(2002), 지역축제 개최결과의 표준평가속성 개발: 문화관광부선정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 백선헌(2006), 도시문화전략 차원의 지역문화축제 평가요소 비교분석, 관광경영연구 27권
- 신동일(2005), 제주형 축제평가 모델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오훈성(2011),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훈성(2014), 「문화관광축제 선정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제도 운영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훈성(2016),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른 효과 분석: 2010년~2016년 지정등급 기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훈성(2018), 「문화관광축제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향」 월간웹진 11월호
- 유지운(2018. 6. 8),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안), 문화관광축제 정책심포지엄

- 이무용(2005),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병국(2010),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방안, 『한국관광정책』 제39호, 85-89
- 이현식(2003), 한국의 지역축제 지원정책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시연구 제5권 제3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훈(2002), “문화관광축제 평가방법연구”, 『2002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활성화』
- 이훈(2007), 리서치노트 : 문화관광부 축제지원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평가, 관광연구논총 제18권,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 장장식(1996), “도시에서의 전통문화의 보존”, 도시 문제 1996년 2월호, 지방행정공제회
- 진경수 편역(1994), 관광과 문화, 일신사
- 조혜정(2008), 인천광역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채원호외(2003), 지역 문화축제 평가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 충청남도(2017), 2017충남 관광기본자료
- 한국관광학회(1995), 관광학연구 제18권 제2호, 일신사문화관광축제 활성화방안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7), 한국의 축제, 문화예술총서

■ 집 필 자 ■

- 연구 책임 · 이인배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원내연구진 ·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권미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 김주호 배재대학교 교수
·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략연구 2019-?? · 충남 축제평가와 도비지원제도 개선방안

글쓴이 · 이인배, 김경태, 권미정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9년 2월 28일 / 발행 · 2019년 2월 28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53(경제산업연구실)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

ISBN ·

<http://www.cni.re.kr>

© 2019.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